

3255  
30P.0P11

南北韓比較 - 社会文化

# 南北韓 社会文化 現況比較



2) 1975.10.10  
" 4월 20일 10시  
" 2월 18일 10시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1. 社会文化的 比較方法 .....	5
가. 基本的 前提 .....	5
나. 比較方法論 .....	6
2. 社会構造의 比較 .....	9
가. 基本體制의 差異 .....	9
나. 北韓社会의 異質的 特性 .....	11
다. 社会的 統制 .....	15
라. 階級構造와 社会移動 .....	22
마. 人口構造 .....	28
3. 文化構造의 比較 .....	31
가. 文化的 目標 .....	31
나. 道德·倫理·禮儀凡節 .....	34
다. 文化類型의 差異 .....	41
4. 家族生活의 比較 .....	43
가. 家族觀 .....	43
나. 家庭生活 .....	44
다. 女性의 社会活動 .....	46

라. 衣食住生活水準 .....	49
마. 冠婚喪祭와 歲時風習 .....	63
5. 社会生活의 比較 .....	69
가. 社会政策의 基調 .....	69
나. 勞動生活 .....	71
다. 財産所有 .....	74
라. 所得 및 生活水準 .....	76
마. 趣味·娛樂 .....	79
바. 宗 教 .....	80
6. 文化生活의 比較 .....	88
가. 教 育 .....	88
나. 言論·出版 .....	100
다. 文學·芸術 .....	107
라. 言 語 .....	114
마. 国史解釈 .....	119
바. 傳統文化와의 葛藤 .....	121
7. 社会問題의 比較 .....	124
가. 社会的 逸脫行爲 .....	124
나. 社会的 不条理現象 .....	130
다. 社会問題의 諸要因 .....	131
8. 要約과 結言 .....	135

## 圖 表 內 容

1. 社会團體 .....	16
2. 階層構造 .....	24
3. 職能別 人口分布 .....	27
4. 人口構成 .....	29
5. 北韓住民日課表 .....	51
6. 北韓의 階層別 月給 .....	52
7. 北韓의 1日食糧配給基準 .....	54
8. 北韓의 決算分配時 控除內訳 .....	55
9. 北韓의 勞力工數評價基準 .....	56
10. 北韓의 階層別 衣服 .....	59
11. 北韓의 階層別 住居形態 .....	61
12. 名節 및 紀念日 .....	66
13. 北韓民俗놀이의 變質過程 .....	67
14. 北韓의 財產所有 變遷 .....	75
15. 北韓의 主要生必品 價格 .....	78
16. 韓國의 宗教別 教勢 .....	81
17. 學校·學生·教員數 .....	93
18. 主要 學生組織 및 活動 .....	95
19. 學 制 .....	97
20. 北韓의 教育體系 .....	98

21. 北韓의 新聞發行現況 .....	103
22. 北韓의 教養圖書出版現況 .....	104
23. 北韓의 放送網體系 .....	105
24. 放送局現況 .....	106
25. 北韓의 文芸小組員發表作品의 主題 .....	110
26. 北韓의 犯罪類型 및 處理現況 .....	126

## 1. 社会文化的 比較方法

가. 基本的 前提

民主福祉體制와 共產独裁체제의 社会文化를 서로 比較하는 問題는 「마르크스」主義 社会学에서 보는 社会文化觀과 西方社会의 科学的 社会学에서 보는 社会文化觀 間에 현격한 差異가 있고, 또한 그 立場도 각기 그 社会体制的 바탕을 背景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共通된 分析基準으로서 選擇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예컨대 文学 藝術에 있어서 南北韓은 文芸活動의 目的을 전혀 달리고 있기때문에 各己 体制的 構成原理를 前提하지 않는한 無意味한 比較가 된다. 韓國은 超階級的 純粹文化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지만 北韓에서는 모든 文化가 階級性, 革命性과 人民性을 지녀야 된다고 主張한다.

또 하나의 問題는 資料의 制約性이다. 韓國은 開放体制이고 또 言論, 出版, 報道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으므로 韓國關係資料의 交流는 대단히 활발하다. 오히려 周邊的 資料의 過度한 放出은 海外에서 보게되면 特殊的인 것을 마치 一般的인 것으로 誤認할 危險性마저 있다.

反面에 北韓에 관한 資料는 지나치게 封鎖되어 있다. 그나마도 限定된 範圍內的 特定資料는 모두 北韓体制의 維持強化를 目的으로 한 一方的 宣傳物에 속하는 것들이다. 社会学的 側面에서 보면 특

히 非公式的인 資料가 重要視되는데 北韓의 경우 이에 대한 蒐集可能性이 극히 制限된 狀態이다. 따라서 北韓의 內面을 正確하게 分析·評價할 수 있는 資料를 入手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그 까닭을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은 다른 共產國家들과도 資料를 交換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 實際로 該當되는 資料가 生産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둘째, 北韓을 訪問한 者에 대하여는 그 活動範圍를 極度로 制限하고 있기 때문에 客觀的인 觀察이 不可能하고 一般住民들과의 接觸은 더우기 認定되지 않는다.

셋째, 北韓社會에서는 居住移轉, 職業選擇, 旅行의 自由가 없으므로 설사 北韓地域에서 生活하였던 越南歸順者들도 제한된 자기 주변의 生活體驗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北韓의 統計數字에 대한 信憑性에도 問題가 있다. 人口動態만 보더라도 北韓에서는 1963年以後 公式的 人口動態를 發表하지 않았으며 經濟統計에 있어서도 部分的인 總額만 나타냈을 뿐, 分析할 수 있는 세부적인 統計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설사 資料가 入手되었다 하더라도 數量化가 困難하다든가 相互比較가 不可能한 資料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諸事實은 특히 計量的 分析에 있어서 커다란 困難을 야기시키고 있다.

#### 나. 比較方法論

이와같이 南北韓社會文化現況의 比較에 있어서는 体制의 差異때



문에 比較「모델」내지 比較尺度를 마련하는 問題가 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困難性은 体制自體의 比較에서도 나타나지만 下位体系의 分野別 比較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운 問題가 된다.

일반적으로 南北韓의 社会文化를 比較研究함에는 T. Parsons의 社会均衡理論, R. Dahrendorf의 社会葛藤理論등을 相互補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一般社会学의 分析「모델」이 体制가 相異한 南北韓의 比較에 그대로 적합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 더우기 北韓에 관한 部門에 있어서는 比較結果에 대한 確認을 통하여 이를 客觀적으로 立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問題와 制約이 뒤따른다. 결국 이들 理論에 準拠한 北韓社会의 現況分析에 대한 妥当性和 正確성이 의문시되는 위에다 相異한 構造와 機能을 가진 南北韓의 社会文化現況을 서로 比較한다는 것은 正確도에 있어서 더욱 信憑性이 減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諸般制約性和 限界點을 극소화하는 方法으로서 다음의 몇가지를 前提하고자 한다.

첫째, 社会文化現況의 比較에 있어서 이를 長期的인 眼目에 立脚하여 分析하는 問題이다. 大体로 巨視的이며 價值判斷的인 要因이 많이 介在하는 研究에 있어서는 短期的인 것보다 長期的인 視野를 扞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北韓側의 資料가 欠乏되어 있는 여건하에서 短期的인 予測과 判斷을 한다는 것은 매우 危險한 것이다.

둘째, 比較對象으로서 政治, 外交, 軍事 등 諸下位體間의 相互關係性에 관한 問題가 감안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相互比較 方法에 있어서 政治, 外交, 經濟, 軍事 및 社會文化를 각각 分野別로 分離하지 않고 相互 補助的 立場에서 取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論上의 諸制約性과 限界點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도 自然히 類型論的인 記述의 方式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그것도 客觀的 妥當性에 準拠한 것이라기 보다는 斷片的인 事實을 통해 類推된 圖式的이고 試圖的인 한 側面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2. 南北韓社会構造의 比較

### 가. 基本体制의 差異

解放後 国土의 兩斷과 美·蘇의 進駐는 南北間에 政治的 理念에 의한 分斷의 永続化를 가져왔고 南北의 對立과 6.25戰爭은 理念的 硬直性을 加速化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南北韓 社会는 각기 相當한 變貌를 거듭하여 왔다. 解放前의 우리나라는 國家없는 民族, 國家없는 社会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解放後에는 自由 國家로서의 体制確立과 더불어 國家와 社会가 再整備되어야 하는 民族歷史의 一大轉換期에 直面하였던 것이다.

日帝植民地下의 韓半島는 이른바 前近代의 農耕社会를 主軸으로 하는 傳統社会의 特色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오랜 植民地統治때문에 日本的要素가 社会의 表層部에 두껍게 깔려있는 일종의 二重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社会는 解放과 더불어 日帝 殘滓를 扞拭하면서 동시에 前近代의 遺制를 近代化해야 한다는 二重의 課題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實質적으로 6.25 動亂까지는 美·蘇에 의한 南北分斷政策으로 左右翼의 衝突과 鬪爭이 過熱化되어 政治的 混亂이 極甚하였고, 이로 인해 社会的 整備作業은 2次的인 것으로 돌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進통기에 있어서 金日成傀儡政權의 無謀한 武力南侵은 결국 6.25의 民族的 慘變을 낳았고 이로 인한 南北韓

關係의 異質化 性向은 더욱 促進되었다.

지난 30餘年間の 韓國社會는 한마디로 變動과 發展속에서의 自己發見을 위한 整備作業에 餘念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50年代의 韓國社會는 移植된 西歐的 價值體系의 土着化를 위해 진통을 겪었고 60年代는 現實과 遊離된 價值體系를 바로잡기 위해 規範體系와 報酬體系를 강화한 時期였으며 '70年代는 '60年代의 經驗으로 비추어 보아 새로운 固有의 價值體系를 定立하려는 時期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 主要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祖國이 分斷되고 이로 인해 南北韓의 對峙가 繼續되고 있는 狀況下에서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權守護는 韓國의 가장 重要한 課題이며 따라서 이는 最優先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問題가 된다는 점이다. 1979年 10.26 事態 直後 갑작스럽게 造成된 政治的 空白속에서 12.12 事態, 學園데모事態와 各種勞使紛糾, 光州事態 등 連續된 一連의 事態로 韓國은 한때나마 國家의 危難을 切感하였다.

이는 國民의 生存權과도 直結되는 國家安危에 관한 問題이므로 '80年 6月 國家의 繼續性과 安全保障을 確固히 할 수 있는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등 制度的 裝置가 강구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社會正義와 衡平의 具現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價值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自由經濟體制 自体에 挑戰하거나 本質을 沮害하는 結果를 빚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個人의 創意와 誠實한 努力을 尊重하는 社會, 또 그럼으

로써 劃一的이 아닌 「多樣속의 調和」가 保障되어 繁榮되고 活力이 넘치는 國家야말로 韓國이 指向하는 바 富強한 民主福祉國家일 것이다.

이와같이 새로운 價值體系를 定立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國家의 期待와 社會成員들의 努力이 合致될 때에 비로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國民總和가 要求되는 理由가 있는 것이며 그 根底에는 첫째, 우리 歷史環境과 文化的 背景에 알맞는 民主主義를 土着化하며, 둘째, 國民 個個人이 物心兩面으로 充足할 수 있는 福祉社會를 建設하고, 셋째, 繼統的이고 広範한 社會改革을 통해 正義로운 社會를 具現하여야 한다는 指導理念을 강하게 標榜하고 있다. 즉 韓國은 韓民族의 歷史的 背景과 傳統的 價值觀에 의거하여 民主福祉社會建設을 그 基本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 나. 北韓社會의 異質的 特性

共產獨裁下의 北韓社會는 韓國과는 전혀 다른 體制的 特殊性을 띠고 있다. 個人에게는 北韓 勞動黨에 의하여 代表되고 統制되는 全體의 한 構成要素로서의 存在價值만이 認定되며, 「個人은 全體를 위하여」 모든 犧牲을 強要 당하는 全體主義的 一人獨裁社會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理論적으로 全體主義의 一般的 特性은 ① 大衆統制의 手段으로서 暴力을 使用하여 恐怖霧圀氣를 造成하고, ② 官製 「이데올로기」

에 의한 思想統制를 嚴格化하며, ③ 少数集團에 權力을 集中시키고 特定人을 偶像化하며, ④ 中央集權的 經濟體制를 強化하는데 있다.

北韓은, 이러한 諸般 要素들을 어떠한 全体主義的 社會의 경우보다 더욱 徹底하게 遂行하고 있는 소위 “第四의 共產主義” 體制를 形成하고 있다. 그것은 北韓 支配層이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體驗이 없이 오직 日本의 軍國主義 體制와 「스탈린」의 鐵拳獨裁體制下에서 訓練되었다는 데에 緣由하고 있다.

이와 같이 個人偶像化에 基礎하고 있는 北韓 社會體制的 構造的 特性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私有財産의 所有를 認定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 獨裁社會라는 點이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1946年 3月 「土地改革法令」 發表와 同時에 土地를 沒收하여 個人에게 無償分配하고, 그해 6月에는 「産業國有化法令」을 發表하여 生産手段의 國有化를 斷行하였다.

그러나 農民에게 分配한 土地는 1954年부터 協同農場을 組織하기 始作하면서 다시금 沒收되기 始作하였고, 1958년까지 모든 農民은 協同農場에 強制로 加入되어 土地所有權을 完全히 剝奪 당하고 말았다. 個人商工業도 이 期間에 完全히 沒收되어 北韓住民은 生産道具의 口實밖에는 못하는 한낱 勞動力에 불과하게 된다. 北韓은 1977年 4月 새로운 「土地法」을 採択하고 1978年 4月 소위 「社會主義 勞動法」을 制定함으로써 土地管理과 勞動規準에 대

한 党的 指導와 統制를 더욱 強化하였다. 이로써 住民들의 隸屬性과 奴隸性은 더욱 加重되고 있다.

둘째, 그것은 金日成 主体思想과 党唯一思想体系가 모든 價値를 支配하는 劃一的 社会이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하나의 理念만이 公認된다. 社会主義 国家에서는 反對的 「이데올로기」가 許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는 政治, 經濟, 宗教 등 어느 局限된 領域이 아니고 人間行動의 全部를 規制하는 広範한 包括性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国家的 意志이며, 누구나 이 原理에 服從토록 強制된다는 뜻이 된다.

北韓에서는 唯一思想과 主体思想이 既存의 「마르크스·레닌」主義를 補完하는 「이데올로기」로 裝飾되어 있으며, 이는 金日成에 의하여 解釋되고 規定지워진 「마르크스·레닌」主義만이 유일한 社会理念으로 適用된다는 것이다. 즉 北韓에서는 「金日成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라」고 하는 口號 아래, 「수령의 敎示를 끝까지 忠誠으로 목숨 바쳐 貫徹할 것」을 強要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그의 「敎示」는 그 어떠한 法令이나 「党決定」에도 우선하는 絶對성과 無條件성이 賦与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集團主義原則」에 準拠한 組織社会라는 점이다. 北韓의 「社会主義 新憲法」 第49條를 보면, 「北韓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体를 위하여, 全体는 하나를 위하여서라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全体를 떠난 個人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으며, 全体와 個体の 利害는 언제나 一致되는 것

임을 公式的으로 強要하고 있는 것이다. 新憲法 第 68 條에 의하면,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社會主義的 行動指針을 促求하고 있다.

이와 같은 集團主義에 따라 모든 住民은 組織속에 묶여져야 하며, 모든 組織은 黨의 指令에 따라 劃一的으로 움직인다. 이는 바로 共產主義的 人間의 典型的 行動 特性인 것이다.

네째, 北韓社會는 黨性에 따른 徹底한 階級社會이다. 즉 北韓을 統治하고 있는 集團은 職業的 革命分子로 構成된 「朝鮮勞動黨」이며, 이러한 黨을 支配하고 있는 것은 制度的으로나 實質的으로 「國家主席」인 金日成 1人인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200萬 黨員이 統治階級으로서의 特權階級을 形成하고 있다. 이들은 身分上으로나 社會的 機會面에 있어서 一般 住民(被支配層)과 嚴格히 区分되고 있다.

다섯째, 北韓 社會는 그 어떤 共產國家나 戰時體制下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超軍國主義的 兵營社會를 이루고 있다. 즉,

① 모든 住民은 各種 組織에 從屬되어 있으며, 工場, 企業所, 協同農場의 作業班體制는 軍隊式 編成모형에 따라 下向的 命令體系를 유지하고 있으며,

② 四大軍事路線, 즉 「全住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代化」라는 기치아래 72萬의 正規軍을 除外하고도 76萬의 「붉은 青年近衛隊」, 167萬의 「勞農赤



衛隊」(男 18~45才, 女 18~30才), 26萬名の「教導隊」(26~35才 軍除隊者)가 組織되어 있으며(北韓概要, 統一院, 1980, p.225. 參照), 全學生을 軍事訓練에 動員(高等中以上 兵器 支給)하는 등, 兵營社會의 一色을 이루고 있다.

## 다. 社會的 統制

### (1) 組織的 活動

國家社會는 各己 追求하고자 하는 文化的 目標와 同時에 이를 達成하고자 하는 制度的 手段을 가진다. 어떤 社會에 있어서나 特정한 國家目標를 指向하여 各種 行爲를 統制하는 여러 가지의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 있다.

北韓에서는 共産黨에 의한 組織的이고 系統的 統制를 그 基本으로 하고 있다. 「黨決定」이 法令보다 더 큰 拘束力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勞動黨에 의해 操縱받는 各種 社會團體와 政權機關이 住民生活의 모든 領域을 包括적으로 監視하고 있다. 一黨獨裁를 指向하는 統治體制를 構成하게 될 경우 黨이 統治力의 核을 担当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非黨員인 被統治層에 대해서는 黨 自体가 個個人을 直接的으로 統制할 수 없기 때문에, 一般大衆을 住居別, 職種別, 階層別로 組織化하여 이들 社會團體의 指導機關을 黨이 掌握하고 이들로 하여금 黨과 大衆과의 媒介的 機能을 担当케 한다는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는 7才부터 65才(女子는 60才)까지 1個 以上の 各種 団体に 義務적으로 加入하여 組織生活을 하여야 한다. ( 단, 「複雜한 階層」 中 独裁対象에 속하는 疎外階層은 除外시킨다. ) 이러한 各種 社会団体を 年令別로 区分해 보면, 7~13才는 少年團, 14~28才(本人의 希望으로 30才까지 延長 가능)는 「社会主義 勞動青年同盟」에 加入해야 하고, 職業別로는 勞動者와 事務員을 비롯한 精神勞動 従事者는 「職業同盟」, 協同農場員은 「農業勤勞者同盟」에 所属되어야 하며, 女性(18~55才)은 民主女性同盟에 網羅된다. < 表 1 >

< 表 1 > 社会団体の 種類와 規模

区 分	韓 国	北 韓
職業団体	韓国勞動組合總聯盟(勞總) ○ 構成: 鐵道勞組 등 總 17 個勞組 ○ 組合員數: 109 萬 4,008 名	朝鮮職業總同盟(職盟) ○ 構成: 朝鮮輕工業 勞動者 職業同盟 등 總 10 個同盟 ○ 盟員數: 約 250 萬名 朝鮮農業勤勞者同盟(農勤盟) ○ 盟員數: 約 300 萬名
女性団体	女性団体協議會, 韓國婦人會 全國主婦教室中央會	朝鮮民主女性同盟(女盟) ○ 盟員數: 約 270 萬名

区 分	韓 国	北 韓
芸術団体	韓国芸術文化団体 総聯合会 ( 芸総 ) ○ 構成 : 韓国文人協會 등 總 10 個協會 ○ 會員數 : 20,000 餘名	朝鮮文學藝術總同盟 ( 文芸總 ) ○ 構成 : 朝鮮作家同盟 등 總 8 個同盟
靑少年団体	보이·걸 스카웃 ○ 隊 ( Unit ) 數 : 10,402 個隊 ○ 隊員數 : 386,553 名 ○ 指導者數 : 49,441 名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 社勞靑 ) ○ 盟員數 : 約 270 萬名 朝鮮少年團 ○ 團員數 : 約 300 萬名

이처럼 個人을 團體로 묶어 統制하는 것은 党的인 行動指導와 思想的 管理를 徹底히 하고 동시에 有事時에는 社會動員能力을 保障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韓國社會의 組織生活은 人間 個個人이 가진 自我實現의 欲求를 充足시키려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外部的 強制나 義務的 加担이 아니라 各자의 人生觀과 組織構成員의 共通된 利益을 成就하는 方向에서 自發的이고 自律的으로 維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多樣한 利益關係에 의한 多種한 公式的·非公式的 組織이 無수하게 共存한다.

## (2) 個人生活 統制

人間의 基本權에 關聯되는 個人生活에 대한 統制는 그 制限의 幅을 最小限으로 줄이는 것이 現代 社會의 一般의 原則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集團主義 原則에 따라야 한다」는 口號 밑에 住民의 公的·私的 行動이 無慈悲하게 유린 당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에서 實施되고 있는 私生活의 統制方式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체의 衣, 食, 住 등 生活與件을 北韓 共産黨이 掌握하고, 그에 順從하지 않으면 삶을 이어 갈 수 없게 하는 方式을 採択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食糧配給制와 重要 日用品 供給制를 실시하여 配置된 職場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를 求得할 수 없게 되어 있고, ② 職業選択 및 職場移動을 任意대로 할 수 없으며, 違反時에는 失職되어 生活手段을 잃게 되고, ③ 個人에 의한 住宅建設이 許容되지 않으며, 職業人에 한하여 그 職位에 따라 所定 號數의 生活空間만을 차지할 수 있다.

둘째, 각종 私生活을 干涉하고 統制하는 「五戶担当制」와 「分組担当制」를 실시하고 있다.

「五戶担当制」는 1958年 末부터 北韓의 全世帯를 5戶씩 나누어서 熱誠黨員 1名을 配置하여 夫婦間의 愛情問題를 包含한 家庭生活 일체를 党的 指導라는 名目으로 監視하는 制度이며, 「分組担当制」는 工場, 企業所 등 職場안에서의 同僚間의 日常言動이나 上下間의 態度 등을 監視하여 密告하도록 만들어 놓은 裝置로서, 누

가 分組担当員인지를 알 수 없도록 秘密裡에 組織되어 있다.

이로써 北韓住民들은 家庭과 마을에서는 「五戶担当制」에 의하여, 그리고 職場에서는 「分組担当制」에 의한 監視속에서 盲從的 生活만이 可能하게끔 組織化된 것이다.

세째, 北韓은 사람들과의 人間的 接觸을 極度로 制限하는 反面, 모든 住民들에게 金日成 偶像化學習, 各種 行事に의 義務的 參加, 思想講習會, 그리고 集團的 群衆行動 등의 形態로서 私生活의 領域을 광범하게 侵犯하고 있다. 예컨대, 75年부터는 大學 教員들에게도 이른바 「金日成勞作 1萬페이지읽기 운동」이 強要되어, 우선 偶像化를 위한 政治學習에 열중하지 않으면 定期的인 檢閱時에 摘發, 徵罰을 받게 된다. 특히 1977年부터는 「金日成 革命思想 研究室」이라는 것을 全國 各地의 黨, 機關, 工場, 企業所, 協同農場, 科學教育 保健機關, 軍部隊, 社會安全機關 等に 總 27,000餘個를 설치 運營하고, 各 單位 構成員들로 하여금 매일 2時間 以上の 學習과 其他 自習會, 講習會 등에 義務的으로 參加하여야 하며, 週間에도 研究課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學習科目은 주로 「金日成 勞作」이며, 「全國學習競演大會」도 필요에 따라 非定期的으로 開催한다. 특히 幹部들은 土曜學習, 水曜學習이 添加된다. 이 외에 作業前, 休息時間에도 讀報會가 실시되고 있으며, 朝會 등을 통한 思想教育도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 住民의 하루 生活은 480分 勞動과 8時間 學習의 연속이고, 8時間의 休息은 이름만이 남아 있다고 해도 過

말이 아니다.

### (3) 査察機構

國家마다 國家利益을 守護하고 社會의 安寧秩序와 公共福利를 위하여 査察機構에 의한 内外의 反國家事犯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論理이며, 韓國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共產社會에서는 「多數에 대한 少數의 獨裁」가 人間 理性을 超越하는 絶對的 個人偶像化를 基盤으로 하여 維持되고 있기 때문에 査察機構에 의한 住民 監視가 그들 獨裁政權의 一次的인 任務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統治者를 위한 것이며, 多數의 公共福利가 아닌 少數 特權層의 利益을 위한 不可避한 措置라는데에 問題가 있다.

北韓의 統制方式은 이와 같이 그 根本부터가 共產 特權層의 存續을 強化하려는 야만적인 性格을 띤 것이다.

그것은 첫째, 査察機構의 多元化, 즉 4重, 5重의 監視組織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國家政治保衛部」, 「社會安全部」 등의 이름으로 住民들을 査察하고 監視한다.

金日成은 1973年 5月 社會安全部內의 政治保衛局을 獨立·昇格시켜 國家政治保衛部를 新設하여 소위 反黨·反體制陰謀者 索出, 間諜逮捕, 住民들의 思想動態 監視 등의 任務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査察機構를 새로이 設置하게 된 것은 7.4 南北共同聲明의 發表를 契機로 南北會談이 열리고 南北間의 人士往來에 따라 保安

活動을 強化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이 時期쯤 金正日을 둘러싼 後繼體制構築을 위한 움직임이 表出되는데서 나타나는 黨内外의 諸問題를 未然에 封鎖하기 위한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現在 國家政治保衛部는 道·市·郡의 地域單位를 비롯하여 軍隊 内部에도 中隊單位까지 要員들이 派遣되어 金日成護衛行事, 政治思想犯 審問, 各級政權機關內的 查察, 社會團體·工場·企業所의 監視, 北送僑胞 監視, 郵便檢閱, 有無線通信盜聽, 秘密文書管理 등의 業務를 管掌하고 있다.

둘째, 心理的 暴力을 日常化함으로써 住民들을 無條件 服從하게 誘導한다. 즉 그들은 物証主義에 의해서가 아니라, 集團拷問形式인 소위 「思想檢討」라는 名目으로 被疑者에게 虛偽自白을 造作·強要하게 하는 方法을 최대한 活用한다.

셋째, 北韓 全住民에 대한 階層別 「成分調查事業」을 頻繁히 實施한다. 1971年 이후에는 3大階層을 51個 階層으로 細分하여, 이에 따른 監視와 統制의 差等化를 制度化하였다. 특히 查察對象 中에는 「特殊區域」(소위 安全地帶라고 불리우는 山間僻村)에 強制 移住되어 평생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大部分이다.

以上에서 볼 때, 모든 犯罪를 刑事訴訟法上 証拠中心主義에 따라 処罰하고 있는 韓國에 비해서 北韓은 黨의 決定에 異見을 提示하는 것조차 「反黨行爲」이며 「反革命 勢力」이라 하여 처단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唯一專制性을 立証해 주는 非人間的 처사라고 할 것이다.

## 라. 階層構造와 社会移動

### (1) 階層構造的 硬直性

階層 및 階級の 問題는 共產主義가 無階級社会를 標榜하고 既存의 社会構造를 階級的 對立이라는 觀點에서 批判하고 있는 以上, 南北韓 社会構造 比較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問題 領域이 된다.

그런데 北韓社会의 構造·變動 가운데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平等」 이데올로기와 가장 相反되는 現實的 矛盾은 바로 이 階層化 現象의 硬直性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北韓의 階層現象은 社会的 報酬의 自由로운 配分過程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社会主義的 階級政策을 통하여 意圖적으로 造作된 政治手段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各種 抵抗的 要素를 抑壓하고 제거하는 權力統制의 機能으로서 作用한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北傀가 主張하는 社会主義的 改造는 階層構造의 變革作業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바로 住民統制의 系列化를 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新憲法 第6條에서는 「北韓은 階級的 對立과 人間에 의한 人間의 온갖 搾取와 壓迫이 永遠히 없어졌다.」라고 規定하고, 마치 北韓 社会에서는 階層現象이 없고, 또 階級間의 對立도 전혀 없는 「理想社会」가 實現되고 있는 것처럼 煽動한다. 그러나 北韓社会의 現實은 資本主義社会에서 말하는 資本家 階層은 없다고 할지라도, 支配와 被支配의 關係를 固着化시키려는 새로운 階層 序列의 構造가 政治적으로 造作되고 있는 것이다.



現實的 側面에서 따진다면 오히려 平等社會을 標榜하는 北韓共產社會에서 더 큰 階層差別과 地域間的 隔差, 그리고 職業間的 層化가 現實的인 事實로서 硬直化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韓國에 있어서도 이미 「아시아」의 傳統的인 階層構造는 消滅되었다. 8.15 解放 以後 土地改革에 의한 土地 再分配 政策으로 과거의 地主階級이 없어졌으며, 國民經濟의 새로운 社會秩序를 形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自由民主社會에 있어서 階層現象은 그것이 社會的 「에너지」를 吸收하고 活用하는 通路로서, 또 能率上昇의 趨動裝置로서 機能한다는데서 그 存在의 意義를 두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 (2) 南北韓의 差異點

여기서 南北韓의 階層構造上的 差異點을 具體적으로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의 社會構造는 開放的 階層構造를 原則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所得水準에 따라 区分될 수도 있고 社會的 地位, 職業的인 關係 등에 따라 区分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階層은 當事者들의 創意的 努力 如何에 따라 自由로이 移動된다. 그러나 北韓의 社會構造는 政治적으로 区分된 身分制의 階層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階層上昇의 通路는 個人的 努力보다는 歸屬的인 特性, 즉 「出身成分」과 「政治的 表徵」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다음으로는 個人的 實務的 表徵, 그리고 鬪爭經歷 등이 考慮된다. 北韓은 이러한 評價基準에 의거해서 모든 住民을, 「核心

階層」, 「基本階層」, 「複雜한 群衆」으로 3大区分함으로써 直線的 階層序列이 制度化되어 있고, 組織에서의 地位는 바로 社会的 地位와 同一視된다.

北韓 「社会安全部」 直屬調査機關인 소위 「620구루빠」가 北韓 全住民에 대한 成分審査를 1971年 初에 綜合한 結果에 의하면 北韓 住民들의 成分別 構成, 즉 階層構造는 <表 2>와 같이 集計되고 있다.

<表 2> 階 層 構 造

成分階層	對 象	人口構成	待 遇
核心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革命戰士遺家族</li> <li>○ 被殺, 戰死者家族</li> <li>○ 党, 行政幹部家族</li> <li>○ 軍幹部家族</li> <li>※ 共產体制統治階層</li> </ul>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党, 政權, 軍幹部 登用</li> <li>○ 他階層과 分離 特惠措置(進學, 昇進, 配給, 居住, 醫療 등)</li> </ul>
基本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一般勞動者 農民 家族</li> <li>○ 一般事務員家族</li> <li>※ 社會主義体制의 基本群衆</li> </ul>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各種 下級幹部 및 技術者進出</li> <li>○ 極少數 核心階層으로 昇格</li> </ul>

成分階層	對 象	人口構成	待 遇
複雜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主·資本家家族</li> <li>○ 日帝公職者, 宗教人家族</li> <li>○ 越南, 附逆者, 捕虜家族</li> </ul>	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有害, 重勞動에 從事</li> <li>○ 入學, 進學, 入黨</li> <li>○ 封鎖彈壓</li> <li>○ 制裁, 監視, 教養包摂對象으로 区分措置</li> <li>○ 極少數: 基本階層으로 再分類(子女)</li> </ul>

둘째, 韓國에서는 庶民層의 生活向上과 財産形成을 위해서 重點的 施策을 펴고 있는 반면, 北韓에서는 일단 思想的으로 믿을 수 없다고 判定된 소위 「複雜한 階層」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細分하여 監視와 彈壓을 強化하고 있다. 즉 北韓에서 複雜한 階層에 속하는 者는 바로 「敵對的 階層」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4가지 階層으로 細分化하여 各 階層別로 限定된 社會 範圍 안에서 局限된 社會的 地位와 役割을 賦與받게 된다.

① 包摂對象: 이들은 成分은 複雜하지만 政治思想教育을 強化하여 다시 改造시킬 수 있다고 判定된 者들이며,

② 教養改造對象: 이는 思想教養을 強化하면 轉向할 可能性이 있

는 者라고 보는 流動的 階層이며,

③ 孤立對象：이는 일단 有事時에 韓國에 同調할 可能性이 많고 그들이 볼 때 相當히 危險한 者라고 判斷된 階層으로, 일반대중에 公開하여 集團監視케 하고 있다.

④ 獨裁對象：이는 現 北韓體制를 顛覆하려는 자로서 判斷된 階層이다. 몰락한 地主, 資本家, 日帝官僚, 6.25 當時 治安隊 加担者, 宗敎人, 親美派 및 그 家族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群衆과 分離시켜 山間高地(安全地帶)와 炭鉍地帶 등 特殊地域에 集團居住시키고 있다. 이 層에 속하는 사람들은 不純階層으로 낙인이 찍혀 가장 가혹한 迫害와 彈壓을 받고 있으며, 體制의 變化를 가장 渴望하는 疎外階層을 形成하고 있다.

이러한 階層間的 嚴格한 差等的 機會賦与와 管理는 결국 差別意識과 社會的 不滿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勢力이 集團化되면 「反金日成 勢力」으로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統制를 더욱 더 強化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째, 職業統計에 의한 階層分類<表 3>을 보면, 韓國에서는 自由業과 手工業에 이르기까지 多岐多樣하나, 北韓에 있어서 公式的인 職業統計의 分類基準은 몹시 單純하다. 그것은 北韓이 社會의 階級的 分化를 부정하고 職種에 따른 包括的 機能分類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勞働者, 事務員, 協同農場員, 軍人 等 네 階層이 그것인데, 이러한 各 職種間에는 勞賃의 隔差가 크고, 同一한 職種內에서도 個個人의 政治的 信任度에서 비롯된 役割配分에 따라 報

酬上の 偏差 또한 크게 벌어지고 있다.

<表 3 > 職能別 人口構成

韓 国			北 韓		
区 分	1963	1977	区 分	1946	1965
專門·技術·行政管理職	3.2	4.2	事 務 員	6.2	15.6
서 비 스 從 事 者	5.4	6.7	企 業 人	0.2	-
事 務 職	3.6	7.7	商 人	3.3	-
販 売 職	10.0	12.3	協 農 員	-	43.2
農林業 및 類似 從 事 者	60.3	39.9	個 人 農	74.1	-
漁 業 · 수 렵 業	2.5	1.9	勞 動 者	12.5	41.2
其他 ( 生産 從 事 者 · 運 輸 裝 備 · 單 純 勞 動 者 등 )	15.0	27.3	手 工 業 者	1.5	-
			其 他	2.2	-

資料：經濟統計年報 ( 韓國銀行 )，韓國統計年鑑 ( 經濟企劃院 ) 參照  
作成；朝鮮中央年鑑 ( 1965 )。

\*北韓은 1965年 이후 비슷한 양상임.

네째는, 職業選擇과 그 配置에 있어서의 問題이다. 北韓에 있어서 職業은 國家에 대한 奉仕로 풀이되고 있다. 즉 職業은 個性의 發揮나 自己實現의 機會라기보다는 犧牲을 감수하는 義務로서 規定된다. 그러므로 職種의 選擇機會나 轉業의 自由가 個人에게 있

는 것이 아니라 國家計劃機構에 一任되고 있다.

그리고 職業은 政治的 信任獲得과 地位上昇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許多하다. 오직 上部의 指示에 따른 行動이 있을 뿐이다.

끝으로 南北韓 關係에 있어서 階層構造를 굳이 比較한다면, 上層이 政治的 高位幹部와 黨員이며, 中層이 基本階層이고, 下層이 「複雜한 群衆」이 될 것이다. 北韓에서는 中間階層을 모두 勞動階級化하는 階級政策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韓國에서는 中間階級이 資本階級과 勞動階級을 相互牽制하고 조정하는 主導勢力이 되고 있다. 南北韓의 對立은 社會構造的으로 보면, 中間階級과 勞動階級の 對立이며, 中間階級の 福祉社會的 指向과 勞動階級の 共產社會的 指向과의 對決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마. 人口構成

解放 當時 南北韓 總人口는 約 2,900萬(海外 居住者 約 350萬 包含)으로 推算되는데, 1946年 現在 韓國 1,937萬, 北韓 926萬으로 分離되었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 韓國人口는 3,760.5萬名으로 大幅 增加一路에 있는가 하면, 北韓은 越南民과 6.25 當時의 大規模 人口移動 때문에 1953年 경에는 人口의 絶對數가 839萬으로 감소한 적도 있었으나 現在는 1,740萬名으로 推算된다.

이와 같이 人口規模面에서 韓國은 北韓보다 2倍 以上の 水準을 유지하고 있으나, 人口密度面에서는 韓國이 過剩人口現象마저 보이고 있다.

그리고 地域別 人口分布面에서 보면 韓國이 北韓에 비해 都市集中化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經濟開發過程에서 産業의 急速한 發展으로 야기되는 普遍的 現象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職業選擇의 自由가 없고 住居移轉의 自由도 없기 때문에 北韓은 政策目標에 따라 일방적으로 職業·居住地를 指定·配置함으로써 人口의 都市에로의 移動을 抑制할 수 있으며, 또한 軍需産業의 地方分散에 따른 人口移動에도 그 原因을 찾아볼 수 있다.

<表 4 > 人 口 構 成

区 分	韓 国	北 韓	備 考
總人口(萬名)	3,760.5	1,740	1979年末基準
性 比(男)	101.7	100.0	1979年現在
增 加 率	1.6 %	2.5 %	
分 都 市	48.8 %	33.4%(47.3%)	1976年基準
布 農 村	54.2 %	66.6%(52.7%)	
人 口 密 度	380.3名/km <sup>2</sup>	142.2名/km <sup>2</sup>	1979年
產 農 水 產	35.8 %	40.9 %	北韓 1972年
業 鉉 工 業	23.7 %	36.8 %	韓國 1979年末
別 其 他	40.5 %	22.3 %	

資料：南北韓力量比較( 国土統一院, 1975 ) ; 主要經濟指標( 經濟企劃院, 1980 ) ; 北韓要覽( 1977 ), p.113.

産業別 人口構成에 있어서 南北韓은 다같이 農水産部門에서 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나 鎡工業部門에서는 韓國이 北韓보다 낮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이 生産施設의 現代化와 經營合理化 등 점차 資本集約的인 産業構造로 轉換함으로써 勞動生産性의 增大를 가져왔기 때문이며, 北韓은 이와 反對로 技術의 落後와 生産施設의 老朽化로 勞動集約的인 生産方式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韓國은 住民厚生 및 社會福祉施設 「서비스」 등 其他部門에서 보다 많은 人口가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南北韓文化構造의 比較

#### 가. 文化的 目標

南北韓의 異質化는 文化構造와 精神生活에 있어서도 同時에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人類歷史는 自由와 平等, 그리고 福祉의 伸張을 위한 鬪爭인 것이며, 이같은 鬪爭을 통해 人類文化가 蓄積되고 人類歷史가 發展하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가 바로 韓國의 普遍화된 歷史觀인 동시에 文化的 目標인 것이다.

따라서 韓國 國民은 이와같은 文化的 目標위에 人本主義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며 또한 무엇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判斷하는 基本的인 價值體系를 確立하고 있다.

反面에 北韓 共產社會는 外部로 부터 注入된 唯物史觀을 教條적으로 信奉하면서 「人類歷史는 階級鬪爭의 歷史이며, 階級鬪爭은 社會發展의 原動力」이라고 규정한 「共產黨宣言」(Marx and Engels, The Communist Manifesto, 1848, 2)의 前提 밑에 物質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價值體系를 強要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 社會의 價值體系 및 文化的 目標의 差異點은 여러가지 面에서 對照적인 양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한다.

첫째, 人間의 尊嚴性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南·北韓은 判異하다.

韓國에서는 모든 個人活動이 人間을 中心으로 人間이 가장 尊貴하다는 目的論的 人間觀에서 비롯된다면 北韓에서의 個人은 全体主義的 社会構造의 한 構成分子로서, 組織社会의 한 細胞로서 부과된 任務와 責任을 다해야 하는 機械論的 人間觀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階級鬭爭과 革命의 成果를 위하여 개인은 언제라도 희생되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삶이라고 說教되고 있다.

둘째, 人間精神의 能動성과 創造性에 관한 評價에 있어서의 差異点이다. 韓國에서는 人間의 精神力이 物質的 諸条件까지도 能動的으로 變化시킬 수 있고 創造的 힘과 開拓의 能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人間的 精神力을 새로운 價值創造의 主体라고 본다면, 北韓에서는 人間의 精神을 物質의 反映 내지는 描写로 보기 때문에 그 能動성과 創造性은 소위 「党的 決定」 혹은 「首領의 敎示」에 충실하려는 努力에 의해서만 發揮할 수 있다고 解釋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國家와 民族에 대한 認識이 다르다. 韓國에서는 「나」와 「國家」 또는 「民族」은 不可分的 關係이며 共同運命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면, 北韓에서는 國家와 民族은 消滅, 즉 有限的인 것이나, 共產主義와 共產黨은 無限的인 것으로 믿도록 강요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價值體系의 根本的 相異点과 關聯하여 北韓社会特有的 共產主義 「이데올로기」가 지닌 特殊性을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원래 「主義」, 「主張」이란 地域的 또는 民族的 그리고 時代的 特性에 따라 이를 解釋하고 適用하는데서 약간의 差異가 나기 마련이지만, 오늘날의 北韓 共產主義는 소련, 中共 및 東歐諸國의 共產主義 양상과는 根本的인 데서부터 特殊한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重要하다.

첫째, 北韓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解釋함에 있어서 극히 敎條的이다. 즉, ① 平和共存路線을 修正主義라고 非難하면서 「戰爭不可避論」과 「暴力革命論」을 고집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아직도 盲信하면서 民族과 國家의 利益보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利益을 앞세우고 있는데 「主体思想」이란 바로 이러한 事實들을 隱蔽하려는데서 나온 조작이다.

②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을 絶對的인 진리라고 믿으면서 「資本主義 崩壞論」을 繼續 主張하고, 소련 및 東歐의 共產圈에서 광범위하게 導入하고 있는 生産單位에 대한 「利子 및 利潤方式」까지도 外面하고 있다.

③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스스로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他者로부터 注入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主張을 그대로 본받아 「金日成思想一色化運動」을 合理化하고 있다.

④ 「마르크스·레닌」主義, 統一戰線戰略 및 戰術을 그대로 信奉하면서 韓半島 全域의 共產化實現에 狂奔하고 있다는 등이다.

둘째, 北韓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適用에 있어서 獨斷的이다. 즉,

① 「階級獨裁論」을 「1人獨裁의 合理化」의 口實로 삼고 있고 金日成一家의 「族閥政治」를 「民主政治」라고 造作하여 煽動하고 있으며,

② 基本權 制限과 住民統制를 「階級政策」으로 宣傳하고 있는가 하면, 소위 「主體思想」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金日成 個人偶像化는 스탈린 時代의 前近代的 遺物로 共産圈內에서도 크게 非難받고 있다.

세째, 北韓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實踐過程에서 極左冒險主義에 依拠하고 있다. 즉,

① 國際的 平和潮流를 外面하고 武力과 暴力에 의한 赤化統一路線을 固執하고,

② 소위 「4大軍事路線」이란 슬로건 밑에 戰爭準備에 總力을 集中하여 왔는가 하면, 休戰以來 總 56,208 件의 休戰協定違反事例를 자행했고(1980. 5月末現在) '64以後에는 總 1,400 餘회에 걸쳐 9,200 餘名의 武裝共匪를 南派시켰고 非武裝地帶에다 20 餘個의 南侵땅굴을 파내려 왔으며

③ 「게릴라」要員을 訓練시켜 世界 各國에 浸透시킴으로써 國際 平和에 挑戰하고 있다는 점 등이 注目된다.

#### 나. 道德·倫理·禮儀凡節

어떤 國家社會를 莫論하고 國民들의 行爲樣式을 규제하는 道德 律의 뒷받침없이는 그 體制가 제대로 維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의 支配的인 道德이란 그 사회가 美風良俗이라고 생각하는 項目들 가운데 集約的으로 담겨 있다.

우리 民族은 예로부터 「東邦禮儀之國」이라고 불리울만큼 道德과 禮儀面에서 모든 國家로부터 稱頌을 받아왔다. 그러나 北韓社會는 解放後 外來的인 共產主義의 強占으로 傳統的 美風良俗에 대한 그들 나름의 特異한 解釋과 意義를 賦與하고 새로운 形態의 소위 「共產主義的인 道德品性」을 形成시켜 놓았다.

이로써 오늘날 南北韓 사이에는 道德·倫理에 대한 概念의 解釋과 이를 適用하는 側面에서도 엄청난 差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北韓의 「哲學辭典」에 의하면 道德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集團 및 社會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지켜야 할 行動原則과 規範의 總體」라고 定義되고 있다.

그러나 그 解釋과 意義에 대하여 「道德은 社會經濟的 關係를 反映하는 社會的 意識의 한 形態로서 社會發展에 따라 歷史的으로 變化하여 階級社會에서는 반드시 階級的 性格을 띤다」(上揭書)라고 밝힘으로써 道德의 可變性和 階級性을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人類歷史를 階級鬭爭史로 보는 唯物史觀에 符合되는 行動, 예를 들어 父母를 殺害한 子息의 行爲가 「革命的 利益」을 위한 階級鬭爭의 結果라면 그것은 道德的이고 倫理에 違背되지 않는다고 본다.

소위 「共產主義 道德教養」에서는 이와같이 道德을 階級鬭爭의 側面에서 把握하기 때문에 「絶對理念」, 「人間本性」 등에서 추출된

순수한 道德觀과 道德一般을 主張하는 道德論에 대해서는 이를 反對하는가 하면 反動的이며, 反社会的 낡은 道德이라고 오히려 非難하고 있는 形便이다.

北韓의 「政治辭典」에 의하면, 오늘날 共產主義 道德에서 重要視하고 있는 것은 「個人的 利益보다 集團의 利益을 더 貴重히 여기는 集團主義精神, 自力更生의 革命精神, 勞動에 대한 共產主義의 態度, 社會主義의 愛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 共產主義 人間性과 文化性」등이라고 規定하였다. 이와같이 北傀는 道德을 전적으로 共產主義 教養에 結付시키기 때문에 韓國의 傳統的인 道德概念과는 本質적으로 相異한 變質이 不可避한 것이다.

그러면 北韓에서 새로이 形成된 소위 “共產主義 道德”의 性格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基準하고 있는가? 北韓社會가 美風良俗이라고 規定하여 이를 遵守할 것을 規制하는 行動樣式은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그들이 強要하고 있는 共產主義 道德教養은 集團主義精神의 涵養을 強調한다.

「社會主義憲法」 第68條에 의하면 「公民은 集團主義精神을 높히 發揚하여야 한다.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고 個人的 利益보다는 組織과 集團의 利益을 앞세우며 自己犧牲性, 組織性, 規律性을 要求한다.

北韓은 소위 集團主義思想에 대하여 金日成抗日鬪爭 行蹟에서 비

뜻되었음을 主張하고, 抗日遊擊隊員들이 抗日鬪爭時 보여준 獻身性, 團結性, 同志愛 등을 集團主義 模範이라고 宣傳하고 있다.

그리고 集團主義思想을 發揚하기 위해서는 ① 金日成의 革命思想, 黨政策, 革命傳統教養을 強化하여 黨의 唯一思想으로 武裝하여야 하며, ② 階級教養을 基本으로 하는 共產主義教養과 社會主義的 愛國主義教養을 強化하며 勤勞者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思想殘滓를 뿌리뽑아 이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여야 한다고 強調한다.

이와 같이 集團主義 思想은 資本主義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個人主義와는 對立되는 것이며 이것만이 肯定的인 道德倫理라고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集團主義 精神은 結果적으로 自我意識을 버리고 個人의 思想과 行動을 集團에 歸屬시키는 것을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즉, 北傀는 個個人을 國家 및 社會를 構成하는 하나의 작은 附屬品으로 看做하고 個人을 機械化 내지는 隸屬化시킴으로써 黨의 命令에 絶對 服從하는 自動的 人間型으로 鑄造하게 된다. 만약 住民들이 集團에 隸屬되지 않고 獨自的인 思考와 行動을 取한다면, 소위 「革命精神」이 해이될 뿐만 아니라, 自由主義 思想의 浸濕을 許容하는 틈을 주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警戒하고 보다 徹底한 共產思想으로 武裝토록 繼統적으로 強調하게 된다.

둘째, 그것은 「社會主義·愛國主義」教養이다. 즉 勤勞大衆에게 「革命과 社會主義, 共產主義에 대한 自負心」을 鼓吹시키는데 注力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敵에 대한 憎惡心의 肯定的 使用」을 통하

여 歷史에 나타난 否定的 側面들을 強調함으로써 現在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革命的 熱意를 불러 일으키려는데 目的이 있다. 敵에 대한 불타는 敵愾心은 社會主義的 愛國心과 政治體制에 대한 信賴感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期待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種類의 敵에 대한 憎惡心은 效果的인 體制強化方法이라는 생각이 北韓의 教育·教化事業을 支配하고 있다 하겠다. 北韓全域에 散在해 있는 博物館 및 記念館들도 바로 이런 目的에서 思想 教養의 重要한 몫을 차지한다. 이는 觀覽住民들로 하여금 “원수를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주고 새로운 “共產主義的 人間像”을 形成하게끔 誘導한다.

이와같이 北傀는 소위 「人民의 敵」에 대한 憎惡心을 社會統合의 主要「매카니즘」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社會主義 經濟建設을 위한 “革命的인 熱意”를 끌어내는 重要한 源泉으로 看做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勞動愛護精神」이라는 새로운 道德概念을 내세워 共產社會에서는 勞動의 結果가 自己自身과 全体人民大衆에게 되돌아 온다고 宣傳함으로써 勤勞者들이 勞動에 意慾的으로 參加토록 強要하는데 利用하고 있다.

1970年 金日成은 「社會主義經濟管理問題에 대하여」에서 「우리는 勞動을 賤視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搾取階級의 思想을 미워하며 일하지 않는 것을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勞動을 神聖하고 가장 榮譽로운 것으로 여기며 勞動하기를 즐기는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勞動에 대한 새로운 態度形成을 要求하고 있다.

그들의 「社會主義憲法」 第 69 條를 보면 「勞動은 公民의 神聖한 義務이며 榮譽이다. 公民은 勞動에 自覺적으로 誠實히 參加하며, 勞動規律과 勞動時間을 嚴格히 지켜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1978 年 4 月, 最高人民會議 第 6 期 2 次會議는 또다시 社會主義勞動法이란 것을 採択하고 ① 社會勞動의 基本原則 ② 勞動은 公民의 神聖한 義務 ③ 社會主義 勞動組織 ④ 勞動에 대한 社會主義 分配 ⑤ 勞動과 技術革命, 勤勞者들의 技術技能向上 등을 規定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은 勞動愛護精神이라는 道德概念을 내세워 勞動에 대한 國家的 管理를 한층 더 嚴格히 統制하는 口實로 삼고 있다.

넷째, 北韓의 勞動者들은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生産增大에 매진할 것을 要求당하고 있다. 어떠한 種類의 行爲도 그것이 生産增大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지탄의 對象이 되고 反社會的인 行爲로 規定된다. 예컨대 共產化以前에는 親族員들이 祖上祭祀 및 歲時風俗 등을 契機로 共同生活을 통하여 相互紐帶와 一切感을 鞏固히 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北韓社會에서는 이런 活動等を 非生産的인 時間의 浪費일 뿐만아니라 宗派主義를 培養하는 저해적인 要素로 看做되어 批判의 對象이 되고 있다.

北韓社會에서 進行되고 있는 生産增大을 위한 社會運動은 흡사 戰場을 방불케 한다. 「高地」(生産目標量), 「高地占領」(目標量達

成), 「突擊隊」(特殊한 短期的인 課業을 遂行하기 위한 勞動組織), 「戰鬪計劃」(生産計劃), 「殲滅戰」(生産課業을 하나씩 하나씩 執行해 나가는 것) 등은 生産活動에서 반복적으로 使用되고 있는 用語들이다. 여기에서 生産増大의 贊美와 生産目標達成이 北韓住民의 日常生活에서 차지해야할 比重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다섯째, 共同財産의 愛護를 強調한다. 北韓에는 物質에 대한 所有慾을 充足시킬 수 있는 社会与件이 말살되었기 때문에 住民들은 共同財産을 浪費하고 조잡하게 다루기가 일쑤이다.

그리고 여러 工場들에서의 原料消費基準이 工場마다 달라 어떤 工場에는 原料, 資材가 없어서 操業을 中斷할 事態에 이르고 있는데 어떤 企業所에서는 같은 資材와 原料가 남아서 倉庫 밖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事態에 대하여 그들은 共同財産愛護라는 口號를 내걸고 나라의 財産을 愛護하는 것은 愛國心의 發現이라고 宣傳하면서 共同財産을 節約하고 소중히 다룰 것을 強調하고 있다.

이는 生産手段의 共有를 標榜하는 共產主義体制의 特殊性으로 인해 住民들 間에는 國家財産을 浪費하고 소중히 다루지 않는 傾向이 심각하게 抬頭되고 있어 警覺心을 注入시키기 위해 強調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共產主義的 道德教養의 強要로 말미암아 北韓住民들의 倫理道德基準은 韓國과 전혀 異質的 樣相을 띠고 있다.

#### 다. 文化類型的 差異

文化는 構造的 分化形式에 따라 理念文化, 行動文化, 用具文化로 区分될 수가 있다. 理念文化는 社会成長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價值志向이고 行動文化는 사람이 遵守하고 있는 規範이나 慣習이며, 用具文化는 生活用品, 施設등의 生活手段에 關聯된 것이다. 이와같이 文化의 類型을 3分類하고 類型論的 立場에서 南北韓을 比較해 보면 여기에는 相當한 異質性이 內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北韓의 理念文化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金日成的 해석을 根幹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強調하고 있는 唯一思想, 主体思想, 集團主義, 社会主義的 愛國主義, 「프롤레타리아」의 革命등은 韓國의 近代化理想, 國民福祉觀, 自由民主主義, 機能主義, 漸進的 改良主義와 매우 對照的이다. 北韓에서는 集團目標의 爭取를 重要視한다면 韓國에서는 個人의 繁榮과 幸福이 重要視 된다.

北韓의 革命路線에 對抗하기 위한 手段으로 韓國에서는 維新體制를 確立 유지한 적도 있었지만, 이와같은 理念文化에서의 差異는 相互 妥協이 不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行動文化에 있어서는 相對的인 面에서 兩者間에 類似點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田園的 情感, 共同體的 紐帶, 傳統的 人間關係, 相扶相助의 慣習, 序列主義, 對人的 情誼性, 歸屬性 등에서는 南北韓이 모두 在來的인 韓國의 特性을 共有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그것이 오직 金日成을 頂點으로 한 集團主義的 組織生活을 위해서 利用되고 있는데 대해서 韓國에서는 個人의 要求에 따라서 活用되고 있다는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

셋째, 用具文化에 있어서는 南北韓 공히 現代的 機械文明의 成果

를 追求하고 있다. 技術이나 機械는 超「이데올로기」的인 것이어서 普遍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의 用具文化의 差異는 資本主義 對 社會主義라는 生産樣式의 差異를 除外하고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民族的 同質을 具現하는 衣食住의 絶對的 形式이 바뀌지 않고 있으며 內容에 있어서도 差異는 적다. 김치와 온돌과 韓服은 韓國 固有의 것이며, 그것은 民族이 生存하는 限 좀처럼 變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物量的 重要性이라든가 技術水準에 있어서의 差異는 앞으로 더욱 벌어져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南北韓 社會의 体制的 兩極性은 表層文化에서 異質化를 進行시키고 있으나 深層文化에서는 變容이 比較的 적다는 側面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말투, 人間關係, 民俗 등에서 表層的 變化는 일어나고 있으나 深層的인 變化에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물론 現時點에서의 現象이고 앞으로 이러한 共通性이 어느 時期까지 持續될 것이며, 혹은 어떻게 異質化될 것인가 하는 것은 断定하기 매우 困難한 것이다.

## 4. 南北韓 家族生活의 比較

### 가. 家族觀

韓國社會에 있어서 家族은 血緣關係 내지는 社會的 承認關係로 맺어진 삶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私生活을 保護하는 神聖不可侵의 城廓으로 認定된다. 그러므로 個人의 私生活을 보람차고 幸福하게 營爲할 수 있는 條件은 法律로써 保護되며 政府當局의 關心의 焦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家族生活은 우리 民族固有의 美風良俗에 따라 家族員들의 愛情과 尊敬, 信賴와 協同으로 이루어지며 不法的인 外部의 干涉이 일체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韓國의 家族觀에 비해서 北韓의 家族(“家族”이란 말을 씀)은 특이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北韓共產主義社會에서는 家庭의 獨立性이 事實上 認定되지 않으며 民族의 傳統的인 家族制度는 社會主義的으로 變質되었고 따라서 家族은 血肉의 情이 풍기는 人間的인 보금자리로서가 아니라 각기 所屬 社會團體를 달리하는 勞役者들의 臨時合宿所와 같은 印象마저 풍겨주고 있다.

우선 家族의 概念부터가 韓國에서 理解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北韓의 「朝鮮家族法」 第一條는 「家族은 社會主義 革命理論의 實習場이며 生産의 最低單位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社會의 家族概念 즉 「家族은 血緣을 中心으로 하는 愛情의 結合體이며 社會文化의 歷史的 傳承機關으로서 모든 社會活動의 根本的 基底이고 發展의 主體的 原動力이다」라는 것과는 本質的 差異를 나타낸다.

北韓社會에서는 “社會主義的 家族” 概念에서도 알 수 있듯이 家

族員間的 愛情을 資本主義的 遺物로 敵對視하고 血緣集團에 대한 歸屬意識을 封建的 思考方式으로 排斥하고, 傳統文化繼承을 保守的 思考觀念이라고 非難하고 있다. 北韓의 家族은 하나의 社會的 組織으로서, 그들의 「이데올로기」 實現을 위한 目的集團으로 밖에 認定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主張하는 家族의 機能은 北韓憲法에서 明示된 바와 같이 「社會主義 革命의 實習場」이며 「生産의 基本單位」라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과 關聯되지 않는 一切의 傳統的 習性은 打破되고 이러한 政治的 機能을 實現시키기 위한 家族制度, 家族生活만이 認定되는 것이다.

#### 나. 家庭生活

韓國의 家庭形態는 오랫동안 儒敎思想의 影響에 힘입어 家父長的 大家族制度를 지켜왔으며 家長의 絶對的 權威에 의하여 家事가 處理되고, 孝의 原理에 의하여 家族秩序가 確立되는 權威主義的 家族이었다. 그러나 1960年代 以後 韓國社會가 急速度로 産業化되고 都市化와 近代化가 이룩됨에 따라 家族의 크기도 조금씩 縮少되고 있는가 하면 특히 家族의 機能面에서는 뚜렷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過去의 韓國家族은 政治·經濟·宗教·教育·娛樂的 諸般機能을 擔當했으나 現代家族은 産業化와 더불어 社會的 分化가 促進되고 그에 따라 家族機能 역시 점점 縮少되어 다른機關에 그 일을 委任하게 되었다. 예컨대 住居와 職場이 分離되면서 家族으로부터 物的 生産의 機能을 經濟에 移讓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教育은 學校에, 娛樂은 商業施設에, 保護와 統制는 國家에 依存하는 現象을 보이게 된다. 이리하여 家族生活은 性的欲求充足 및 性的秩序維持, 子女出

産 및 社会化機能, 家族員의 情緒的 安定, 家族員의 生活保護 등의 原初的인 機能과 더불어 愛情의 中心地로서의 活動이 重要視되고 있다.

이와같은 家族生活의 變化는 大家族制度를 浸蝕하여 小家族化, 또는 核家族의 形態와 機能을 助長하는 것이다. 특히 個人主義的 價值觀과 家庭儀禮遵則의 施行으로 大家族制度의 構造改善은 앞으로 더욱 加速化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韓國의 家族은 外形上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意識的 水準에 있어서는 大家族制의 遺習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家庭이 社会心理的 結合체로서 혹은 社会保障制度의 機能까지 어느 정도로 遂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은 現象은 北韓의 家庭生活과는 큰 差異點을 나타내게 하였다.

그것은 첫째, 倫理道德의 基準이 달라진 점이다. 韓國에서는 父母를 섬기는 마음으로 年長者를 尊敬하고, 子女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寬容을 베풀며, 家庭의 和睦과 秩序를 尊重하듯이 社会의 紀綱을 貴重히 여기는 氣風이 家庭으로부터 出發하는데 반하여 北韓에서는 父母와 子息들간의 無條件的인 사랑과 尊敬 및 信賴는 낡은 封建的 慣習이며 비록 父母라 할지라도 소위 「党的原則」과 「首領의 敎示」에 違背되는 行動을 하였을 때는 신랄하게 批判하고 所屬團體의 幹部에게 報告하는 것이 子女로서 지켜야 할 道德的 規範처럼 強要되고 있다.

따라서 年長者에 대한 尊敬하는 尺度가 그가 얼마나 「階級鬭爭」과 「社会主義 建設」을 위해 기여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說明한다.

둘째, 그것은 社会生活의 基盤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즉 家庭生活의 延長으로서의 社会生活이라는 韓國의 觀念과는 달리 北韓에서

는 社会生活의 한 細胞로서의 機能을 통해서만 家庭生活이 認定되고 있다.

세째, 그것은 子女에 대한 認識과 育兒問題에 대하여 이해하는 角度가 다르다는 점이다. 韓國에서는 子息에 대한 育兒는 第1次的으로 父母의 責務이며 母性愛는 어머니와 子息間의 倫理道德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도 侵害받을 수 없는 人間의 基本權인데 비해서 北韓에서는 「세살적 버릇을 여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育兒의 教育을 初期段階부터 黨에서 맡아 黨에 忠實한 「붉은戰士」로 키워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北韓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父母의 사랑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黨과 首領의 따듯한 품속에서 자라났다」고 믿게 만들고 있으며 金日成을 「아버이」라고 부르는 대신 親父母는 오히려 동무처럼 대하는 非人道的 現象이 北韓의 倫理로 普通化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은 子女教育, 父母尊敬, 祖上崇拜등의 慣習을 封建的 殘滓라고 規定하고 傳統的 家族單位의 生活樣式을 종식시켰다. 家庭生活이 住民生活의 求心點으로써 役割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즉 幼兒는 託兒所, 어린아이는 幼稚園, 少年은 少年團, 青年은 社勞靑, 成人은 職業同盟이나 女性同盟이 각각 生活의 中心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家族觀念을 排除하고 家族單位生活을 制限하였다. 이로써 北韓의 家族은 大集團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한 單位組織으로의 手段的 存在만을 認定받고 있다.

#### 다. 女性의 社会活動

解放以後 南北韓 家族의 內的 生活面에서 女性의 社会的 機能



및 位置의 變化는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먼저 韓國女性의 경우를 보면,

첫째, 役割担當面에서 종래의 婦女子는 家事를 돌보는 것을 美德으로 생각하고 男子들은 바깥일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役割配分은 社會變動과 더불어 變化하고 있다. 婦人도 職場을 가지기를 바라며 男便 역시 職場뿐만 아니라 家事에도 忠實해야 한다는 價值觀이 점차 퍼져가고 있다.

둘째, 아버지의 位置가 크게 變하였다. 權力關係의 면에서 婦女子의 地位가 向上됨으로 인하여 남편과의 平等한 權力關係가 이룩되고 있다. 특히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家庭의 傳統的 拘束으로부터 벗어나려는 女性運動의 대두이다. 즉 男女平等의 生活化를 위한 女性側의 要求가 強烈해진 것이다. 女性들은 家庭밖의 問題에도 關心을 돌려 教育, 就業, 報酬, 其他 法律的 條件에 있어서의 平等化를 希求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父와 子의 權力關係도 점차 改善되어 非權威的 平等關係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서 北韓女性의 社會的 役割變化는 더욱 特徵的 樣相을 띤다.

즉, 集團主義 社會體制를 指向하고 있는 北韓은 傳來的인 韓國의 家族主義的 制度를 가리켜 封建的이고 共產主義 理念에 어긋나는 것이라 断定하고 있으며 社會主義的 國家統制經濟의 實現을 위하여는 家族主義의 舊習을 打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前提위에 이의 抹殺을 企圖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解放直後 北韓共產集團의 當面課題로서 提起된 問題가 ① 傳統的인 家族制度를 打破하고 새로운 「社會主義的 家族」을 發展시킴으로서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을 強要하는 일이며 ② 家族의 機能과 構造를 變質시키는 반면에 이에 代

身해서 女性の 社会的 地位를 相對적으로 「上昇」시켜주는 改革이 었다.

이렇게 하여 1946年 7月 女性の 社会進出이라는 名目 밑에 「男女平等權」 法令을 公布, 女性勞動資源의 最大利用을 制度化하였고, 1947年에는 우리民族의 傳統的 家族單位를 規定한 戶籍制度를 廢止하고 「住民登錄制度」를 強行함으로써 血緣關係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또한 1958年 7月 「人民經濟部門에 女性들을 더욱 引入시킬데 대하여」라는 內閣決定의 採択으로 教育 및 保健部門에서는 平均 30才以上の 사람만 勤務토록하는 대신 30才以下の 젊은 女性으로 하여금 漁船團의 船員, 炭鉞鉞夫, 高射砲射手, 담프트럭運轉士 등 重勞動部門에 까지 動員케 하고 있는가 하면 소위 「五戶担当制」라는 이름으로 非人道的인 私生活의 干涉까지 자행함으로써 家長을 中心으로 한 家族의 단합이 不可能하게 되었던 것이다.

1970年 11月 北傀 5次 党大會에서는 이른바 「女性을 家庭으로부터 解放시킨다」는 口實을 내세워 女性을 勞力戰線에 動員시킴으로써 主婦들로 하여금 家事에 몰두할 수 없게 하고, 또 家族相互間 또는 이웃간의 相互監視制度를 實施하여 家族不信, 이웃不信의 風潮를 人爲적으로 造作하고 있다. 最近에 와서는 「붉은 大家庭」을 實現시킨다는 名分으로 1,000世帯 以上の 「밥」을 지을 수 있는 「밥工場」을 都市의 洞單位別로 지어놓고 住民들이 利用하도록 強要하고 있다. 이는 女性들이 食事準備等 家事로 인해 貴重한 勞動時間을 허비하는 것을 制度的으로 防止하려는데 目的을 둔 것이다.

이 밖에도 里·洞, 協同農場 또는 職場單位로 託兒所를 設置·運營하고 女性勞力の 動員을 極大化하고 있다.

## 라.衣食住生活

南北韓의 衣食住生活은 韓半島의 自然的 環境이 同質性을 띠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다른 側面에 比較해서 比較的 異質化現象이 그만큼 좁혀 질 수 있는 分野이다. 그러나 南北韓間의 「이데올로기」差異와 經濟政策의 基本路線은 곧 衣食住生活에 反映되고 나아가 南北韓의 衣食住 生活樣式에 있어서 그 隔差를 점차 擴大시켜가고 있다.

北韓住民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家族單位의 人間的 삶을 營為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各自가 參與하는 勞動의 量·質에 따라 機械的인 集團主義生活을 反復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 一般住民들의 日常生活에는 여유가 없다. 특히 「여유시간을 주지 않고 배불리 먹이지 않는것이 住民統制의 關鍵」이라는 「레닌」의 住民統制原則에 따라 衣食住生活을 統制하는 各種의 裝置를 철저히 強化하고 있기 때문에 自律的 生活能力은 거의 없는 實情이다. 北韓住民들은 다만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게되면 살게 해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期待속에서 매일의 日課表대로 움직이는 他律的 生活方式에 익숙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 食生活

아직까지 韓國에서는 傳統的인 食生活 樣式이 相當히 保存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一般 食生活은 祖國近代化의 슬로간과 함께 量的인 面과 더불어 質的인 面에서 급격히 改善되고 있으며 이는 새마을運動의 推進으로 더욱 效果的인 改革이 自發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面에서 볼때 北韓은 食生活面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北

韓 食生活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攝生為主이며 量的 充足의 水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配給制度때문에 각자가 要求하는 個人消費의 絶對量을 充足하지 못하며 또한 食性和 嗜好에 맞는 食生活을 할 수 없음은 물론, 不足分の 食量을 補充할 길도 없다.

北傀는 1957年 11月 內閣決定 96号 및 102号로 「食糧販売를 国家的 唯一体系로 함에 대하여」가 発表되면서 食糧의 自由販売가 禁止되고 労働者, 事務員에 대한 食糧은 完全 配給制로 轉換되었다.

労働者, 事務員의 食糧配給은 그날그날의 日課表<表5>에 의해 勞力을 提供한 代價로 報酬(月給)를 받아 <表6参照> 「配給價格」에 따라 月2회에 걸쳐 対象者の 身分과 職責, 配給対象地域, 配給時期등에 따라 差等的인 配給을 받게 된다. <表7>

北傀는 食糧配給을 實施하면서 「일하지 않는 者는 먹지를 말라」라는 口号아래 就業者에 우선한 食糧配給을 實施하고 있는데 現在 北傀는 勞動을 하지 않는 어린이나 老人에게는 1日 300g, 勞動을 하는 者에게는 1日 700g의 雜穀과 白米混合의 食糧配給을 實施하고 있다.

主食은 주로 쌀과 옥수수(最近에는 옥쌀로 加工), 감자 등이며 그 混合比率은 平壤과 地方에 따라 差異가 있다. 地方에서는 雜穀이 더 많은 편이다.

平壤을 除外한 모든 地域에서 白米3에 옥수수 등 雜穀7의 比率로서 配給되고 있는데 平壤에 대해서는 白米 對 雜穀比가 5대5이며 党幹部에 대해서만은 特配制度를 두어 一般住民들에 비해 훨씬 많은 配給量을 分配받는 実情이다.

따라서 一般住民의 경우 食糧配給을 받는 量만으로는 通常 15日

<表 5 >

住 民 日 課 表

時 間	労働者, 事務員	学 生	備 考
06:00	起 床	起 床	主婦는 05:30 起床
07:00	出 勤		
07:30	作 業 準 備	登 校	幼兒는 託児所
08:00	宣誓式, 作業	朝会, 授業	
12:00	点 心	点 心	人民学校学生은 帰家
13:00	作 業	授 業	
17:00	作 業	州 庁 活 動	高等中学校, 高等専門, 大学生 同一
19:00	作 業	帰 家	
20:00	学習会, 講演会	-	{ 党政策学習 週 2回 4時間 実務 学習 月 2回 4時間 講 演 会 月 2回 2時間 計 月 12回 22時間 其他 日日総和, 週間総和, 月間総和, 思想闘争会議
22:00	退 勤		
23:00	就 寝		

\* 土曜日は 平日과 同一, 日曜日は 生産突撃運動, 社会義務勞力에 動員됨.

<表 6 >

階 層 別 月 給

区 分	月 賃 金 (北 韓 : 원)	該 當 職 級
部 長 級	350	党  및  政務院部長, 科学院院士, 特級 企 業所 支配人
副 部 長 級	300-330	党  및  政務院副部長, 道行政委員長, 科学 院博士, 1 級 企業所 支配人
大 学 教 授	150-190	教授  및  1 級以上 企業所 技士長
支 配 人	180	2 級企業所 支配人
技 士 長	160	2 級企業所 技士長
地 方 機 関 長	100-150	市・郡級 人民委員長, 市・郡級 党委員長
教 員	60-80	人民学校  및  高等中学校  教員
8 級 勞 動 者	95	鉞夫, 土建工, 製鉄製鍊工, 高度의 熟練技 術者
5 級 勞 動 者	75	一般機械工, 運轉技士
3 級 勞 動 者	60	一般女性勞動者  및  未熟練工
事 務 員	65-70	郡級行政管理職  勤務者, 指導員
便宜施設責任者	80	百貨店, 一般商業網, 収買所
便宜施設従事者	60	百貨店, 一般商業網, 収買所

\* 企業所 級數는 当該 企業所 所有 固定資産評價額과 従業  
員의 數를 基準으로 特級, 1 級~ 5 級까지 区分함.

分中 2日分 정도의 不足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1973年부터는 戰時에 對備한 食糧備蓄을 빙자하여 1日1百g分을 減量配給하고 있으며 各家庭別로 戰時非常배낭속에 4~5日分の 食糧을 自体備蓄 托로 強要함으로써 그 事情은 훨씬 惡化된 狀態이어서 最近 北韓 社會에서는 「쌀은 藥이다」라는 말까지가 通用되고 있다.

近來에 와서 平壤을 비롯한 地方都市에서는 <옥쌀工場>들이 設置되어 옥수수를 <옥쌀>로 加工하여 配給하고 있다. <옥쌀>이라는 것은 옥수수를 加工하여 쌀모양처럼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이처럼 食糧에 대한 철저한 配給制가 實施되고 있기 때문에 配給量을 초과해서 購入할 수도 없고 名節, 祭祀, 結婚式 등이 있다고 해서 別途로 追加配給도 없다. 이 때문에 食糧을 아끼고 절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北傀가 食糧配給制를 實施하는 것은 우선 不足한 食糧 問題를 解決하고, 나아가 이러한 不足한 食糧事情下에서 勞力戰線에 나가지 않으면 食糧을 얻을 수 없다는 絶박감을 全住民들에게 造成하여 不足한 勞動力을 充當함은 물론 먹는것을 가지고 住民統制를 強化하겠 다는데 그 根本的 目的이 있다.

이와 同時에 1959年부터는 食糧統制手段으로 糧卷制度까지 實施하고 있다. 糧卷(現在 100g, 200g으로 規定)을 所持해야만 公務出張, 個人旅行을 할 때나 病院入院時와 軍人の 休暇期間中 旅館과 食堂에서 食事を 할 수 있으며 都市住民들이 食堂을 利用할 場合에도 糧卷을 사용한다.

糧卷을 發給받으면 다음 쌀 配給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配給받게 된다. 最近에는 每人當 하루 100g限度內에서 食糧 配給과는 關係 없이 국수를 販賣하고 있다 한다.

<表 7 >

1日食糧配給基準

( 1979年 現在 )

食糧	区 分	配 給 量 (g/1人/ 1日)	雜穀混合比率 (%)	配 給 量 (kg/1世帯 /1個月)	
				副 食	配 給 量
食糧	党 및 国家 機關幹部	700	白米	副 食	된 장 4
	一般労働者, 事務員	600	50-70		간 장 6
	重労働者	700	"		고추장 3
	一般軍人	700	"		소 금 5
	特殊軍人 (輕步兵)	800	40		食用油 0.5
	大學生	600	50-70		
	高等中學生	500	"		
	人民學生	400	"		
	被扶養者	300	70		

\* 白米는 현미를 意味하며 雜穀에는 옥쌀(加工된 옥수수), 薯類등이 包含됨.

\*\* 配給量은 配給基準이며 有償購入임.

1970年 11月 5次党大会에서는 婦女子들의 職場進出과 關聯해서 6個年計劃期間에 밥工場을 大幅 擴張할 것을 決定한 바 있는데 이 決定에 따라 平壤을 비롯한 各都市들에서는 主食物을 加工하는 「밥工場」과 半製品 副食物과 국거리들을 配給하는 奉仕施設, 「찬工場」등을 設置 運營하고 있다.

平壤市에서는 各洞마다 「밥工場」들이 設置되어 있고 20分만에 200名分の 밥을 지을 수 있는 施設, 4~5分만에 60kg의 빵을 生



産할 수 있는 電氣가마 施設, 한꺼번에 1,000名分の 밥을 지을 수 있는 工場들이 設置되어 있다고 한다.

農民의 食糧은 配給制가 아니라 協同農場의 年末決算分配에 의해서 現物과 現金을 分配받는다. 協同農場에서 1年間 生産한 總量에서 國家가 義務적으로 收買해 가는 農産物과 託兒所·幼稚園 등 施設費, 飼料, 種子, 肥料代, 農機械 賃耕料, 水利代, 農器具 購入代, 農場管理費등 名目으로 60% 정도를 公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表 8> 農場員의 勞力工數(年 義務的 責任量은 350工數 以上임)와 扶養 家族數(60才以上者, 學生)를 基準으로 分配한다. <表 9 參照>

<表 8> 決算分配時 控除內訳

控 除 內 訳	比 率 (%)	備 考
種子代	2-3	平均值
飼 料	0.7-1	〃
肥料代	2-4	〃
農機械 賃耕料	7	
灌溉使用料	7	町步当
農機械購買料	10	
共同蓄積 фонд	10	規約에 明示
社会文化 фонд	10	〃
援護 фонд	3	平均值
計	55-60	

<表 9 >

勞力工數評價基準

工 數	作 業 量	評 價 方 法
1.5	밭갈이 2,000 坪	○ 每日 3~4 名으로 構成된 勞力評價組에 의 해 勞力工數가 評價됨
1.5	모내기 200 坪	
1.25	堆肥運搬 10 달구지	
1.25	除草作業 150 坪	
1.0	播 種 400 坪	
1.0	施 肥 100 坪	
0.75	새끼꼬기 5 kg	

따라서 施設投資, 立地條件, 家族數 등에 따라 分配量의 차이가 생긴다.

이와같은 分配方式은 日帝治下에서 農民들에 對한 搾取가 가장 酷甚하였던 時期에 小作農이 地主에게 小作料로 바치던 4.6 制 分配方式보다도 極惡한 것으로 오늘날 自己農土를 所有하지 못하고 있는 北韓 農民들은 日帝治下에서의 小作農들 보다도 더욱 처참한 生活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같은 各種 名目의 控除는 計劃的으로 進行되며 農民들이 收買糧穀까지 買上시키고 나면 都市勞動者들의 配給生活보다 훨씬 낮은 水準이다. 예컨대 勞力工數에 따라 分配받는 現物糧穀은 1年分의 基本食糧으로 1人 當 벼(소위 “알곡”)로 換算하여 400 kg 씩을 除하고 나머지는 「國家收買」된다. 벼 400 kg은 精穀하면 玄米로 250~270 kg가 되며 이것은 1日 700~750 g의 量이 되어 都市 勞動者들의 食

糧 配給 基準量과 비슷한 數字가 된다.

그러나 農民들이 食糧으로 받는 主食物의 種類는 쌀, 옥수수, 밀, 보리, 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 包含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400 kg로 換算하여 配當받기는 하지만(註: 감자와 고구마는 다른 糧穀의 3倍比率로 換算) 1年分の 食糧을 싸놓고 먹는 가운데 農繁期 重勞動時의 食糧 支出 增加를 겪고 나면 빠듯한 狀態에서 冠婚喪祭 등이 接친해에는 食糧이 不足하게 되어 農場에서 「貸与穀」을 借用하게 된다. 貸与穀은 1人當 基本食糧으로 支給되는 400 kg에서 償還하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해에도 亦是 어려운 食糧事情을 겪게 된다. 이와같은 貸与穀 償還方式은 한마디로 勞動力을 效果的으로 搾取하고 食糧統制를 社會統制의 基本的인 手段으로 利用해온 北傀의 非人間性的의 發露라고 하겠다.

## (2) 衣生活

衣生活에 있어서 衣裳의 形態를 보면 韓國은 活動에 편리한 洋服의 착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農村의 婦女子나 年老한 老人層은 아직도 韓服을 즐겨 입는다. 그리고 都市, 農村 할 것 없이 名節에는 大部分 다양하고 個性에 맞는 韓服을 많이 입게 된다.

北韓에서는 통상 勤務服(作業服)에 依存하고 있다. 韓服에 있어서도 古典美의 愛好보다는 多분히 政治的 經濟的 目的에서 追求되는 面이 강하다.

黨員과 事務員은 남자의 경우 「테크」服이 「유니폼」化되어 있고 女子의 경우 흰저고리와 검정치마를 많이 입고 있다. 또한 都市나 農村에 있어서 치마저고리의 色調는 單純化·劃一化되어 있다.

그리고 衣類의 需給面에 있어서 北韓의 各種 織物 生産量은 1年에 約 5億 m (그중 毛織·나이론·데트롱 등은 5,000萬 m)인데,

그 中 軍用 및 公共用 그리고 工業用과 輸出用을 除外한 나머지가 住民들의 衣生活에 돌아가기 때문에 絶對量에 있어서 充分치 못한 形便이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衣服을 自由로이 해 입을 수 없으며 더우기 大部分의 女性들이 社會主義 建設에 動員되고 있기 때문에 作業服을 입는 時間이 많아서 流行과 모양보다는 活動的인 옷차림을 하는 것이 一般的 現狀이다. 그러므로 男女할 것 없이 衣服이 매우 단조로울 수 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라 北韓은 輕工業製品에 대한 高物價政策으로 말미암아 衣類는 勞賃에 비해 高價이기 때문에 求得하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물론 規格화된 基本作業服과 內衣정도는 季節에 따라 支給되고 있으며 또 다소 廉價로 提供된다. 그러나 勞動에 基本的으로 필요한 衣類以外的 出入服(신사복) 등은 高位層이나 特殊한 職業層 以外에는 價格上으로도 입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특히 高級衣類의 구입에 대한 統制政策은 事實상 一般住民들의 衣生活 劃一化를 불가피하게 한다.

이와같이 北韓은 衣類供給에 있어서도 嚴格한 身分差異에 依하여 差別되고 있다. 소위 中央供給을 받는 特權層의 最高級 毛織에서 부터 次下位 幹部級으로 내려가면서, 半毛織, 大麻織等 順으로 差別을 두고 있다. 北傀는 外套는 勿論 帽子, 구두까지 身分上 差異에 따라 品質上의 差異를 두고 있기때문에 外見上으로도 中央級 幹部, 道級幹部, 市郡級 幹部하는 式으로 身分을 가려낼 수 있게 하고 있다. <表 10 参照> 그러나 <表 14>, <表 6>에서 나타난 主要物價時勢와 職業別 賃金實態를 對比시켜 보면 一般住民들의 衣生活水準이 얼마나 낮은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表 10 >

階 層 別 衣 服

區 分 職 業 別	夏 期			冬 期			保 有
	外出 및出張	勤務時	平常時	外出 및出張	勤務服	平常時	
勞 働 者	Y셔스(테드롱) 紳士服下衣(테드롱)	混紡織 作業服	남방셔스(테드롱)	麻織 外套 테드롱洋服	混紡織 作業服	<다우다> 솜冬服(上衣) 테드롱 下衣	1~2 着
事 務 員	Y셔스(테드롱) 紳士服下衣(毛織)	비날混 紡作業 服	남방셔스(테드롱)	毛織 外套 紳士服	솜冬服 混紡織	<다우다> 솜冬服(上衣) 테드롱 下衣	1~2 着
学 生	남 방셔스 (白色綿織) 비 날混紡 下衣(黑色)	上 同	上 同	<다우다> 솜冬服(上衣) 비날混 紡下衣	上 同	上 同	1~2 着

出處：国土統一院分析資料.

(3) 住生活

住宅은 勞動力을 再生産하고 子女를 養育하는 人間生活의 安息處로서 役割한다.

먼저 住生活樣式에 있어서 韓國의 住居樣式은 西洋的인 文化生活과 東洋的인 情緒生活의 調和를 통하여 改善 發展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個人生活에 適合하고 취향과 個性에 따라 다양한 選擇性을 尊重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休戰以後 復旧建設過程에서 住民들의 生活環境

을 集團化하고 密集化하기 위해 都市에서는 아파트 및 聯立住宅等을 建設하고 農村에서는 集團취락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北韓에서의 建物は 個人所有가 없으며 個人建築도 認定되지 않는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個人的 취향이나 個性에 알맞는 設計는 더우기 있을 수 없다. 다만 階層과 職位에 따라 規格화된 各級 等級의 獨立家屋, 또는 아파트를 賃貸形式으로 割當받는다. <表 11 >

따라서 北韓의 住生活 樣式은 規格화된 集團居住 中心의 아파트型, 또는 聯立住宅型의 集團主義的인 生活樣式으로 劃一化되어 있으며, 文化生活이란 전혀 考慮되지 않은 共同管理의 生存空間에 지나지 않는다.

平壤에 사는 党 高級幹部 以外에는 单独住宅에 살 수 없다. 党秘書, 政治局委員, 政務院部長(相) 등의 特号住宅의 規模를 보면 垓地 300~500 坪에 建坪 200 坪 程度로 3層 構造이며 警備兵力 1個分隊와 看護將校 1名이 配置되는 外에 專用料理士 2名, 食母 2名, 運轉手 2名, 經理員 1名이 딸려있다. 이는 勞動者 事務員들의 住宅事情과 比較해 보면 北傀가 宣傳하고 있는 「勞動者의 天國」이라고 하는 虛構性을 可히 짐작케 한다.

農村의 경우에도 集團農場의 形態에 따라 住居의 樣式도 아파트化, 聯立化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住生活은 人間的 삶의 空間이라기 보다는 合宿所와 같은 特色을 지니게 되고 따라서 韓國의 特色인 情緒生活의 根拠地라는 意味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北傀가 建設한 住宅들은 資材의 不足, 技術의 落後, 生活水準의 統制政策 등으로 10 坪内外의 小規模 住宅이 大部分이다. 北韓住民은 이러한 小規模住宅을 賃貸받고 있으나 家具라는 것이 거의 없기때문에 그런대로 잠자리 구실을 하고 있다.

<表 11 >

階層別 住居形態

号数	住宅型	家屋構造	入 住 者	備 考
特 号	○ 单独高級住宅	○ 独立式単層 또는 2層 ○ 庭園 ○ 冷温房装置, 水洗式便所	○ 党 및 政務院 副部長級 以上 ○ 人民軍 少將以上	○ 高級輸入建材使用
4 号	○ 新型高層아파트	○ 房 2 ~ 3 個 ○ 목욕탕兼 水洗式便所 ○ 冷温水施設	○ 中央党課長級以上 ○ 政務院局長級以上 ○ 人民배우, 공훈 예술인 ○ 大学教授 ○ 企業所責任者 ○ 人民軍大佐	○ 世帯当 15 坪程度
3 号	○ 中級单独住宅 및 新型아파트	○ 房 2 個 ○ 부엌, 倉庫	○ 中央機關指導員 ○ 道級機關 副部長以上 ○ 企業所部長 ○ 人民学校・高等中校長 ○ 人民軍中佐	
2 号	○ 一般아파트	○ 房 1 ~ 2 個 ○ 마루방 1, 부엌 1	○ 道級機關指導員 ○ 企業所課長級 ○ 千里馬作業班長 ○ 市郡級機關課長 ○ 人民学校・高等中教員 ○ 人民軍大尉 ○ 勞力有功者	○ 世帯当 10 坪内外 ○ 共同목욕탕, 便所 ○ 全体家屋의 30 %

号数	住宅型	家屋構造	入 住 者	備 考
1 号	○ 集團共營住宅 및 旧屋	○ 房 1~2, 부엌 1 ○ 房 2~3 의 既 存旧屋	○ 末端勤勞大衆 ○ 末端事務員 ○ 변두리協農員	○ 上下水道施設 不備
	○ 農村文化住宅	○ 單層聯立住宅 ○ 房 2, 부엌 1, 倉庫 1	○ 協同農場員	○ 草家를 기와 로 改築 ○ 最近 2~3 層 으로 增築

\* 住宅使用料는 燃料費 包含 世帶當 生計費 支出의 3%内外

또 北韓의 住宅普及率은 總世帶數를 住宅數로 換算해 볼 때 70%水準을 나타내고 있어 不足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結婚後 방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한편 北韓에서는 居住地移轉에 대한 決定權이 各個人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住宅의 管理 및 入住配定權을 市·郡 人民委員會, 都市經營事業所에서 掌握하고 있다. 즉 住宅配定은 勞動黨에서 一方的으로 職場附近 中心으로 이사질차(市·郡 社會安全部의 退去手續, 市·郡行政委員會의 移動証發給, 住宅管理所의 住宅狀態確認)와 入住節次(職場과 都市經營部와 調整, 交換, 住宅配定)등에 따라 配置하고 있어 個人的 事情에 의한 居住地의 移轉은 있을 수 없다.

이와같이 北韓에서의 居住地移轉은 大部分이 政治的 理由와 其他理由에 의해 強制的으로 실시되고 있다. 例컨대 北傀는 1958~1960年間 中央黨集中指導事業이라는 名目的 政治查察과 1963~1964年間 住民登錄事業을 통해 開城等 休戰線一帶의 原住民과 反黨階層으로 肅清된 者들의 緣故者들을 集團的으로 압록강 및 두만강地域의 奧地로 移住시킨 바 있으며 現在도 繼統的으로 反金勢力으로 축출되는 者들에게는 이와같은 方法을 쓰고 있다.



北韓의 住生活樣式은 결국 住民들을 集團的으로 收容함으로써 이들의 一舉一動을 党에서 指揮 統制하는데 容易하도록 하며 都市風景을 規格化하고 그러한 都市環境속에서 生活하는 가운데 住民들의 思考마저도 規格化하려는데 意圖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住宅의 不足에 대한 住民들의 不滿도 대단한 實情이다.

#### 마. 冠婚喪祭와 歲時風習

冠婚喪祭란 한 人間이 出生하여 삶을 營為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一生을 經過하는 과정가운데 重要的 關門에서 치르는 通過儀式인 것이다. 이는 社會構造的 性格에 따라 각기 特有的 形態와 節次를 취하면서 社會構成員들의 團合과 活氣, 그리고 未來에의 꿈을 북돋아주는 機能을 한다.

解放以後 南北韓은 다같이 時代變遷에 따라 옛 生活樣式이 많이 변했고 美風良俗의 概念도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基本精神과 本質的인 內容이 繼承되고 있는가의 與否가 民族史的 正統性和 關聯된 重要的 問題이며 이런 면에서 南北韓은 큰 差異가 있다.

韓國에서는 冠婚喪祭의 形式과 節次에 대한 簡素化가 積極 奨勵되고 있으나 그 精神과 本質은 그대로 繼承 發展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社會에서는 이 分野에서도 根本的인 變化를 가져왔다.

北韓은 冠婚喪祭를 包含하는 모든 民俗과 生活慣習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的 性格의 社會主義的 內容과 民族的 形式」이란 口實아래 傳統的인 冠婚喪祭儀式을 完全히 抹殺하고 있다.

1955年에서 1960年 사이에 冠婚喪祭 簡素化運動을 展開하면서 이러한 儀式을 社會的 要式行爲에 그치게 하였다.

첫째로 婚禮에 있어서 北韓은 韓國社會처럼 男女 當事者間的 自

由로운 意思에 따라 配偶者를 選擇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各自의 所屬團體나 職場의 黨細胞 委員長에게 事前 承認을 받아야 한다. 結婚 自体를 男女間의 愛情보다는 革命戰士間의 結合이라는 점에서 「붉은革命家庭」의 誕生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結婚基準 역시 革命力量強化를 위한 소위 “革命兒”의 誕生을 유도하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配偶者 選擇에 있어서 党性, 出身成分, 職業等과 關聯하여 制限條件이 많이 作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黨幹部, 軍官, 航空士 등의 結婚은 黨의 特別한 統制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現在 結婚年令까지도 黨에서 임의로 統制하고 있다. 1976年 7月 政務院決定에 의하여 男子 32才, 女子 28才가 넘어야 結婚이 可能하다. 그리고 結婚儀式에 있어서는 祝賀客을 30名以內로 制限하며 「金日成肖像画」를 걸어놓고 主禮가 「革命家庭의 誕生」과 「黨과 金日成에 대한 忠誠」을 盟誓하는 節次에 그치고 있다.

둘째, 葬禮에 있어서 南北韓은 葬禮를 치루는 社會的 認識과 그 根本精神이 다르다. 北韓에 있어서의 葬禮는 原則적으로 人間으로서의 利用價值가 끝나 勞動力이 없어진 物體를 처리하는 節次로 看做하기 때문에 韓國에서 처럼 故人을 哀悼하고 名복을 빌기 보다는 하나의 主觀을 매장하는 事務的인 일로 取扱되고 있다.

따라서 儀式節次를 극히 簡素化하여 1日葬을 原則으로 하고 葬禮車를 賃貸하거나 職場·協同農場의 트럭 또는 牛車를 빌려 시체를 공동묘지로 운반한다. 都市의 경우 便宜協同組合의 葬禮部가 提供하는 공동묘지에 매장하거나 火葬해 버린다.

세째, 葬禮에 있어서도 傳統的 祭禮는 迷信으로 看做할 뿐만 아니라 祖上崇拜를 復古主義的 病弊, 封建的 殘滓라고 批判하기 때문

에 基本的인 節次는 無視되었다. 그대신 祭祀를 통하여 思想教育의 效果를 試圖하고 있으며 祭日은 故人의 生存時 革命業績에 대한 批判의 機會로만 認定되고 있을 뿐이다.

그밖에도 冠禮는 흔적조차 없다.

이렇게 볼 때 韓國은 傳統的인 家族制度의 基本構造에서 冠婚喪祭가 重視되고 그 自体를 美風良俗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北韓은 이를 復古主義의 傾向이라던가 封建的 殘滓라고 規定하여 抹殺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名節 역시 北韓에서는 歲時風習自体를 배격하는 立場이다.

그들은 설날, 秋夕, 寒食節에 행하는 차례와 성묘를 허례와 浪費로 規定하고 傳統的 民族固有의 名節은 一切 認定하지 않는다.

그대신 共產主義思想 鼓吹와 金日成 偶像化를 위해 새로이 名節을 指定하며 이를 소위 「社會主義的 名節」이라 하여 성대한 祝賀行事를 벌이고 있다. <表 12 >

그들은 金日成生日(4月 15日)을 民族最大의 名節이라 하여 各種 祝賀行事, 즉 忠誠의 선물바치기運動, 思想討論會, 各種 芸術公演, 體育行事, 金日成賞 授與, 各種 展示會, 그리고 外國祝賀團招請과 生日祝賀膳物 伝達 등, 盛大한 行事가 大的으로 강행되는가 하면 國際勞動節(5月 1日), 北傀政權創建日(9月 9日), 勞動黨創建日(10月 10日) 등에는 요란한 紀念行事와 경축놀음이 벌어진다.

이와같이 北韓에서 말하는 名節이란 우리 民族固有의 名節이 아닌 金日成 1人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인 集團行事日에만 남아있다.

<表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傳統的 名節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表 12 >

名 節 및 紀 念 日

区分	韓 国		北 韓	
	名 節 名	日 字	名 節 名	日 字
名節	新 正	1. 1	新 正	1. 1
	旧 正	1.1 (陰曆)		○陰曆名節
	端 午	5.5 (陰曆)		不認
	秋 夕	8.15 (陰曆)		
紀 念 日 및 公 休 日	3 . 1 節	3. 1	金 正 日 生 日	2.16 ( '75년부터)
	制 憲 節	7.17		
	光 復 節	8.15	金 日 成 生 日	4.15
	開 天 節	10. 3	国 際 勞 動 節	5. 1
	植 木 日	4. 5	解 放 紀 念 日	8.15
	어 린 이 날	5. 5	北 韓 政 權 創 建 日	9. 9
	석 가 탄 신 일	4.8 (陰曆)	勞 動 黨 創 建 日	10.10
	頭 忠 日	6. 6	憲 法 節	12.27
	国 軍 의 날	10. 1		
	한 글 날	10. 9		
	聖 誕 節	12.25		

伝来の 民俗놀이도 없어지거나 새로운 形態로 變質되었다. 즉 歲時風俗에 따라 名節에 곁들여 전해오던 民族固有의 民俗놀이도 北韓에서는 군사놀이나 體育競技 또는 씨름共演으로 바뀌었다.

農樂은 勞動節이나 北傀政權創建日에나 볼 수 있는 劇場 또는 野外公演種目으로 탈바꿈하였고 널뛰기는 曲芸의 한 種目으로, 그네뛰기와 활쏘기는 民俗體育의 競技種目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大部分의 民俗놀이가 特定한 名節과 結付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體育大會를 열어 開催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鳳山탈춤이나 北靑사자놀이 또는 강령탈춤 같은 탈놀이도 北傀 나름대로의 戰鬪的 勇猛性과 階級性에 結付시켜 풀이하고 있다.

<表 13 > 北韓의 民俗놀이의 變質過程

時 期	內 容
6.25 前	傳統民俗놀이의 存統 - 그네, 씨름(端午) -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旧正初) - 농악무(農村), 北靑사자놀이, 鳳山탈춤
50 年代	民俗놀이 一部를 生産性提高의 手段으로 活用 - 농악을 行事に 利用(8.15, 5.1節등) - 노동자의 놀이로서 씨름, 그네, 줄다리기 獎勵
60 年代以後	새로운 形態로 變形 - 群衆的 集團的인 놀이로 變形 - 활쏘기등을 階級敎養과 結付(표적은 美軍) - 씨름, 그네를 民族競技로 採択

탈놀이의 由來에 대해서, 그들은 「다만 놀이때에 흥을 돋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또는 싸움터에서 그 어디서나를 莫論하고 사람들을 鬪爭에로 鼓舞하며 勇猛性과 英雄心으로 품게 하기 위한 手段이었다」고 主張한다.

산대놀이에 대해서, 그들은 「社會의 階級的 矛盾이 더욱 尖銳化

되고 封建支配階級에 대한 人民들의 憎惡와 反感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탈놀이는 자기의 階級的 色彩를 선명하고 강하게 띠게 되어, 人民들이 統治階級에 대한 자기들의 憎惡와 야유를 무대위에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놀이로 發展하였다」라고 풀이한다.

鳳山탈춤에 대해서도 「統治階級에 대한 当代人物들의 憎惡와 敵愾心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풀이함으로써 民族의 固有한 民俗놀이를 政治的 目的에만 利用하고 있다.

그들은 또 北靑사자놀이를 變質시켜 탈춤과 우스꽝스러운 재담으로 양반통치계급의 탐욕과 惡德을 신랄하게 暴露하는 劇的 줄거리를 구성하는 內容으로 變造함으로써 北靑사자놀이가 갖는, 本來의 意圖인 惡鬼除去를 떠나 그들의 共產化目標을 實現하기 위한 道具로 利用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實際로 北韓의 住民들은 이러한 民俗놀이를 즐길 수 있는 機會조차 가질 수가 없다. 그 理由는 ① 과중한 集團勞動과 統制·監視때문에 이웃과 家庭이 한 곳에 오붓히 모일 수 있는 機會를 갖지 못하고, ② 會議, 金日成學習, 總和 등으로 餘念이 없으며, ③ 遊戲와 娛樂은 集團化의 目的으로 強制動員되기 때문에 北韓 住民들에 있어서는 演劇, 무용, 音樂 등의 公演도 오히려 괴로운 勞力動員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 5. 南北韓 生活環境의 比較

### 가. 社会政策의 基調

社会政策面에 있어서 韓國은 民主福祉社会의 實現에 그 目標을 두고 있다. 즉 憲法 第30条에 의하면 「모든 國民은 인간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지며」 따라서 「國家는 社会保障의 增進에 努力하여야 하고」,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護를 받는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精神은 바로 國民의 基本的인 人權이 最大限으로 保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 共產政權의 社会政策은 그 体制의 基本原理라고 할 수 있는 「하나를 全体를 위하여, 全体는 하나를 위하여」( 憲法 第49条)라는 集團主義의 原理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集團的 生活化, 北韓의 革命基地化 그리고 金日成 体制의 공고화에 目標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基本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北韓은 政策의 重点方向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있다( 1970年 5次勞動黨大會에서 한 金日成報告 ).

① 住民들의 社会生活을 組織化하고 私生活을 包含한 모든 生活 領域에 대한 党的 統制를 強化하며,

② 價值剝奪에의 공포와 만성적인 強迫觀念을 操作하여 北傀

노동당에 맹종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한  
心理狀態에 놓이게 함으로써 이로 부터의 解放을 過剩忠誠에서 찾  
도록 하고.

③ 서로가 서로를 監視하는 集團的 監視體制를 強化하며 「肯定  
的 規範의 一般化」原則에 따라 否定을 은폐하고 肯定的인 것만을  
보고 따르도록 示範的 教化方法을 極大化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南北韓의 社会政策은 社会正義의 實現과 國民의 福祉向上  
에 주력하고 있는 韓國과 「黨과 首領」에 대한 無條件 絶對的인  
충성을 強要하며 住民隸屬化에 力點을 두고 있는 北韓과는 根本的  
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社会政策의 基調에 準拠해서 住民들의 社会生活의  
方式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즉 韓國은 人間의 尊嚴性이 保障된 社会이며 자기의 소질과 能  
力을 最大限으로 發揮하면서 스스로를 開拓해 나갈 수 있는 계반  
与件과 機會가 마련되어 있는 開放社会이다.

따라서 個人은 社会生活을 통하여 자기의 理想을 實現시킬 수  
있으며 그와 같은 努力을 통하여 社会의 成員으로서, 또한 한 國  
民으로서의 責任과 義務를 同時에 遂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써 올바른 道德, 倫理觀과 遵法精神에 의하여 社会秩序가 굳건히  
다져지며 人間性을 바탕으로 한 對人關係를 통하여 和睦과 協同의  
기풍이 振作된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個人的 生活을 犧牲시키는 바탕 위에서만 社



會生活이 이루어지는 集團主義를 고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힘으로 生活을 꾸려나갈 수 있는 經濟的 條件이 없기 때문에 生存을 위해서는 北韓 共產集團의 操縱下에 움직이고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他律的 生活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北韓과 같은 集團主義 体制의 組織社會에서는 個人的 慾求 充足이 所屬된 團體를 통해서만 可能하기 때문에 個人的 素質과 創意性이 開發될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職業選擇, 住居地 移動, 旅行등의 自由가 철저히 統制되는 硬直的인 閉鎖社會를 이루고 있으므로 北韓 住民들의 生活領域은 극히 制限되고 機械的인 動物的 生活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 나. 勞動生活

勞動은 그것이 肉體的인 것이든 또는 精神的인 것이든 人間生活의 必須要件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目的일 수는 없는 것이다. 勞動問題에 관한 南北韓의 基本的 差異點은 바로 이 點에서 비롯된다.

勞動을 새로운 價值創造의 手段으로 보는 韓國과 그것을 人生의 目的처럼 看做하도록 強要당하고 있는 北韓은 勞動에 關聯된 모든 問題에 對照的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勞動에 임하는 態度가 韓國은 自願的인데 비하여 北韓은

義務的, 強制的인 것이다.

自願勞動原則에 依拠하고 있는 韓國의 境遇 勞動資源面에서는 伸縮性을 가지지만 그 活用率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北韓은 勞動資源은 不足하면서도 勞動生活 組織에 따라 勞動強度를 높이고, 極限的인 勞力動員(例: 軍人, 學生, 家庭主婦等)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 그 한가지 例로서 內閣決定으로 發表된 「義務勞力動員에 관한 規定」(1950. 3.25)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年間 최소 20日 以上 義務勞動者로 動員되어야 한다. 그리고 職種別 年間 義務勞力動員日을 보면 事務員은 40~50日, 自動車 및 牛馬車는 年間 10~15日以上 動員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들은 代價를 받을 수 없는 強制勞動에 酷使당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勞動組織의 自律性和 劃一性에 差異가 있다.

韓國에서는 勞組活動이 制度的으로 保障되고 있으며 勞動者들의 勞組加入은 自發的이며 勞組는 勤勞者들의 權益擁護에 重點을 두고 自律的으로 活動한다. 이에 반하여 北韓에 있어서 모든 勤勞者들은 義務的으로 「職盟」, 「農勤盟」 또는 「女盟」에 加入하도록 強壓당하고 이러한 社會團體를 매개로 하여 勤勞者에 대한 党的 統制가 強化되고 勞力動員의 極大化가 이룩된다. 이같은 團體들의 活動目標은 勤勞者들의 權益擁護에 있는 것이 아니라 勤勞者들을 黨 周圍에 結束시키는 소위 「引込帶」 役割을 한다. 따라서 北韓 勤勞者들은 이러한 社會團體를 통하여 「思想革命」을 위한 「先

鋒隊」로서, 「社會主義 競爭의 組織者」로서 役割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세째, 勞動力 管理와 勞動強制的 面에서 區別된다.

韓國에서는 最少의 勞動力으로 最大의 勞動成果를 거두기 위하여 企業經營의 合理化라든가 生産施設의 改善, 勤勞者들의 生産意慾을 높이기 위한 福祉向上과 勤勞者들의 技術研修등의 여러 對策을 강구한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勞動力의 「党的管理」에 重點을 두고 소위 「社會主義 競爭」이라는 명목밑에 集團的 監視에 의한 集團的 勞動, 勞動의 集團化를 強制하고 있다.

北傀는 그동안 經濟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實踐하는 過程에서 計劃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方法으로 個人, 作業分組, 作業班, 職場, 工場, 企業所 또는 協同農場을 單位로 하여 大衆的 勞力競爭運動을 繼續적으로 強化시켜 왔다. 이러한 「社會主義 競爭」의 具體的인 形態를 보면 소위 「千里馬運動」(1957년부터 始作)을 위시하여 「6個高地 占領運動」, 「10大課業 完遂運動」등을 감행하였고 1974年 「速度戰」, 1975年末부터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특히 70年代 後盤부터는 工場, 企業所와 協同農場, 建設隊등에 各樣各색의 「突擊隊」組織을 만들어 勞動強化를 極限化 시키고 있다. 最近에 組織된 「速度戰 붉은青年突擊隊」「복수 突擊隊」, 「피바다 突擊隊」, 「꽃파는 처녀 突擊隊」등은 그 代表的 예이며 심지어 「침식을 職場으로 옮기기 運動」까지 強要

하고 「首領과 党이 준 課業을 完遂해 내지 못하고서는 실 權利도 죽을 權利도 없다」라는 口號아래 보다 苛酷한 勞力強化가 繼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北韓 住民은 勞動報酬를 따지기에 앞서 「社會主義 建設者」라는 榮譽와 矜持를 가지고 「千里馬」처럼 빠른 速度로 일해야 하며 個人別, 作業分組別, 作業班別, 職場別, 工場·企業所別, 協同農場別 등 多元的인 競爭組織으로 集團的 生産性的 提高를 獨촉받고 있다. 이러한 運動은 生産部門뿐 아니라 教育, 文化機關 등 非生産部門에까지 擴大하여 소위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党的 總路線」이라고 그 意義를 強調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北傀는 이러한 勞力競爭運動을 가리켜 「共產主義 人間」으로 改造하는 가장 重要한 政治教化 手段이라고 規定하고, 勞動成果를 基準으로 各 個人, 各 作業班員들의 政治思想 水準과 金日成에 대한 忠誠의 정도를 測定하고 있다.

다. 財産所有

大韓民國 憲法 第20條에 의하면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保障되며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하고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収用, 使用 또는 制限 및 그 보상의 基準과 方法은 法律로 定하도록 明示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에서는 生産財, 消費財를 막론하고 個人의 所有가 保障되고 있으며 國家利

益에 反하지 않는 한 그 財産權과 相統權은 法的으로 保護를 받는다.

이에 反하여 北韓에서는 土地改革, 重要産業 国有化, 個人商工業抹殺, 農業集團化 등 一連의 社会主義化 政策에 의하여 <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8年末을 기하여 一體的 私有財産이 無償으로 沒收되었고 個人에 의한 商工業과 營農을 禁止함으로써 個人的으로 私有財産을 蓄積할 수 있는 機會를 完全히 排除하고 말았다.

<表 14> 北韓의 財産所有變遷

年 度 部 門		49	53	56	57	58 (6月)	58 (10月)
		工 業	国・公有	90.7	96.1	98.3	98.7
	私 有	9.3	3.9	1.7	1.3	-	
農 業	国・公有	3.2	32.0	80.9	95.6	98.6	里單位
	私 有	96.8	68.0	19.1	4.4	1.4	로統合
商 業	国・公有	56.5	67.5	84.6	87.9	100	
	私 有	43.5	32.5	15.4	12.1	-	

資料： 国土統一院, 北韓便覽(1974)

北韓은 그들의 憲法 18条와 19条에서 生産手段은 國家 및 協同團體의 所有임을 規定지우고 自然資源, 重要工場, 企業所, 港灣施設,

交通運輸 및 通信機關은 國家만이 所有한다고 밝히고 있다. 個人所有는 다만 勤勞者들의 個人的 消費를 위한 所有에 局限한다(「社會主義憲法」 第 22 條)고 明示하였다.

最近 東歐 共產諸國의 動向을 보면 그들은 社會主義 經濟가 지닌 沈滯性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制限된 範圍內에서나마 私有財産을 許容하고 個人商工業과 營農을 復活시켜 勤勞者들의 生産意慾을 높이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1977年4月 새로운 「土地法」을 制定하고 오히려 모든 生産手段에 대한 國家的 統制와 社會主義的 管理體系를 더욱 強化시켜 가고 있는 狀況이다.

#### 라. 所得 및 生活水準

所得水準 또는 賃金은 社會生産物의 原價를 構成하는 가장 主要 要素임과 同時에 勤勞者의 生活維持의 源泉이기 때문에 社會生活 方法의 觀點에서도 重要的 意義를 가진다. 즉 賃金水準의 變動은 一般物價 水準에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勤勞者의 生活水準을 規定짓는 決定要因이라 하겠다.

물론 南北韓은 그 經濟體制를 달리하기 때문에 事實上 國民生活에 關聯된 數量的 比較 自体로서는 그 意味가 크게 줄어들 것이지만 住民들의 生活樣式과 그 水準을 比較하는 한 尺度로서는 充分하다.

넓은 意味에서 보면 經濟體制 如何를 막론하고 經濟發展의 窮極

的인 目標은 國民厚生の 增大와 福祉向上에 있다고 하겠으나 現實的 問題로서 國民生活의 向上은 事實상 体制의 特殊性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韓國은 自由民主主義 國家로서의 國民의 福祉向上에 政策目標을 두고 있는 반면에, 北韓은 住民의 福祉向上은 副次的으로 하고 戰力增強을 통한 韓半島 赤化統一에 政策目標을 두어 왔다. 따라서 이것은 産業構造面이나 社會施策面에서도 그대로 反映되어 北韓은 아직도 重工業分野가 우선시 되는 가운데 輕工業分野는 유치한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狀況下에서 住民들의 生活條件 改善은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北韓은 過重한 軍事費 負擔과 國際收支의 惡化 그리고 産業間의 不均衡 등 住民生活을 壓迫하는 諸 要因이 더욱 深刻해질 것이다.

따라서 北韓 住民들은 「千里馬」처럼 酷使당하면서도 가장 低廉한 賃金水準에 묶여있기 때문에 基本的인 生活水準마저 保障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文化生活이란 期待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 뿐만 아니라 北韓에서는 이른바 「勞動의 質과 量에 따른 分配」라는 社會主義 分配原則을 내세워 놓고 特權層의 高所得을 合理化시키고 있다.

<表 6>과 <表 15>에서 보면 北韓에서는 高等中學校 敎員의 경우 그 賃금이 60 원이므로 高級「라디오」 250 원짜리는 4個月分 賃金에 該當되며, 「텔레비전」은 6個月分의 賃金에 該當될 정도로

<表 15 >

北韓의 主要生必品 價格

類別	品名	單位	價格 (北韓: 원)	類別	品名	單位	價格 (北韓: 원)	
肉類 및	쇠고기	kg	6~8 원	酒類 및 煙草	소주	병	2 원 50 전	
	돼지고기	kg	8~10 원		인삼주	병	5~6 원	
	닭고기	kg	3~4 원 50 전		담배	匣	25 전 ~ 1 원 25 전	
魚類	동태	kg	30~60 전	生活必 須品 및 學用品	우산	개	16 원	
菓子 및	비스켓	kg	4 원		축구공	개	15 원	
果實類	사과	kg	1 원		전기 다리미	개	20~25 원	
	調味料	간장	병		18 전	라이타 (기름用)	개	3 원 50 전
		설탕	kg		2 원	라디오	개	100~250 원
主食品	참기름	ℓ	9 원		T.V (대동강)	개	180~380 원	
	白米	kg	12 전		壁時計 (개성)	개	50 원	
	찰쌀	kg	15 전		손목시계 (침성대)	개	180 원	
	옥수수	kg	9 전		만년필	개	14 원	
纖維類	밀	kg	6 전		재봉틀	개	380~500 원	
	넥타이	개	5~8 원	자전거 (제비표)	개	180 원		
	勞動服	着	25 원					
	毛織洋服	着	200~250 원					

美質的 賃金水準이 극히 낮다.

바꾸어 말하자면 北韓에서는 食糧配給價格, 住宅使用料, 光熱費 등은 低廉하게 策定한 대신, 그들이 받는 月給은 副食費와 衣類代, 雜費



등에 100% 충당되게 統制 調整함으로써 生活의 여유를 最少限으로 줄이고 그 대신 勞動을 繼續할 수 있는 最低延命条件만을 保障해 주고 있는 實情이다.

#### 마. 趣味·娛樂

南北韓 住民들의 勞動時間과 「레저」, 趣味와 娛樂의 實態는 서로 根本的인 差異를 안고 있다. 이는 물론 社会構成原理 내지 社会体制 維持方法의 差異에서 나온 必然的인 結果라고 생각되지만 그 보다는도 北韓의 經濟發展段階로서는 아직도 「레저」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있는」 段階가 못된다고 하겠다.

韓國에서는 職業이라든가 所得水準, 教育水準등에 따라 各己 選擇 基準이 다르고 또 各자의 個性과 生活環境에 따라 日課와 趣味 娛樂이 多様하게 分化된다. 이것은 自由社会의 多様性を 띠는 伸縮性和 潛在性を 말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劃一社会인 北韓에서는 우선 職業選擇이 党에 의하여 賦與될 뿐만 아니라 <表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職種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全体的으로 適用되는 基本的인 日課는 共通性を 띠게 된다.

이와 같은 日課와 關聯해서 北韓에서의 生活를 살펴보면 우선 自己의 時間, 즉 個人的 私生活은 있을 수 없고 틀에 짜여진 軍隊式的 集團主義的 日課와 各種 社会團體의 集團的 活動에서 벗어

날 수 없도록 全 住民이 組織化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個人的 時間은 雜念을 갖게하는 原因이 된다”는 共產主義式 思考方式의 産物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는 肉体 및 精神勞動分野를 莫論하고 每日 完遂해야 할 作業責任量이 過多하게 策定되어 있고 日課를 錯誤없이 進行시켜야만 批判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緊張과 強迫觀念에 사로잡혀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러한 狀態에서 個人的 自由時間을 가지고 生活을 즐긴다는 것은 애초부터 염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더우기 勞動黨은 「黨과 首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行動하라」고 北韓 住民들에게 教養하고 있다. 이런 狀況下에서 趣味나 娛樂은 論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趣味나 娛樂에 대한 施設도 全無하기 때문에 가끔 公休日 같은 날 公園地帶를 찾는 것이 北韓 住民들에게는 바로 唯一한 休息이며 娛樂으로 생각되고 있다.

#### 바. 宗 教

大韓民國 憲法 16條에 의하면 「① 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 國教는 認定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17條에서는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에서는 宗教의 自由가 憲法에서 保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實際 社會生活에서 宗教의 힘이 차지하는 影響力은 대단히 큰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主要 宗教는 基督教, 仏教, 天主教, 天道教, 儒教등이 있으며 이슬람교도 最近에 와서 布教되고 있다. <表 16 参照>

韓國의 宗教人口는 2,966 萬名으로 全体 人口의 79%를 차지함으로써 世界的인 宗教國家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로마教皇「바

<表 16 >

韓國의 宗教別 教勢

( '79.10.31 現在 )

宗 教	教 堂 數	教 職 者 數	信 徒 數
仏 教	7,903	17,377	13,334,658
天 主 教	2,332	4,339	1,141,988
基 主 教 (改 新 教)	20,688	26,677	5,989,638
儒 教	232	9,572	4,925,444
天 道 教	238	3,169	1,052,630
大 倮 教	71	70	257,442
円 仏 教	341	3,425	904,568
其 他 宗 教	712	5,885	2,050,525
合 計	32,517	70,514	29,656,893

資料： 文化公報部 宗務課

오로」6세는 75年6月1日 天主教 서울大教区长 金寿焕 枢機卿을  
北韓의 平壤教区 管理長으로 任命한 바 있다.

이와 같이 韓國 國民은 絶对多数가 오랜 歷史를 통하여 宗教를  
신봉하여 왔으며 宗教가 韓國民의 生活感情의 深層部를 이루고 있  
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北韓에서는 「宗教는 아편」이라는 「마르크스」宗教  
觀에 따라 宗教의 抹殺을 合理化하고 있다. 오늘날 北韓에서 宗  
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金日成 唯一信仰일 것이고 그외에 아무  
런 믿음도 이제 北韓 땅에서는 存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金日成은 「宗教는 一種의 迷信이다. 예수를 믿든지 仏教를  
믿든지 그것은 本質上 다 迷信을 믿는 길이다. 宗教는 歷史的으  
로 支配階級의 수중에 掌握되어 人民을 기만하며 榨取, 抑圧하는  
道具로 利用되었으며 또 近来에 들어와서는 帝國主義者들의 後進國  
家 人民들을 侵略하는 思想的 道具로 利用되었다」라고 主張하고  
宗教의 말살을 合理化시켜 놓았다.

이는 그들이 基督教, 仏教, 儒教에 대해 어떻게 規定하고 있는가  
를 보면 더욱 明白해진다. (北韓發刊, 정치사건)

첫째, 基督教에 대해서,

「基督教도 다른 宗教와 마찬가지로 現實世界에 대한 幻想的이며  
歪曲된 反映으로서의 超自然的인 힘에 대한 信仰에 基礎하고 있다.  
基督教은 被榨取勤勞大衆의 解放鬪爭을 抹殺하고 榨取制度를 永久  
化하기 위한 榨取階級의 精神的 道具이다」라고 主張하고 “美國의

韓國에 대한 侵略手段”으로 規定하였다.

둘째, 仏教에 대해서,

「 仏教은 사람들에게 不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臣迫者들을 反對하여 鬪爭하는 대신에 모든 慾望을 抑制하고 運命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설교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기 위하여서는 現世界의 모든 苦痛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굴종사상과 無抵抗主義를 설교한다…… 仏教은 封建時期에 침습하여 封建支配階級の 思想的 支配道具로 利用되면서 階級意識과 鬪爭意識을 마비시키는 害毒을 끼쳤다. 仏教은 北韓에서는 이미 없어졌으나 아직 南韓에 繼續 남아 있으면서 南韓 人民들의 革命意識을 마비시키는데 적지 않은 害毒的인 作用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儒教에 대해서

「 儒教은 超自然的인 하늘을 崇拜하고 세상 의 모든 것은 하늘의 의지에 의하여 創造되고 그에 의하여 運命이 左右된다고 說教한다. 儒教은 또한 하늘의 命令(天命)에 順從하고 하늘이 내 놓은 秩序에 누구나 服從해야 한다는 굴종사상을 說教하여 사람이 죽은후 靈魂의 存在를 認定하면서 제사와 같은 宗教儀式을 強要한다. 이는 封建統治 秩序를 維持하고 封建身分制度를 合理化하는 反動的인 說教이다…… 封建儒教思想은 勤勞大衆의 鬪爭意識과 民族 自主意識을 마비시키는 反動的 役割을 하였고 民族文化 發展에 莫大한 害毒을 끼쳤다. 오늘날 부르조아思想과 함께 主要 鬪爭對象의 하나

로 된다」라고 主張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그들의 세가지 宗教에 대한 觀點은 한결같이 否定的인 立場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이 共通的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① 宗教는 階級意識과 鬪爭意識을 마비시킨다.

② 굴종사상을 強要한다.

③ 南韓 人民들의 鬪爭과 革命意識을 마비시킨다.

④ 支配階級の 統治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다는 등, 「共產主義를 全面 拒否하는 社會主義의 最大의 敵」으로 단정하고 있다.

本來 共產主義 理論에서는 歷史를 階級鬪爭의 歷史로 보고 이러한 鬪爭을 통해서만 歷史가 發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勞動階級은 階級意識으로 武装하고 暴力鬪爭을 展開해야만 資本主義 政權을 전복하고 共產黨政權을 樹立할 수 있다는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歷史觀과 革命觀에 固着되어 있는 北傀가 階級鬪爭을 저해하고 現世보다도 來世를 생각하게 한다고 믿는 宗教를 그들이 받아들일리가 만무한 것이다.

金日成은 1959年 「우리는 왜 宗教를 反對해야 하는가」라는 反宗教運動의 指針書에서 「악질 宗教인들이 宗教의 간판 밑에 反革命的인 行爲를 組織하여 宗教的 思想을 우리들 속에 扶植시키려고 企圖하므로 이것과 철저히 鬪爭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宗教抹殺政策을 감행하여 왔으며 특히 6.25를 前後하여 “戰爭中에 韓國軍

에 同調 支援했다”는 理由로 北傀는 많은 宗教人을 학살하였다.

사실상 6.25 動亂이 일어나자 宗教人들은 共產政權을 反對하는 運動을 앞장서서 展開하였고, 특히 「유엔」軍과 國軍이 北進하였을 때는 이들이 열렬히 歡迎하였고 治安維持를 위한 自治隊 組織등으로 國軍에 協力하였다. 6.25 南侵 當時에는 많은 宗教人들이 이미 6.25 以前에 自由를 찾아 越南하였으며, 아직까지 北韓에 남아 있었던 宗教人들도 強制徵兵을 피하여 은신하였기 때문에 比較的 피해는 적었다.

그러나 中共軍의 參戰으로 戰勢가 逆轉되자 미처 越南하지 못한 宗教人에 대해서 무서운 彈圧이 實施되었는데 그 方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야만적이었다.

그들은 제일 먼저 宗教人 索出에 나서 兇見만 되면 「美國과 韓國의 앞잡이」, 「間諜」이라는 누명을 씌워 人民裁判이나 其他 야비한 方法으로 民衆들 앞에서 그들을 총살하고 家族들을 학대하였다.

1972年 制定된 北韓 憲法 第54條에는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旧憲法 第14條에서 「公民은 信仰 및 宗教儀式 舉行의 自由를 가진다」고 規定해 놓고는 실제로는 宗教抹殺政策을 썼던 바, 新憲法에서는 이러한 것을 法制化할 企圖을 分明히 한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 共產集團은 8.15 解放 以後 宗教에 대한 ① 制限政策, ② 彈圧政策, ③ 抹殺政策 등 3段階를 통하여 1955년까지

불과 10年만에 모든 宗教團體와 宗教儀式을 抹殺하였고 全 宗教人들을 「反動分子」라는 罪名으로 학살하거나 社會性分을 複雜한 群衆으로 分類하여 社會進出을 철저히 가로막고 要監視의 對象으로 迫害를 가하고 있다.

이와 同時에 宗教團體의 財産(土地, 建物)을 全部 沒收하여 이를 託兒所, 幼稚園, 倉庫등으로 使用하고 있으며 寺刹은 休養所등으로 轉用하였다.

이러한 現實에도 不拘하고, 다른 한편 北韓 共產集團은 경우에 따라 架空的인 宗教團體를 急造하여 이를 政治的 또는 外交的 目的에 利用하기도 하는 兩面的 欺瞞術策을 쓰고 있다. 예컨대 「朝鮮基督教徒聯盟」이니 「朝鮮仏教徒聯盟」, 「朝鮮天道教會中央指導委員會」등의 偽裝團體를 만들어 그 이름으로 韓國의 一部 宗教人들과 統一戰線 形成을 摸索하고자 '74年부터 韓國의 宗教政策에 對하여 非難聲明을 내는 등 本格的인 對南宣傳에 活用하고 있는가 하면 對外的으로 國際輿論을 誤導시키는데 狂奔하고 있는 것이다.

歴史的으로도 6.25 以前에는 北韓의 宗教團體를 黨傘下團體로 御用化시켜 南北協商등을 내건 對南非難에 利用하였고, 60年代 金日成 1人體制가 確立되고 南北間의 緊張이 高조된 狀態에 이르러서는 御用宗教團體의 活用價值가 없어지자 이것마저도 없애 버렸다. 그러다가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以後 北傀는 또 다시 유명 宗教團體를 갑자기 만들어 내어 國際的인 宗教會議에 參加시켜 政治宣傳을 일삼고 있는 한편, 世界 左翼界 宗教人들과의 連帶性 摸



索을 빙자하여 이들과 聯合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즉 1974年 11月 印度에서 열린 소위 「아시아 仏教徒 平和會議」參加와 1975年 1月 印度에서 開催된 소위 「아시아 基督教 平和會議」(C.P.C) 등이 그 例이다.

그리고 1976年 7月 日本 東京에서 열린 「第4次 아시아 仏教徒 平和會議」에 北傀의 소위 「仏教徒 聯盟」代表團의 日本 入國을 申請하였다가 日本 政府로부터 拒絶당한 사실도 있다.

더우기 그들이 加入 活動하고 있는 「基督教 平和會議」, 「仏教徒 平和會議」등은 모두가 蘇聯의 操縱으로 展開되고 있는 共產諸國의 御用 사이비 宗教團體에 불과하며, 이로써 北傀는 진정한 宗教團體에는 아예 接近조차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과 같은 現實的 諸 事實로 미루어, 北韓에서는 앞으로도 宗教가 共產主義 思想과 金日成 唯一思想에 害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宗教는 復活될 수가 없는 것이며 宗教活動에 必要的 外的인 與件도 철저히 배제될 것이다.

## 6. 南北韓 文化生活的 比較

### 가. 教 育

#### (1) 教育目標 및 政策方向

韓國의 教育은 「國民教育憲章」精神을 基本理念으로 하고 이 理念을 生活化하며 國家發展과 民族中興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韓國人을 養成하는 것을 基本目標로 삼고 個人의 能力과 創意性을 最高度로 伸張하는 全人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北韓은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鬪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 人間으로 키운다」(北韓憲法 第39條)고 그 基本目標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判異한 基本目標에 따라 韓國의 教育機關은 人格陶冶의 修鍊場인데 비해, 北韓의 各級 教育機關은 이른바 「思想革命遂行을 위한 基本手段의 하나」(金日成,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로서 「革命鬪士」 養成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兵營化되고 勞力場化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北韓의 教育은 진정한 意味의 人間發展이 아니라 靑少年을 集團化하고, 集團勞動化 하며, 集團的 軍事訓練單位化하기 위한 組織化 過程으로서 役割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 教育政策 方向에 있어서 韓國은 國民教育憲章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創造의 힘과 開拓의 精神」을 涵養하며, 「明朗하고 따뜻한 協同精神」을 培養하고, 「스스로 國家建設에 參與하고 奉仕하는 國民精神」을 드높힌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에 反해 北韓의 教育政策 方向은 第5次 黨大會에서 提示된 바와 같이 對南武力赤化統一路線에 積極 參與할 수 있는 소위 「全人民의 革命化와 프롤레타리아」 1黨獨裁體制를 維持하고 「社會主義 建設」에 意欲적으로 參與할 수 있는 이른바 「全人民의 勞動階級化」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 方向은 1977年 9月 北傀 黨 5期 14次 全員會議에서 소위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提제」를 採択함으로써 社會主義 高度의 段階指向에 부응한 長期教育政策 方向으로 確定되고 있다.

이 「教育提제」는 社會主義 教育事業을 원만히 進行시키기 위하여 지켜야 할 原則을 提示하고 있다. 즉 첫째, 教育에서 党性, 勞動階級性을 具現해야 하며 둘째, 教育에서 「主體」를 세워야 하며 셋째, 教育과 革命實踐을 結合하여야 하며, 넷째, 社會主義 國家는 教育事業을 責任지고 組織 進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과 原理는 그들이 말하는 「教育學의 原理」에서도 그대로 表現되고 있다. 즉 「教育學은 새 世代들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키며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 하여 그들을……金日成계 무한히 충직한 革命家, 共產主義者로 教育, 教養하는 原理와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고 規定하고 「教育學의 研究對象은 革命의 根本要求에 依하여 規定된다」라고 闡明하고 있다.

이렇게 教育學의 學問的 性格과 研究對象마저도 革命的 要求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規定하고 強力한 黨의 統制를 가할 수 있도록 組織網을 設置해 두고 있다.

## (2) 教育內容

南北韓의 教育內容이 表面上 知育, 德育, 體育으로 3大分되고 있는 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南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의 相異로 因하여 實際 教育課程에서 나타나는 分野別 教育內容은 全혀 判異하다.

즉 韓國에 있어서의 知育은 真理探究에 基本을 두고 自己 活動에 必要한 知識이나 專門家로서의 基本素養을 기르게 하며 德育은 情緒의 순화와 健全한 道德 倫理觀, 國家觀의 確立을 體育은 個人生活과 社會生活을 즐겁고 보람있게 영위할 수 있는 健康과 體力을 培養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의 知育은 共產主義의 原理原則을 習得케 하고, 德育은 소위 「共產主義 道德品性」을 지닌 「革命鬪士」의 精神을 부식시키며 體育은 「國防體育」이란 表現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軍事力의 強化에 重點을 두는 등 그것은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決定論的 觀點에 따라 教育內容이 構成된 것이며 이 같은 決定論的 原理는 결국 그들이 絶對不變의 真理로 信奉하는 唯物論的 世界觀을 土臺로 하여 그들 특유의 革命的 要求에 따라 設定된 것이라 하겠다.

1977年 「社会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에서 提示된 「社会主義 教育의 内容」을 보면 政治思想教養, 技術教育 및 国防体育으로 区分해 놓고 특히 政治思想 教養을 우선시 하고 있다.

먼저 思想教育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學生들을 主体思想으로 武装시키기 위해서는 党政策教養과 革命傳統教養을 強化해야 하며 이것은 무엇보다 党에 대한 「忠實性」과 金日成에 대한 忠誠心을 키우는데 基本을 두고 進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北韓의 軍事教育을 보면,

첫째, 教育時間에 있어서 大學은 年間 240時間, 高等中學校(高等班)은 年間 120時間으로 다른 科目에 비해 軍事教育에 많은 時間을 割當하고 있으며,

둘째, 組織面에서 보면 大學과 高等專門學校는 準正規軍의 性格을 지닌 勞動赤衛隊의 편제를 적용하여 梯隊單位로 軍事組織化되어 있고 學校黨委員會에서 그 指導와 運營을 掌握하고 있으며 勞農赤衛隊의 年齡에 未達되는 學生(17歲以下)은 「붉은青年 近衛隊」를 組織하여 軍服과 軍帽를 着用하여 AK步銃으로 武装되어 있다.

셋째, 高等中學校 中等班과 人民學校 學生도 模擬AK步銃으로 武装하여 軍事訓練을 받고 있는 實情이며 幼稚園 어린이의 各種 유희 역시 戰爭놀이로 始終되어 있다.

특히 北韓은 1959年3月2日 「學生社会 義務勞動制를 實施할 데 대한 內閣決定 第18号」를 採択한 以後 高等中學校 以上 學生에 대한 社会義務勞動制를 實施하고 있다. 高等中學生은 年間 4~8週, 高等

專門學校 年間 10 週, 大學이 12 ~ 14 週의 義務勞力에 動員하고 있으며, 必要에 따라서는 義務勞動時間에 關係없이 隨時로 動員되어 왔다. 人民學生에 대해서는 規定되어 있지 않으나 農繁期에 少年團을 中心으로 農村支援事業이 組織되어 年間 2 ~ 4 週의 勞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學生 義務勞力動員은 '73年 3大革命小組 活動이 強化된 以後로 더욱 增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73 9月부터 6 個年經濟計劃의 早期達成이란 名目下에 高等中學校 5 学年 以上은 正常修業을 廢止하고 工場, 鉞山, 各種 建設事業場 및 農漁村에서 「現場學習」이란 名目으로 強制勞動에 動員되었던 것이다.

### (3) 學校現況 및 學生活動

<表 17 >에서 南北韓 教育의 學校現況을 살펴보면 學校數에 있어서는 '79年 基準 韓國이 10,421 個校로 北韓의 9,562 個校보다 850 余校가 더 많으나 幼稚園까지 包含되면 北韓이 더 많은 數가 된다.

學生數는 韓國이 1,021 萬名인데 北韓은 그 절반도 못되는 510 萬名(幼稚園, 託兒所 除外)으로 數的 面에서는 韓國이 훨씬 많다.

그런데 北韓은 學生數에 있어서 韓國의 절반에도 未達되는데 學校數에 있어서는 韓國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北韓이 發表한 學校統計 속에 各道別로 設置되어 있는 「共產大學과 郡黨學

<表 17 >

学校・学生・教員数

( 1979年 現在 )

区 分		韓 国	北 韓
学 校 数	幼 稚 園	794	60,000 ( 託児所包含 )
	国 民 ( 人 民 ) 学 校	6,450	4,700
	中 学 校	2,328	4,100
	高 等 学 校	1,409	600
	專 門 ・ 単 科 大 学	206	161
	綜 合 大 学	28	1
計 ( 託児所・幼稚園除外 )		10,421	9,562
学 生 数	幼 稚 園 生	57,430	3,500,000 ( 託児所包含 )
	国 民 学 生	5,640,712	5,000,000
	中 学 生	2,437,272	
	高 等 学 生	1,651,767	100,000
	大 学 生	419,789	
計		10,206,970	8,600,000
教 員 数	幼 稚 園	2,896	
	国 民 学 校	117,290	
	中 学 校	55,344	約 200,000
	高 等 学 校	50,276	
	大 学 校	18,983	
計		244,789	約 200,000

\* 北韓은 学校規模가 작고 分校가 많을뿐만 아니라 現在까지도 人民学校와 高等中学校가 併設되어 있는곳도 있음.

校」 그리고 主要工場, 協同農場別로 設置되어 있는 勞働者들의 補修教育機關인 「工場大學」, 「農場大學」 등 非正規教育機關까지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다. 反面에 韓國은 技術學院이나 專修學院 및 職業養成所등은 이 統計에서 除外되어 있다.

그리고 1979年 現在 教員數는 韓國이 25萬名으로 北韓의 20萬名과 비하면 越等히 많은 수치이나 學生數와 比較할 때 學生 1人當 教員配置率은 北韓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北韓의 경우 成人教育機關에 從事하는 黨員이나 技術者 및 軍事訓練要員까지 教員속에 包含하고 있는데서 나타난 結果이기도 하다.

學生들의 校內活動과 學生組織 狀況을 보면 <表 18>과 같다. 韓國 學生活動은 주로 自發的이고 自願的 組織에 의한 自治活動으로 文化活動, 社會奉仕活動에 參加하고 있는 反面에 北韓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下向的인 系統組織에 의한 政治事業을 통하여 軍事訓練, 思想教養은 勿論 反革命 要素를 적발하고 學生動態를 監視, 統制하는 政治的 中間媒介體가 되고 있다.

#### (4) 教育體系

<表 19, 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南北韓의 形式的인 教育制度面에는 큰 差異가 없다고 하겠으나 內容面에서는 현격한 差異가 있다. 그 몇가지 特徵的인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8 >

主要 学生組織 및 活動

区分	団体名	対象・構成	指 導	活 動
韓   国	어 린 이 회	国民学校 全体 어린이		自治活動：어린이 學習自 律，校外活動，文化活動， 学校規律
	大韓 少年· 少女團	○幼年隊：国民 学校 4 学年 以上の 希望 者 ○少年隊：中学 生中 希望者 ○年長隊：高等 学生中 希望 者	各 学校에 1 名의 指導 教師	品性の 向上，身体發達과 体力增進，有用한 技能体 得，社会에 대한 奉仕
	学生会	中学校 全校生		自治活動：各種 文化，体 育，教養
	学 徒 護国團	高等学校，大学 校의 全校生		학생의 軍事教育，各種 奉仕活動 및 새마을事業


区分	団体名	対象・構成	指 導	活 動
韓 国				参与, 国家非常事態時 社会秩序維持, 救護復旧 또는 地域防衛를 위한 各種 支援 또는 協調
北	少年 团	人民学校 2 年~ 高等中学校 3 年	党员教员가운데서 熱誠者를選出, 市(区域)郡社劳青에서 発令	組織的活動: 共產主義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各種 學習과 課外活動
	붉은 青年 近衛隊	高等中学校 高等班(14~16 歲),		反革命要素적발, 学生軍事訓練 劳農赤衛隊 및 全体 社会团体들의 思想的 質的 向上的 선도적 役割 遂行
韓	社 劳 青	滿 14 歲(高等中 4 年)~滿 28 歲	各 学校社劳 青委員長	党的 후비대로서 訓練을 받는 同時에 党的 政策을 執行하는 <前衛隊> 役割 遂行, 学生的 學習 및 課外活動을 党이 要求하는 方向으로 指導統制

\* 北韓要覽(1977), pp.119~120 參照.

<表 19>

学 制

韓 国	年 齡	北 韓
	30	
	29	
	28	
	27	
	26	
	25	
	24	博士院 (2)
	23	
	22	研究院 (3)
	21	
	20	
專門大 (2)	19	
看護專門 (3)	18	
教大 (2~4)	17	大 学 (4~6) 教員大 (3) 高等專門 (2, 3)
高等学校 (3)	16	
	15	
	14	高等中学校 (6) - 高等班 (2) - 中等班 (4)
	13	
	12	
	11	
	10	
	9	
	8	人民学校 (4)
	7	
	6	
	5	- 上級班 (1) - 下級班 (1)
幼稚園 (1)		幼稚園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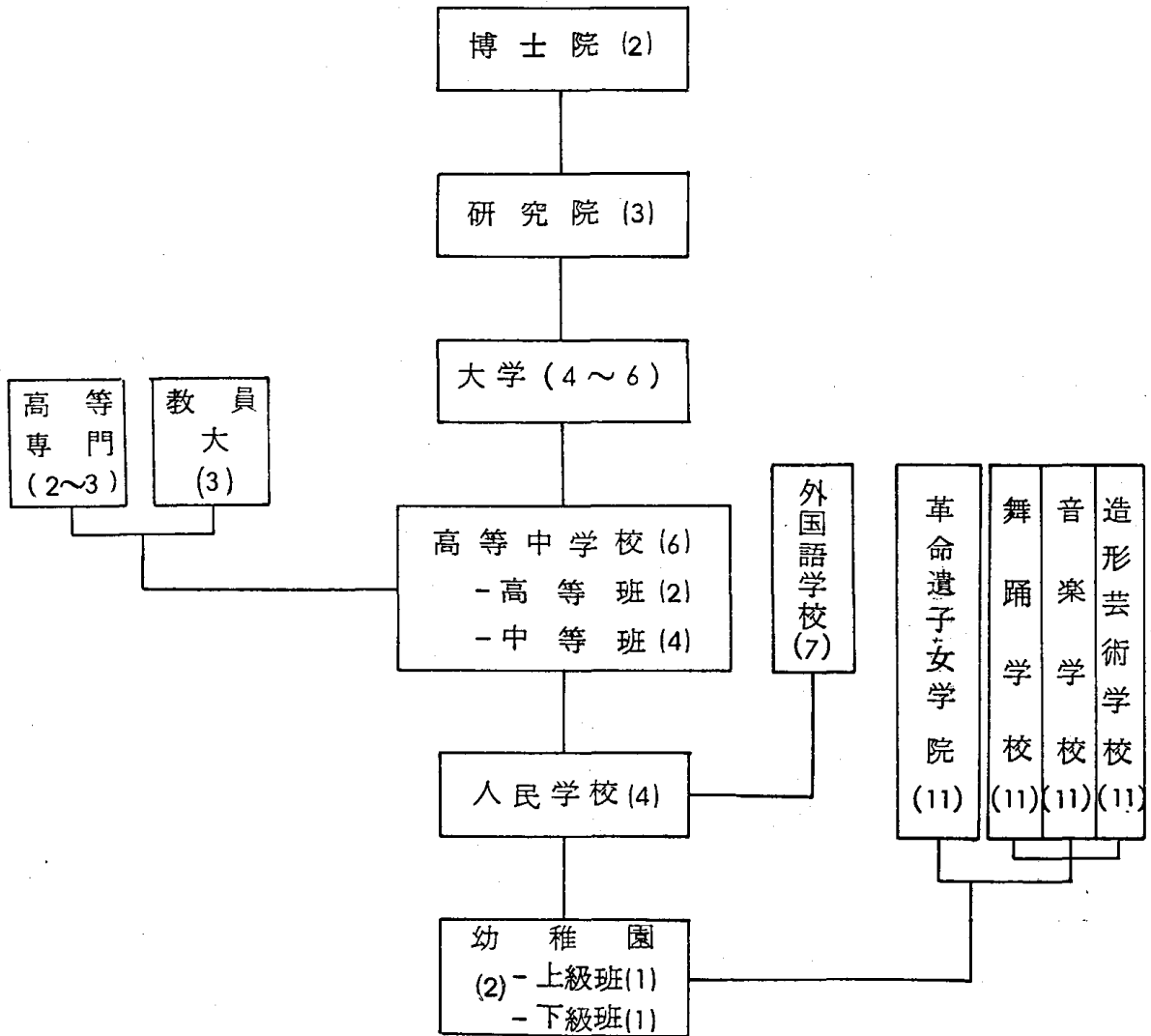
\* 凡例：  内는 義務教育期間임.

\*\* 北韓은 党 5 期 4 次 全員會議 (1972.7) 에서 < 10 年制高中 義務教育과 1 年間學校前 義務教育 > 을 1972 年 9 月부터 段階的으로 實施할 것을 決定.

\*\*\* 北韓은 1975 年 9 月 에 < 11 年制 義務教育 > 이 完全히 實施되었다고 宣傳하고 있으나 實際와는 많은 差異가 있음.

<表 20 >

北韓의 教育体系



첫째,北韓은 幼稚園 教育和 學校前 義務教育을 強調하고 있는 반면에 韓國은 國民學校 期間을 6年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義務教育年限에서 큰 差異가 있으나 이는 社會体制의 基本的 差異에서 연유한 結果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北韓은 初等教育에서부터 黨 幹部層과 特殊兒童을 對象으로 하는 革命遺子女學院 등 特權的인 特殊教育機關을 별도로 運營하여 幹部養成을 위한 差等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一般大衆의 子女들은 이러한 特殊學校에 入學할 수 없다.

셋째, 學校의 設立面에 있어서北韓은 모든 教育機關이 國營으로 되어 있어 學校設立의 趣旨나 目的이 黨이나 政權機關의 政治的 意圖에 따라 劃一化되어 있으나 韓國은 國·公立 外에도 私設財團에 의한 私立學校가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設立者의 趣旨와 目標에 따라 각기 個性있는 教育과 理念이 具現될 수 있으므로 融通性있고 多樣한 人材의 養成이 可能的 것이다.

넷째, 大學에 있어서 韓國은 綜合大學과 單科大學이 高루 地域別로 散在되어 있으나北韓은 金日成綜合大學을 除外하고는 特殊科別 單科大學이며 마치 工場 産業基地의 附屬 技術者養成機關처럼 되어 있어 當該分野를 떠나서는 他 分野에 適應하기 어려운 一面의 人材의 量産을 意圖하고 있다.

예를 들면北韓에는 「水利大學」, 「動力大學」, 「鉸山大學」, 「果樹大學」등과 같은 것이 있어 (韓國에서는 1個學科에서 다루고 있는 分野임) 大學이라는 이름을 붙여 當該地域 産業施設의 技士養

成所 및 職業訓練所와 같은 機能을 担当케 하는 것이다.

#### 나. 言論·出版

言論·出版·報道 등 各種 「매스·미디어」를 통한 表現의 自由는 人間의 基本權으로서 이는 最大한 保障되고 擴大되어야 한다.

이러한 自由를 具體적으로 保障하기 위해서는 이에 要求되는 諸般 要件, 즉 通信社, 新聞社, 放送局, 出版社, 印刷所등을 個人 또는 民間法人이 設立할 수 있고 經營할 수 있어야 한다.

韓國에 있어서 이러한 基本的 權限은 憲法(第18條)으로서 保障되고 있다. 다만 自由民主國家를 建設하고 보다 廣範한 基本權을 保障하는 措置로서 內部分裂과 國民總和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던가 共產主義者들의 戰略戰術에 利用될 素地가 많은 과격하고 지나친 表現은 自律적으로 一部 規制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基本權 自体를 侵害하는 것이 아니라 基本權의 保障을 爲한 中間的 措置인 것이다.

왜냐하면 近代社會에 있어서 어떤 나라를 莫論하고 基本權의 概念은 古典的 意味를 벗어나 自國의 現實에 맞게 調整 適用되고 있는가 하면 國民들도 이를 受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北韓에서는 金日成體制 維持의 基本的 매카니즘(機制)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人間의 基本權이 原初적으로 유린되고 剝奪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表現의 自由는 아예 存在할

수가 없다. 즉 北傀는 모든 「매스 미디어」를 國家가 独占하고 党性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매스콤」行爲도 이를 完全히 封鎖하고 있다.

北韓 憲法 53條에는 「公民은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規定하여 마치 住民의 基本權利인 表現의 自由가 保障된 것처럼 内外에 宣傳하고 있으나 같은 憲法 條項中에도 이러한 基本權 自体를 否定하고 있는 條項들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① 表現의 自由의 窮極目標가 되는 憲法 2條에서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農同盟에 基礎한 全体 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을 規定하고 있으며,

② 表現의 自由의 指導指針이라 할 수 있는 同 4條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적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라고 規定함으로써 思考와 行爲의 劃一性을 強要하였고,

③ 表現의 自由와 關聯되는 施設, 媒體의 個人所有를 一切 不許(國有化)하는 條項을 18條 「生産手段의 國有化」 및 同 19條 「……通信機關의 國家所有」에서 明示하였으며,

④ 表現의 限界로서 同 45條 「……社會主義의 內容을 담은 主体的이며 革命的인 文學, 藝術을 發展시킨다」는 規定등이 그 좋은 例들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表現의 自由란 党的 指導理念에 따라 그 範圍内에서 政權이 主導하는 대로 無條件 絶對적으로 服從하고 忠誠하는 “自由”만이 許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金日成은 「新聞, 雜誌, 書籍같은 出版物이야 말로 党和 大衆을 連結시키는 重要한 手段이며 党이 提示하는 革命課業 實踐을 위해 勞動大衆을 組織動員하는 宣傳·煽動의 道具」라고 規定함으로써 党性에서 離脱한 「매스콤」이란 存在할 수 없음을 明白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北韓에서는 共產主義를 讚揚하고 合理化하는 表現은 無制限하게 強要되면서도 이를 批判하는 것은 바로 「反動」이며 이는 바로 肅清과 彈壓의 對象으로 嚴格하게 統制되고 다스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北韓은 「매스콤」을 独占하여 體制維持에 害로운 情報源을 遮斷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反對的 態度發生을 事전에 封鎖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매스 미디어」의 機能은 集團的 宣傳者, 集團的 煽動者, 集團的 組織者, 集團的 監視者로 一貫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매스·미디어」는 뉴스의 傳達이나 娛樂, 教養手段으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党和 政權機關에 따라 住民을 指導 統制 監視하는 手段으로서의 機能만을 強化하게 된다.

新聞은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党機關紙 「勞動新聞」을 비롯하여 「민주조선」, 「平壤新聞」, 「人民軍新聞」, 「勞動青年」 등 中央과 地方에 모두 30 余種이 있다. 雜誌는 「勤勞者」, 「千里



馬」, 「労働者」, 「朝鮮文学」등을 發刊하고 있으며 主要 出版物로서는 捏造된 內容의 金日成勞作, 革命傳統 등 思想革命과 關聯된 것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表 22 參照>

放送도 新聞·出版과 같이 党的 強力한 思想的 武器로서 機能한다. 放送은 政務院 直屬 中央放送委員會와 그 傘下에 있는 道·市·郡 放送委員會의 一元화된 體制下에서 平壤의 中央放送과 各道所在地의 地方放送局을 設置 運用하고 있다.

放送體系에서 特異한 것은 对内用的 中央放送과는 별도로 对南心理戰放送으로서 <平壤放送>이 設置되어 中央党的 对南工作 部署로부터 統制받아 運營되고 있으며 그밖에 黑色放送으로서 <統一革命党 목소리放送>이 있는데, 이는 1968年 4月부터 <南朝鮮解放放送>이라는 이름으로 放送을 해 오다가 1970年 6月 1日에 그 名稱을 <統一革命党 목소리放送>으로 改稱한 것이다. <表 23 參照>

<表 21 > 北韓의 新聞發行現況

新聞名	發行機關	性 格	主要人物	創刊年月日
로 동 신 문	勞 動 党 中央委員會	勞動党機關紙로 北韓의 立場을 公式表明	責任主筆 : 金基南	1945.11. 1
민 주 조 선	最高人民會 議 및 政務院	政務院機關紙	責任主筆 : 蔡俊炳	1946. 5
평 양 신 문	平 壤 市 人民委員會	大衆的 政治新聞	責任主筆 : 金定煥	1957.

新聞名	発行機関	性 格	主要人物	創刊年月日
로동청년	社 勞 青 中央委員會	勤勞者對象의 宣傳教養 紙	責任主筆 : 김동욱	1946. 4.28
로동자신문	職業總同盟 中央委員會	工場・企業所 勤勞勞動 者 對象의 宣傳教養紙	責任主筆 : 李星洙	1946. 2. 9
조선인민군	人民武力部	人民軍對象의 宣傳教養 紙	責任主筆 : 윤치호	1948. 7
조국통일	祖 國 平 和 統一委員會	統一政策에 關한 對內 外 宣傳紙	責任主筆 : 金翰潛	1961. 5.17
새 날	社 勞 青 中央委員會	靑少年・學生對象의 宣 傳教養紙		1971. 4. 1

<表 22 >

北韓의 教養圖書出版現況

區 分 年 度	金 日 成 勞 作		革 命 傳 統 教 養 圖 書	
	種 類	部 數	種 類	部 數
1960 ~ 1969(1)		3,900 萬		4,550 萬
1971(2)	35	1,402 萬 5 千	81	1,008 萬 1 千
1972	49	1,816 萬 8 千	85	1,130 萬 9 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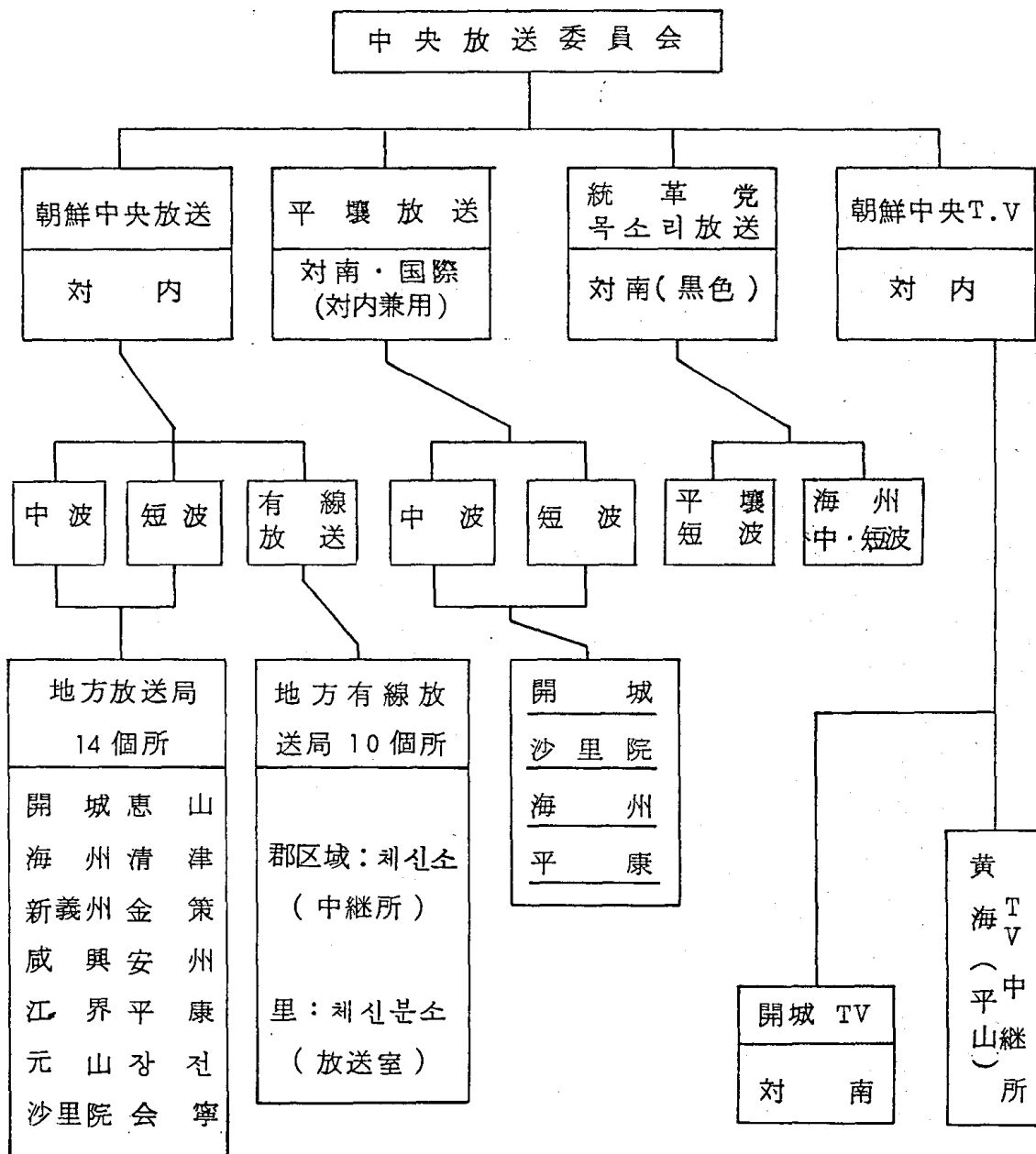
出處: (1) 朝鮮中央年鑑(1971年版), p.275.

(2) 以下 朝鮮中央年鑑(1974年版), p.231.

\* 1972年 1年間の 發行部數가 1960年代 10年間 發行部數  
의 절반에 가깝다.

<表 23 >

北 韓 放 送 網 体 系



出 处 : 国 土 統 一 院 分 析 資 料

<表 24 >

南北韓 放送局 現況

種 類		韓 国	北 韓
라 디 오	中央放送局	8個 ※ (KBS, MBC FM 包含)	2 個 中央 (对内) 平壤 (对南) (对内·外)
	地方放送局	47 個	14 個
	特殊放送局	극 동 방 송 기 독 교 방 송 아 시 아 방 송	統革党목소리放送
T  V	中 央 局	KBS제 1 (10~50kw)(公營U式) KBS제 2 (10~50kw)(公營U式) MBC (10~50kw)(民營U式)	中央 TV : (25kw)(國營O式)
	地 方 局	20 個	開城 TV : (20kw)(國營U式)

TV放送은 1969年부터 正規放送을 하고 있으나 普及率은 극히 저조한 實情이다. <表 24 >

라디오의 경우에도 郡里單位에서는 無線보다 有線放送網이 펼쳐져 있고 全 家口數의 65%에 該當되는 世帯가 有線放送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住民統制가 보다 容易하다는 點에 착안한 것이다.

## 다. 文学 · 芸術

### (1) 文芸政策의 基本方向

自由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文化 · 藝術은 自由롭고도 순수한 內心的 欲求에 의하여 「美」를 創造하고 價値를 追求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韓國의 文芸活動은 이와 같은 一般的 目的을 追求하면서 同時에 우리 民族의 傳統的인 文化藝術을 계승, 啓發시켜 文芸中興을 이룩하고 國民들의 生活을 보다 情緒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重點을 두고 있다. 韓國의 文芸政策 역시 傳統文化의 繼承, 發展과 外國文化의 選別的 受容을 통하여 우리 實情에 맞는 새로운 文化傳統을 主体的으로 發展시키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文芸活動은 黨政策 具現, 共產主義 宣傳, 共產主義 的 人間改造, 勞動意欲 提高 그리고 金日成家系 偶像化등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文芸政策 역시 宣傳과 煽動의 手段으로서 文學과 藝術을 活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基本內容과 方向은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創作方法을 具現하고 「黨性, 階級性, 人民性」의 原則을 고수하며 「思想革命과 文化革命」遂行의 強力한 政治的 手段으로서의 役割을 提高하는데 重點을 두고 있다.

金日成은 第5次 黨大會 報告에서 「文化藝術은 勤勞者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育하며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데 큰 役割을 맡고 있기 때문에 勤勞者들을 共產主義 世界觀으로 武裝시키기

위한 革命的인 作品을 더 많이 創作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力說한 바 있다.

또 1977年 採択된 「社会主義憲法」(第3章 35~48条)의 規定에 의하면 文化政策의 基本方向은 「社会主義的 民族文化를 全面的으로 發展시키고」(第35条), 「国家는 社会主義文化 建設에서 帝國主義의 文化的 浸透와 復古主義 傾向을 反對하며」(第37条), 「民族的 形式에 社会主義的 內容을 담은 主体的이며 革命的 文化藝術을 發展시킬 것」(第45条)을 強調하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 文芸人들은 共產政權의 侍女가 되어야 하며 「革命的 作品」을 통해서 낡은 思想과 復古主義的 生活樣式이 발붙일 수 있는 사소한 틈」마저도 없애는데 專念해야 한다.

## (2) 創作活動

韓國에서 作家·藝術人들은 創作活動에 있어서 原則적으로 如何한 形態의 干涉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政府의 文芸中興政策에 따라 創作活動에 必要的 資金과 資料의 支援을 받게 된다. 韓國에서는 創作意欲을 높이고, 新人發掘을 위한 「藝術人賞」을 비롯한 各種 文化賞이 마련되어 創作活動에 더욱 精進할 수 있는 与件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에 反하여 北韓에서는 作家, 藝術人들은 自由職業人들이 아니라 共產政權에 雇傭된 宣傳要員으로서 存在하며 이 때문에 그들은 철저한 「党的統制」下에 計劃的인 作品活動에 從事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作家·芸術人들의 創作活動은 다음과 같은 特異點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北韓의 文芸活動은 첫째, 이른바 「民族的 形式의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革命的인 것이어야 한다」(北韓憲法 第 45 條)는 「슬로우전」 밑에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立脚한 描写方法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 具體的 內容은 金日成의 「業績」과 「덕성」, 「革命傳統」, 「革命的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鬪爭」, 「祖國解放戰爭, 社會主義 建設, 祖國統一, 國際革命 力量과의 連帶性」(北韓 政權樹立 30 週紀念 文芸作品 募集基準), 그리고 階級鬪爭을 위한 教養, 黨政策宣傳을 위한 思想性的 具現 등 純粹藝術의 追求보다는 目的 意識的 思想教養의 表現으로 일관되어 있다.

文芸作品 創作에서의 主題別 比率을 보면 1964年 11月 <文學·藝術部門 일군들> 앞에서 한 金日成의 <敎示>에 따라, 社會主義 建設과 革命鬪爭에 관한 것을 各各 5對5로, 其中 革命鬪爭에서는 北韓 것을 4, 南韓 것을 1로 配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1960年代 後盤期부터는 金日成 個人에 관한 것과 <革命傳統>을 內容으로 하는 主題 選定에 더 큰 比重을 두고 있다. 이것은 1975年 「黨創建」 30周年을 記念하기 위해 서 全國 文學·藝術 小組員들이 發表한 作品의 主題別 比率을 보면 알 수 있다. <表 25 參照> 즉 北韓의 文芸活動은 美의 創造보다는 黨政策의 宣傳煽動에, 創作보다는 模造에, 藝術性이 아니라

<表 25> 北韓의 文芸小組員의 發表作品의 主題

主 題 別	比 率 ( % )
金日成과 党中央 ( 金正日 )	217 편 ( 42.7 )
党 과 革 命 伝 統	53 편 ( 10.3 )
經 濟 建 設	183 편 ( 36.2 )
南 朝 鮮 革 命 과 祖 國 統 一	55 편 ( 10.8 )

思想的 表現에 主力하게 되는 것이다.

「社会主義的 写実主義」創作方法이란 1932年 1月 蘇聯 共産党 17次 大会에서 採択된 것으로 共産圈 文学芸術의 創作의 基本原則 이며 方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方法에 의하면 作品속에 나타 나는 事件의 過去나 現在를 描写하되, 事件 自体의 眞實이 아니라 創作方法의 하나인 虛構性을 利用하여 반드시 階級的이며 革命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文芸人들은 「作品 製作을 現地에서 한다」는 原則에 따라 工場, 鉸山, 建設場, 農漁村등에서 直接 일하면서 群衆을 党 주위에 集結시키는 煽動要員의 役割도 兼하게 된다.

셋째, 모든 作家, 文芸人들을 「朝鮮文学芸術總同盟」에 망라시켜 團體的 壓力을 가함으로서 創作生活을 統制, 監視한다.

그들은 「集團的 創作」을 義務化하고 複數의 人員에 의한 共同 製作을 위주로 하며 個人의 意圖가 아니라 集團, 즉 党的 意圖가



反映되도록 努力하는 同時에 모든 正盟員들에게 主題別 作品 製作 責任量이 定해져 있어 主題 選擇權마저 없는 것이다.

네째, 北韓의 文芸活動에서 보다 重要한 것은 소위 「芸術小組」의 運營이다.

「芸術小組」는 地域別 各 工場, 企業所, 協同農場 등 生産職場別이나 部隊別, 學校別, 機關別로 広範圍하게 組織되어 1979年現在 北韓 全 地域에 무려 11万2千個에 달한다.

이들 小組는 作業中 休息時間을 利用하여 音樂, 舞踊 등 公演活動을 벌이며 이들 公演을 통해 金日成 偶像化 및 黨政策을 宣傳하고 勞動意欲을 高취하는 使命을 띠고 있다.

### (3) 民族文化의 傳承啓發

韓國은 民族的 正統性を 繼承, 發展시키기 위하여 文化芸術振興計劃을 根幹으로 民族文化의 保存과 創造的 啓發을 圖謀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한 主体的 民族史觀의 定立, 民族 固有의 民俗芸術 發掘과 育成, 文化財 保護 및 管理의 徹底化, 郷土文化의 均衡的 發展 등 諸對策을 講究하고 古典國詠 및 國詠者 養成, 全國民俗競演大會, 地方文化院 支援 등 諸般事業을 推進, 發展시키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民族文化 遺産을 根本적으로 破壞하고 있다. 表面上 北韓에서도 民族文化를 云謂하고 있으나 實際로는 그들이 말하는 民族文化의 概念은 전혀 다른 意味를 가진 것이다. 즉 그

들은 歷史主義에 의한 것이 아니라 階級鬭爭의 原則에 依拠하여 民族文化를 그들의 政治目標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 合理化하고, 現体制와 特定人의 存在를 文化史的 側面에서 正当化한 것이며 「唯一思想」學習을 目的으로 하는 소위 「社會主義的 民族文化」만을 그 범주속에 넣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은 民族文化 遺産의 傳承에 있어서 까지도 이를 그들의 政治目標과 現實에 맞게 批判적으로 改造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傳統文化는 歪曲, 抹殺되어 個人偶像化 体制의 永続화와 對南 赤化의 手段으로 轉落하고 있다. 그 事例를 몇가지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① 古典評價에 있어서 그들은 階級鬭爭의 側面만을 一方的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부전」을 搾取階級과 人民間의 對立鬭爭이라고 解釋하여 大的으로 普及하고 있으며, 「洪吉童傳」을 封建的 身分制度에 反對하는 農民의 봉기를 描写한 것이라고 解釋하고, 春香傳의 경우에도 이도령의 存在를 無視하고 방자와 春香母, 春香의 順으로 重要性을 強調하여 이 小說이 마치 階級鬭爭을 描写하는 것처럼 脚色하고 있다.

② 가야금 줄을 從來의 13줄에서 18~19줄로 만들어 「千里馬時代에 사는 朝鮮人民에 부합」되게 한다는 口實을 내세워 音量을 늘려 變造하였다.

③ 國樂의 踏음은 「搾取階級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구실을 불

여 탁음을 없애고 淸音만을 使用하게 하였으며 관소리는 「사람을 흥분시키지 못하고 鬪爭으로 煽動하지 못한다」는 理由로 禁止시켰는가 하면 南道唱은 「옛날 양반들의 노래곡조」라고 하여 濁音이 들어가지 않게 變曲하였다.

④ 美術에서는 우리 民族의 傳統的인 水墨畵를 禁止하고 彩色畵만을 許容한 나머지 山水畵가 없어진 반면 庶民生活을 그린 風俗畵를 強調하고 있으며 仙敎美術은 아예 木살하였다.

⑤ 舞踊의 境遇, 옷차림은 固有衣裳을 하고 民俗舞踊의 形式을 취하되 基本動作과 律動方法 그리고 速度등을 變質시켜 소위 「戰鬪的인 內容」을 表現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歌劇 「피바다」, 「꽃파는 처녀」등에서 나타난 舞踊 形式은 肉體의 아름다움이나 律動美를 表現한 것이 아니고 힘과 規模와 組織을 誇示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⑥ 金日成 銅像을 비롯한 「革命傳統」의 內容을 強調하기 위한 彫刻을 보면, 6.25 南侵後에는 人民軍을 英雄化하는 銅像이 대부분 이었고 60年代 以後는 千里馬 銅像이 主流를 이루는 한편 金日成의 銅像은 北韓 全域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밖에도 金日成 家系를 偶像化하기 위한 「金亨權」(金日成의 三寸), 「金亨稷」(金의 父), 康盤石(金의 母) 등의 銅像을 革命의 심볼로서 추종하기를 強要하고 있다.

특히 歷史的인 古蹟地를 헐어버리고 金日成 家系의 소위 「革命

史蹟地」로 改造하였다는 사실은 代表的인 傳統文化的 抹殺이라 하겠다.

이렇게 하여 北傀의 基本的 文芸活動은 共產社会 建設을 위해서는 民族文化 芸術의 正統性을 抹殺하여야만 된다는 反民族的 歷史意識이 그 밑바닥에 뿌리 깊히 박혀 있다. 이와 같은 文芸政策으로 인하여 北韓 住民 특히 戰後世代들은 社会主義体制下的 文物과 人間만이 革命的, 肯定的 存在라고 認識하고 있는 반면 民族固有의 傳統的인 制度와 文物은 퇴폐적 否定的인 것으로만 認識하는 편파적인 意識構造를 形成시켜 놓았으며 芸術性的 創作보다는 思想的 表現에 치중하고 있어 社会的 性格은 情緒性和 人間美를 상실한 非妥協的이며 鬪争的인 意識으로 誤導되고 있다는 點은 注目되는 사실이다.

#### 라. 言 語

言語學에 있어서 言語의 概念을 어떻게 定立할 것인가 하는 것은 言語의 性質과 本質을 어떻게 理解하고 規定하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韓國은 言語를 音聲 또는 文字로써 人間의 思想이나 感情을 傳達하는 手段으로 보고 서울에서 現在 中流階層이 使用하고 있는 말을 標準語로 定하고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言語의 本質에 대하여 그것은 社会的 절실한 必要에 따라 創造된 社会的인 現象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思

想 交換의 必要에서 生成되었고 社会 밖에서의 言語는 存在하지 않으며, 「言語는 社会存在의 全時期를 통하여 作用하는 社会的 현상중의 하나」(스탈린)라고 한다. 이에 따라 金日成은 言語의 定義와 社会的 性格에 대해서,

① 「사람들의 交際手段, 思想交換의 手段으로서 自然과 社会를 變革하는 사람을 教養, 改造하는데 힘있는 武器」

② 「革命과 建設의 모든 分野에서 大衆을 革命鬪争으로 불러 일으키는 組織動員의 武器」

③ 「民族的 自負心과 階級意識을 높여주는 思想教養의 武器」

④ 「社会主義 民族文化를 南朝鮮革命 發展段階에 맞추어 浸透시키는 武器」라고 풀이하고 言語의 政治的 手段性を 強調하고 있다.

이런 側面에서 北傀는 지금까지 소위 「民族語의 發展」이라는 方針을 憲法과 「党基本文獻」에다 規定하고 「文化語運動」이란 口號아래 「言語에서 事大主義, 復古主義, 부르조아 要素를 없앤다」는 소위 「언어정화사업」을 強行해 왔다. 특히 北傀 勞動黨 5次大會에서 決定된 言語政策 中에는 住民들의 思想改造의 手段 및 階級鬪争과 革命意識을 높이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效果를 더욱 高揚할 것을 強調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는 人間의 純粹한 感情과 思想을 傳達하는 言語마저 「革命과 建設의 強力한 武器」로 規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말의 標準性を 否認하고 「文化語」라고 쓰고 있다.

즉 金日成은 「우리 革命의 全般的인 戰略과 戰術이 세워지는 革命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平壤을 중심으로 하고 平壤을 基準으로 하여 言語의 民族的 特性을 保存하고 發展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前提하고, 「標準語라는 말은 마치도 서울말을 뜻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理解할 수 있으므로 文化語로 고쳐 쓰도록 하라」고 指示하면서 平壤말의 標準化를 試圖하였다. ( '66. 5.14, 「朝鮮語의 民族的 特性을 올게 살려 나갈데 대하여」, 金日成演說 )

그리고 '66年 6月에는 「조선말 規範集」이라는 것을 조작함으로써 「革命的, 戰鬪的 呼訴性이 높아진 文化語」를 本格的으로 新造, 使用했다.

즉 「서울말은 標準말이 아니라 女子들이 男子들에게 아양떠는 코맹맹이 소리이다」라고 非謗하고, 『民族語는 平壤을 中心으로 發展시켜야 하며 이를 「文化語」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불벼락을 안겨주다」, 「일떠서다」, 「까밭히다」, 「아글타글」, 「천날전투」, 「1211강철고지」, 「주체형의 맑은 피」, 「6個年計劃 總突擊戰」등 理解하기 어렵고 煽動的인 어휘를 代表的 通常語로 내놓았다. 이로써 한글이 지닌 特性의 하나인 情緒와 純粹를 송두리째 抹殺시켰으며 平和를 愛護하는 民族의 同質性을 破壞하려 한 것이다. 「외롭다」, 「덧없는 인생」, 「애답다」, 「짚신」, 「오막살이」등 5千萬 民族의 血脈에 이어진 情趣어린 어휘를 使用하면 「反動的 물을 닦아낸다」고 하여 「교양학습」을 받도록 했다. 그 대신 「협동벌」, 「보람차다」, 「천리마시대」, 「우

람차다」, 「닭공장」, 「공훈광부」등 集体性を 풍기는 말만 골라 써야 思想的 의심을 받지 않고 제대로 배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南北韓에서는 같은 말을 使用하여도 뜻은 전혀 달라하거나 서로 理解할 수 없는 言語 또는 같은 뜻을 지녀도 表現方法이 다른 言語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例를 들면 北韓에서는 「主体性」이란 用語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正確한 適用」이란 뜻으로 解釈되고 「帝國主義」라는 말은 「独占資本主義」라는 뜻으로 使用되고 있다.

그리고 形態는 다르면서 뜻이 같은 單語로서, 「無秩序하다」는 말을 北韓에서는 「무연하다」라고 하고, 展示物을 「직관물」, 「술선수법」을 「以身作則」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또한 形態는 같으면서 뜻이 다른 境遇도 있는데, 예컨대 아버지라고 할 때, 韓國에서는 親父母를 말하나 北韓에서는 金日成을 가리키고 있으며 「아가씨」라는 말을 北韓에서는 封建社會의 殘滓用語로 取扱하는가 하면 韓國에서는 「빨치산」이라는 말이 共產계렬라를 뜻하나 北韓에서는 革命的 英雄을 뜻한다.

여기서 그 代表的인 몇가지 낱말들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요해」(了解: 이해) 「지어」(심지어), 「갈매흙」(감탕흙), 「거름달구」(거름을 실어 나르는 달구지), 「부하」(임신), 「똥다리쇠조막」(작은쇠조각), 「군사칭호」(계급), 「굴간」(터널의 길이), 「굽인돌이」(강이 굽이치는 곳), 「남조선 달리기」(장애물 육상경기), 「뜰뜰하다」(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하다), 「담새기다」(새 차게 때

리다), 「만가동만부하」(滿家動滿負荷: 기계의 공칭능력을 전부 발휘한 상태), 「무등」(무적), 「무으다」(조직하다), 「발가지다」(폭로되다), 「비날론」(화학섬유), 「사래」(이랑), 「선행관」(앞질러 責任量을 遂行하는 觀點), 「성수」(成遂: 수행), 「뽐」(뽐), 「빈포기누비기」(補植), 「수겨 수겨」(말없이 일하는 형용), 「쪽잠」(잠시동안 자는 잠), 「에돌다」(선뜻 나서지 않고 슬슬 피하다), 「추어전」(追魚戰: 고기잡이), 「칼바람」(매운바람), 「포치사업」(인원 자재를 미리 配置하는 作業), 「풍막」(움막), 「헤가르다」(헤쳐나가다), 「후치질」(가볍게 발이랑 사이를 가는 발갈이)……이들 가운데 함경도 사투리가 많은데 이는 金日成이 間道地方에서 배운 말들이며 金日成이 使用하기 때문에 「民族文化語」로 둔갑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한편 「怨讐」를 「원수」라고 고쳐 「祖国과 人民을 反對하며 革命偉業에 항거하는 反革命分子」라고 定義하고, 「원수」는 「元帥」의 意味로 金日成 1人에 대한 敬稱助詞로 固定했다. 이를 비롯, 金日成을 돋보이게 하고 修飾하는 아침 語句들이 두드러지게 發展했다.

이렇듯 民族的 同質性 維持를 위한 強力한 手段인 우리의 言語가 北韓 共產集團의 그릇된 言語政策으로 점차 다르게 變質되어 使用됨으로써 單一民族의 成立要件이 되는 言語마저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言語의 階級性을 否認하면서도 그 使用에 있어서 階級鬭爭의 效果를 높이라고 強調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言語는 思想傳達의 手段이기도 하나 인정과 情緒의 表現으로서의 機能은 점차 상실되고 있다. 그러므로 南北關係에 있어서 言語障壁은 점차 심



각한 狀態에 이르고 있다.

#### 마. 國史解 釋

南北韓에서는 歷史, 특히 우리 民族史에 관한 解 釋을 서로 달 리함으로써 民族的 同質性 回復에 또 다른 난관을 造成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主体的 民族史觀과 歷史主義 原則에 立脚하여 過去와 現在에 이르는 우리 先祖들의 生活記錄을 根拠로, 民族史를 解 釋하 고 理解하는데 反하여 北韓에서는 民族史를 소위 「党性의 原則」 위 에서, 階級鬪爭史의 見地, 즉 勞動階級의 立場에서 解 釋하고 理解 해야 한다고 強調한다.

따라서 韓國에서는 우리 先祖들이 이룩한 빛나는 業績과 傳統을 繼承, 發展시키고 歷史的 諸事實들을 民族中興의 基盤이로써 하나의 教訓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唯物史觀과 階級鬪爭史를 合理化하는 部分은 史實로서 認定하되 그렇지 못한 것은 여기에 맞게 修正, 歪曲하기 때문에 民族史는 歷史主義의 原則에 의거한다고 主張하면서도 「党 性의 原則」을 強調하는 나머지 現在의 政治的 偏見으로 過去를 解 釋함으로써 결국 非歷史主義 立場에 빠지고 있다.

그러면 北傀가 歪曲·修正하고 있는 民族史의 主要 內容은 무엇 인가?

• 첫째, 韓國에서는 우리 民族史의 全體의 흐름을 民族史的 正統性 이 定立되고 繼承·發展되어 온 過程으로 把握한다면 北韓에서는 現在의 共產主義 獨裁體制와 金日成이라는 한 個人의 出現을 合 理化하는데 重點을 두고 民族史를 解 釋하고 있다.

둘째, 韓國에서는 民族史의 學習과 研究를 통하여 民族精神을 이  
어받아 올바른 民族史觀을 定立함으로써 民族中興의 精神的 座標를  
設定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면 北韓의 경우는 金日成 偶像化와  
1人独裁의 永続化에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 民族史의 時代区分에 있어서 韓國은 古代, 中世, 近世,  
最近世 등 보편화된 原則에 의거하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唯物史觀  
의 소위 「經濟發展 5段階說」에 基礎하여 原始共同社会(原始史),  
奴隸社会(古代史), 封建社会(中世史), 資本主義社会(近代史), 共產  
主義社会(最近代史)에 따라 歷史를 人爲적으로 조작, 이에 適用시  
키고 있다.

이와 같은 機械적인 適用에 따라 北韓에서는 原始史를 先史에서  
부터 紀元前 5世紀까지, 古代史는 紀元前 5世紀부터 紀元前後 즉  
古朝鮮, 扶余, 辰国(三韓)등의 存立時期를 이에 該당시키며, 中世史  
는 紀元前後의 時期로부터 19世紀 前半期 즉 三國의 成立으로부터  
朝鮮朝 末期의 開港前까지 近世史는 開港後부터 8.15 解放까지  
最近世史는 8.15 解放後의 時期를 該당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古朝鮮, 扶余, 三韓등의 社会를 奴隸社会로 단정함  
으로써 이를 民族史의 古代에 該당시키고, 三國時代로부터 19世紀  
前半까지를 封建社会로 단정하여 中世로, 그 後를 資本主義社会로  
단정하여 近代史로 하는 등 제멋대로 韓民族史를 造作, 捏造시키고  
있다.

네째, 우리 民族의 形成時期를 唯物史觀의 民族概念에 따라 捏造  
된 소위 金日成 抗日빨치산 鬪争의 時期로 보는 北韓은 우리의  
近代的인 民族史를 60余年史로 短縮시키고, 金日成의 祖上들이 큰  
民族運動이나 한 것처럼 造作함으로써 家族史, 즉 족보와 같은 것

으로 歪曲 格下시키고 있다.

다섯째, 우리 民族의 獨立運動史 특히 1930年代 以後의 歷史를 金日成과 그의 심복 部下들의 「鬪爭史」로 捏造하여 愛國先烈들을 모독하고 있다.

예컨대 3.1運動은 民族代表 各階各層 33人이 中心이 되어 獨立宣言文을 作成 朗誦하고 세계 萬방에 宣布한 純粹한 抗日民族運動임에도 불구하고 北韓에서는 3.1運動에 대해서 蘇聯의 10月革命의 影響에서 일어난 運動이라고 規定하고 있는가 하면 「國民會」라는 것을 조작하여 3.1運動을 促進시킨 原因이었다고 主張한다.

또한 8.15解放에 대한 解釋에 있어서도 엄연히 우리 民族의 獨立鬪爭과 聯合軍의 勝利에서 얻어진 結果인데도 不拘하고, 金日成의 抗日鬪爭으로 얻어진 結果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더우기 1950年代에서는 蘇聯을 「解放의 恩人」이라고 치켜 세웠다가 1970年代에 와서는 이를 번복하여 8.15解放은 金日成의 抗日鬪爭으로 얻어진 所産이라고 規定하였는가 하면 6.25動亂을 가리켜 祖國解放戰爭의 偉大한 勝利라고 捏造하여 大家的 英雄心理를 자극하는데 最大로 利用하고 있는 點등은, 그들의 歷史 捏造가 얼마나 組織的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史實과 歷史的 人物評價등에 있어서 北韓 共產集團은 우리 民族史를 그 原形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修正·歪曲하였다.

#### 바. 傳統文化와의 葛藤

以上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北韓에 形成되고 있는 文化는 우리의 傳統文化와는 거리가 먼 性質의 것이 되었고 앞으로 韓國의

文化와는 더욱 거리가 먼 性質의 것으로 변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北韓에 形成되고 있는 文化가 우리의 傳統文化와 어느 정도 異質化되고 있을 것인가에 關心이 集中된다. 여기서 北韓이 公式的으로 試圖하는 社會主義 文化內容과 우리의 傳統文化를 分析하여 兩者間의 葛藤相을 評價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階級敎養과 革命傳統敎養은 傳統文化와는 전혀 다른 異質的 要素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은 우리의 歷史를 階級間의 鬪爭過程으로 說明하려 하고 階級鬪爭意識을 強調하고 있으나 우리의 傳統은 平和愛護精神과 妥協 相扶相助의 精神으로 平和와 秩序를 維持해 온 社會이다. 그리고 北韓은 革命的 世界觀을 提示하고 있으나 우리는 自然, 社會, 人間의 調和를 理想으로 하는 人本主義的 傳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傳統文化와 正面으로 衝突하는 異質的인 社會主義文化를 北韓 住民에게 注入하려는 北韓의 努力은 앞으로 많은 制約性과 限界性을 면치 못할 것으로 豫想된다.

둘째, 集團主義를 主張함으로써 個人의 犧牲을 要求하고 集團과 全體의 利益을 優先視하며 集團英雄主義를 讚頌하면서 公式組織의 規律性을 強調하고 있으나 北韓 住民들 사이에는 家庭과 家門, 그리고 地域社會內에 自生하고 있는 非公式的 規範을 優先視하고 個人의 利己的 性向과 個人英雄主義的 性向은 아직도 內面的 精神世界를 支配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後者의 性向이 오히려 우리의 傳統的 性向에 가까운 特性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傳統的 性向으로 因하여 北韓이 強調하는 集團主義는 變質되거나 아니면 그 意圖하는 效果를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共產主義道德」에서 強調하는 財産의 共同所有意識, 公共財

産의 愛護, 黨과 組織에의 忠誠意識, 平等意識等은 私有財産에 대한 愛着, 家門意識, 男女有別, 長幼有序等の 傳統的 價值觀과 一致하지 않는 内容들이다. 이러한 不一致로 인하여 北韓이 公式적으로 強調하는 思想改造와 生活樣式의 改革은 크게 沮害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特히 土地를 비롯한 私有財産을 沒收하고 集團勞動을 強要해 왔으나 共同所有 意識이 高揚되지 못하고 集團勞動에 臨하는 姿勢가 消極的이어서 生産実績이 低調해지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예컨대 個人 耕作地를 每家戶당 몇 坪씩(30坪 以內의 터밭) 割당한 結果, 共同生産量보다 많았다고 하는 實例는 共產主義 敎化의 效果를 疑心하게 하는 結果라 할 수 있다.

네째, 北韓이 根絶해야 할 것으로 強調하는 反動的 思想과 낡은 慣習은 傳統的 價值觀과 傳統的 習慣과 結付되어 있어 쉽게 없앨 수 없는 内容들이다. 「家族主義」, 「個人主義」, 「地主」, 「資本主義」, 「封建的 儒敎道德」等은 北韓이 根絶해야 한다고 強調하는 要素들이다. 그러나 血肉意識, 人情과 相扶相助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社会關係의 紐帶意識, 儒敎的 秩序意識, 相互依存心理等の 傳統的 價值觀과 生活樣式으로 인하여 새로이 強要하는 社会主義的 價值觀과 生活樣式을 受容하는 過程에서 적지않은 葛藤이 惹起되고 있다 하겠다.

## 7. 南北韓 社會問題의 比較

### 가. 社會的 逸脫行爲

社會文化 生活은 反復的 持續과 力動的 創造, 그리고 理想的 目標과 現實的 條件 등 諸側面의 均衡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側面은 항상 相互補完 내지 重疊關係에 의하여 調和的으로 並存하는 것이 아니라 歷史的 變動 과 더불어 不均衡이나 不一致의 樣相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近代歷史의 社會變動은 觀念的으로 생각하는 理想的 共產主義와 經驗的으로 展開되는 現實的 共產主義 사이에 현격한 懸차가 內在한다는 點을 부각시켜 주었다. 이러한 前提는 특히 社會的 逸脫問題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 즉 理想的인 共產主義社會에서는 存在할 수 없는 犯罪, 少年非行을 비롯하여 反抗運動, 人間疎外, 大衆化現象, 官僚主義, 形式主義, 機會主義, 「부르조아」思想,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등이 現實的 社會問題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以外에도 「北朝鮮 刑法」에서 規制하고 있는 各種 刑事法의 內容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國家 主權의 紊亂罪를 비롯하여 國家管理 侵害, 國家所有 侵害, 人身侵害, 公民財產 侵害, 勞動法令 違反, 公務上 犯罪, 經濟犯, 社會安全 및 人民保健 侵害, 軍事上 犯罪등을 規定해 놓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끈질긴 努力에도 不拘하고 解決되지 못한 채 그대로 殘存하고 있는 하나의 實例에 불과하다. 北韓 社會에서 빈발하고 있는 犯罪類型을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身侵害에 관한 犯罪行爲가 특히 많다. 즉 靑年들의 暴力事件, 女性의 社会進出과 戀愛, 結婚에 대한 党的 統制등으로 빚어지는 파렴치범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行爲가 党 幹部와 協同農場의 幹部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北韓의 体制的 矛盾을 反映하는 証拠가 된다.

둘째, 經濟犯에 속하는 行爲가 많다. 制度上으로 私有財産制가 撤廢되고 個人의 企業活動이 全面的으로 禁止되었다고는 하나 人間의 所有欲이 消滅되는 것은 아니며 더우기 衣食住가 제대로 充足되지 못하는 実情이고 보면 物慾充足을 위한 逸脫的 衝動이 불가피한 것이다.

國家財産의 橫領 및 管理 疎忽을 비롯하여 절도, 糧穀의 暗去來 및 橫領, 品貴商品의 不正流出, 虛偽報告에 의한 약취, 不當利得의 착복등이 發生하고 있다.

세째는 政治犯, 思想犯이 높은 比重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表 26>에 의하면 1960年以後 越南한 歸順者中 62名을 選定, 이들에게 越南直前 自己 周邨에서 發生했던 犯罪事件으로서 記憶에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을 15~20件씩 진술하도록 하여 이를 類型別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947件은 朝鮮勞動黨이 소위 犯罪로 規定하여 処罰한 事件基礎 資料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中에서 思想不純으로 処罰된 事件이 320件으로 제일 많고, 性犯罪는 179件으로 그 다음이며, 政治的으로 뚜렷한 犯罪가 된다고 認定된 犯罪, 즉 政治犯이 109件이고 또 주로 政治的 理由로 脫出을 기도했다가 失敗한 脫出犯도 79件이나 되었다. 여기서 性犯罪를 除外하고는 其他의 260件도 党的 課業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政治思想犯에 該当되는 것은 全体 不滿事件中 768 件으로 81.1%나 차지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調査結果는 한가지 事例에 不過한 것이지만 이는 共産党的 橫暴와 一人独裁를 維持하는데 障礙가 된다고 認定되는 者들을 모조리 政治犯으로 몰아 치우는데서 結果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共産主義에 反對하여 体制에의 反抗心を 갖고 体制離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이 資料는 暗示해 주고 있다.

즉 韓國에 있어서는 犯罪가 經濟의 急速한 發展과 社会關係의 複雜性에 起因하는 면이 있는데 反하여 北韓에서는 金日成 体制의 矛盾과 政治思想的인 면에서 불만이 많고 이에 따라 犯罪도 增加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現實과 關聯해서 共産主義者들은 犯罪와 反社会的 行爲가 根絶되지 않는 原因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說明하

<表 26 > 北韓의 犯罪類型 및 處理現況

犯罪種類	件 數	全体比率 (%)	備 考
思想不純	320	33.8	確信犯이 아님
性 犯 罪	179	18.9	
政 治 犯	109	11.5	確信犯
脫 出 犯	79	8.3	確信犯(政治的 自由)
其 他	260	27.5	
計	947	100.0	

資料：国土統一院，北韓住民 不滿要因分析(1972.9)



고 있다.

첫째, 그들은 소위 「自由世界」의 매력에 대한 宣傳과 個人主義的 見解의 轉과가 사람들에게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다.

둘째, 社会的 逸脫을 父母의 責任으로 돌리고 있다. 標本調査에서 얻어진 資料에 의하면 少年非行 事例의 80%는 父母들의 放任과 關係가 있다는 立場이다. 더우기 放任의 모든 事例는 兩親의 責任을 다하지 못한 데에 原因이 있다.

不完全 家族에서 자란 靑少年의 違法 比率은 完全家族 (統制集團)보다 20~50%가 높다. 이것은 大部分의 경우 片親으로써 아이를 충분히 監督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理解할 수 있다.

形式的으로는 家族이 完全하면서도 兩親의 一方이 病席에 있다는가, 長期間의 出張 혹은 特殊한 勞動條件 때문에 不完全 家族과 같은 狀況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社會主義 社會의 家族은 基本的으로 兩父母가 다 함께 勞動하는 家族이다.

勞動場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아이들의 行動을 監督하고 養育하는 機能을 그만큼 마비시키는 結果가 된다. 이는 또 아이들에 대한 父母의 影響力을 減少시키는 結果를 가져온다. 靑少年의 퍼스낼리티를 人間的으로, 또 道德的으로 주로 發達시켜 주는 것은 家族의 분위기이며 그것은 後世代로 하여금 “理想的인 成人”의 模範을 마음속에 지니게 되고 그 家族이 社會에 대하여 이룩하여 온 態度로부터 成立된다. 따라서 兒童教育에 대한 全社會的인 共同管理를 強化함과 同時에 兩親에 대한 教育制度를 發達시키는 것은 社會的 非理의 豫防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重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基本的 問題의 解決이 없이 反社會的 非行의 박멸은

不可能한 것이다.

세째, 犯罪原因을 犯罪者 自身の 「퍼스널리티」에다 전가시키고 있다. 그것은 公式的인 教育과 文化水準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社會가 提供하는 모든 機會를 진취적으로 利用하지 않았고, 元來 나쁜 性品の 所有者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째, 社會主義 體制가 지니는 潛在的 機能과 關聯해서 마르크스 主義者들은 이를 「資本主義的 殘滓」라든가 「 부르조아의 思考의 遺制」로서 說明하려는 一種의 文化遲滯論(cultural lag)으로 일관하고 있다.

共產主義 國家의 社會學者들은 「共產國家에 있어서 社會犯罪은 그것이 社會主義 體制의 特質에 의하여 豫想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前提하고, 靑少年 非行의 基礎를 이루는 현상과 過程은 經濟的 · 이데올로기의 · 文化的 및 日常的인 過去의 殘存物의 影響에 의한 結果이며 그것은 物質的 資源의 發達過程과 결부된다고 主張한다. 레닌도 「社會關係의 規則을 侵害하는 不法行爲의 根本的인 原因은 大衆의 搾取, 그들의 飢餓과 貧困이다」(《國家와 革命》에서)라고 하여 本質的 問題解決에의 接近을 회피했다.

北傀의 反社會的 現象에 對한 金日成의 思考도 以上과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金日成은 反社會的 作風의 manifestations을 다음과 같이 解釋한 바 있다.

즉 封建的 부르조아의 思想의 殘存, 幹部들의 革命的 經驗의 不足, 幹部들의 大衆領導方式의 未熟, 黨의 幹部政策의 欠陷, 黨의 그릇된 事業作風에 對한 鬪爭不足 등 枝葉的 側面에서 社會的 逸脫의 源泉을 찾고 있다. (金日成, 「官僚主義를 退治할 데 對하여」 1955에서)

共產主義者들의 社会逸脱에 대한 理論 展開에 있어서 가장 特徵的 側面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 原因을 그들 社会体制의 主要 制度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보지않고 그것을 共產社会의 「外部」에 그 責任을 전가시키려는 立場에서 說明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逸脱行爲에 관한 分析은 「汚染(Contamination)」이라든가 「잔재(survival)」의 概念에 依存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概念은 空間的·時間的인 意味에서, 反社会 行爲의 原因을 「外部」에서 구하려 함으로써 共產社会 体制에 그 責任이 있다는 것을 否認하려는 立場이다. 여기서 「汚染」이라는 概念은 「타락해 가고 있는 西歐의 부르조아적 影響」을 가리키고 있으며 「殘滓」의 概念은 『前時代의 搾取的인 社会經濟 形態로부터 社会主義 建設의 中間으로 「侵入」해 온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社会犯罪은 「先行하는 社会 - 經濟 形態에 固有한 것이지 社会主義의 本質로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다. 過去의 잔재는 이러한 現象을 生成해 내는 社会的·經濟的 原因이 消滅해 버린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意識속에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說明한다.

이러한 見解는 때때로 共產主義 社会 自体의 矛盾을 스스로가 暴露하는 結果를 초래케 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以上과 같이 모든 逸脱的 行爲의 根源을 「낡은 社会秩序가 破壞된 이후에도 殘存하는 過去의 態도의 殘滓」라고 假定하는 殘滓理論 내지 文化 遲滯論을 고집하는 경우 여기에는 큰 難點을 스스로 內包하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論理가 보다 旧世代의 경우에는 適用될지 모르겠으나, 젊은 世代에 그것을 適用하려고 한다면 既成의 老世代가 이 殘滓를 새로운 靑少年 世代에게 傳承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主張이

成立될 수 있는 根拠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共產社会도 다른 社会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確認할 수 있는 어떠한 「社会逸脱」의 要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共產体制의 社会的 環境에서 연유한 産物이며 이런 面에서 社会的 逸脱現象은 하나의 超体制的 現象인 것이다.

#### 나. 社会的 不条理 現象

社会的 不条理 現象 또한 南北韓의 社会体制的 性格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그 때문에 社会安全性을 沮害하는 社会不条理 現象을 測定하는 問題도 結局은 直接的 相互比較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社会가 지닌 社会的 不条理의 特性은 社会体制의 文脈속에서 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北韓의 경우, 그동안 그들이 採択한 政策的 方向이라든가 政策決定 過程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当面한 反社会主義的이고 反社会的인 諸問題点에 대해 단편적이거나 繼統적으로 指摘해 왔다.

1973年 “새 党証再交付事業”, 1975年 “工業熱誠者大会”, 1977年 「社会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와 새로운 「土地法」등에서 그들의 当面課業을 強調하는 가운데서 指摘된 社会的 不条理의 양상들은 그 代表的 实例라 하겠다.

이러한 事例에서 北韓이 처한 社会的 不条理와 不安定の 素地를 간추려 보면,

- ① 金日成敎示 學習에 대한 기피
- ② 党 組織生活의 태만 및 위면
- ③ 黨員과 勤勞者의 消極性 및 熱誠의 不足

- ④ 勞動嫌惡와 勞動忌避 그리고 勞動規律의 違反
- ⑤ 國家財産의 消費와 流用 그리고 財産濫用
- ⑥ 技術神秘主義, 保守主義, 經驗主義, 修正主義, 資本主義思想, 封建儒敎思想 等 “낡은 思想殘滓”의 持續
- ⑦ 官僚主義, 主觀主義, 要領主義, 形式主義 事業作風
- ⑧ 青年 「인텔리」의 反社會主義的 行動과 人間疎外등의 現象이 그것이다.

北韓 스스로가 提示한 以上の 諸現象은 오늘날 北韓 社會의 주변을 흐르고 있는 모든 住民들의 內面的 社會意識을 그대로 反映한 것이며, 이는 社會的 不安의 素地로서 깊이 作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社會問題의 諸要因

이러한 現實的 狀況에서 北韓 社會가 當面하고 있는 社會不安의 要因을 보다 科學的 立場에서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個人偶像化政策이 지닌 內在的 矛盾인 것이다. 金日成은 個人崇拜 - 個人偶像化 - 個人神格化 - 家系偶像化의 政策을 이미 30余年에 걸쳐 強行하여 왔으며 近者에는 “代를 이어 忠誠하자”는 口號 밑에 後繼體制의 基盤構築에 血眼이 되어 있다. 그런데 偶像化體制란 根本적으로 個人的 忠誠을 그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排他的 概念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北韓의 경우에는 民族史의 捏造와 金日成思想의 虛構로 個人偶像化의 基盤은 더욱 취약하고 架工的이다. 이런 면에서 北韓은 金日成에 대한 懷疑와 不信을 자아낼 수 있는 體制的 「딜레마」를

스스로가 造成시켜 왔던 것이다.

둘째는 價值指向의 非現實性이다. 北韓은 그동안 「앞으로 成就될 未來像」에 대한 여러가지 “希望的” 약속만을 提示해 놓고 住民들에게 現在의 苦痛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強調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未來에 대한 約束이 現實적으로 實現 不可能한 것이라는 점이 점차로 立証됨에 따라 住民들이 받는 心理的 動搖와 社會的 不滿意識은 더욱 심각하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北韓은 그동안 慾求調節을 위한 統制政策을 強力하게 펴 왔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7個年計劃, 6個年計劃등을 遂行하는 過程中서 勞力英雄과 目標 超過達成만을 煽動한 나머지 個人의 慾求水準은 社會的 機會보다 훨씬 빠른 速度로 上昇하면서 여기에 住民들의 期待挫折感이 增大하게 되었고, 그러한 挫折意識이 反社會的 抵抗으로 發展된 것이다.

세째는 人間本能을 抹殺하려는 “共產主義式 人間改造” 政策이다. 元來 人間이란 새로운 價值創造의 主体로서 物質的 條件까지도 能動的으로 變化시킬 수 있는 創造的 힘과 開拓의 精神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自由世界의 共通된 見解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러한 人間의 本性을 全혀 外面하고 人間의 精神을 物質의 反映 또는 模寫로 보기 때문에 그 能動성과 創造성은 소위 “黨의 決定” 혹은 “首領의 敎示”에 充實하려는 努力에 依해서만 發揮될 수 있는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다.

이러한 非人間的 人間觀에 따라 北韓은 1976年 6月 “어린이 保育敎養法”을 採択한 것이다. 그들은 모든 어린이들을 이 世上에 태어날 때부터 託兒所 및 幼稚園에 集團 收容케 함으로써 家族의 人間的 關係를 단절하고 民族 傳來의 傳統的 家族 雰圍氣와 家族

의 社會化 機能을 한層 더 마비시키는 措置를 敢行하고 있다. 北韓의 動物的인 人間鑄造方法은 結果的으로 住民의 반발심과 靑少年의 不安意識을 사게 되었고 나아가 社會不滿의 要因으로 作用한 것이다.

끝으로 階層構造와 社會的 移動의 硬直性에서 提起되는 問題이다. 즉 “北韓은 階級的 對立이 없어졌다”는 宣傳과는 달리 現實的으로는 새로운 階級이 形成되었고 階層變動을 일으킬 정도의 社會的 移動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階級構造는 抵抗의 諸要素를 政治的으로 철저히 除去하는 權力統制의 장치로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위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實現한다는 명분하에 30余年間에 걸쳐 자행해 온 階級敎養, 階級政策은 結果的으로 革命精神, 革命家를 養成했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特權階層만을 形成시켜 놓았고, 나아가 이러한 特權的 地位를 繼承시키려는 政策이 強化되는 過程에서 대다수의 住民들로 하여금 挫折, 不安, 疎外의 心理를 길러 놓았다고 判斷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 社會는 이러한 北韓 實情과는 전혀 상이한 側面에서 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韓國은 1960年代以後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 推進으로 自立經濟의 基盤造成과 더불어 近代的 產業社會를 指向하여 急速度로 成長하였다.

社會文化的 側面에서 볼 때 어느 社會를 莫論하고 近代化, 工業化, 都市化된다는 良機能的 變數는 반드시 이에 부수되는 逆機能的 變數가 隨伴되고 있으며 이러한 兩者間의 調節·調整의 問題가 오늘날 하나의 심각한 國家的 課業으로 提起된 것이다. 특히 開發途上 國家의 경우라든가 急速한 工業化 過程에 있는 나라일수록

이러한 現象이 더욱 問題가 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韓國은 經濟力의 急速한 成長과 이에 따른 靑少年問題, 社会的 隔差, 社会的 不条理등을 國家安保的 次元에서 하나의 主要한 社会的 課題로 삼고 있는 것이다.



## 8. 要約과 結論

半万년의 歷史에 걸쳐 韓半島 全域에는 單一民族에 同質의 文化가 綿綿히 이어져 왔다. 言語가 같고 같은 思考方式, 비슷한 行動樣式을 가지고 있었다. 1945年 解放直後까지만 해도 南北韓은 同一한 社会文化를 가지고 하나의 生活共同体로서의 同質性和 連帶性을 이루었다. 그러나 南北分断이라는 悲劇은 서로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政治体制, 經濟体制를 形成하고 相互排斥的인 生活圈을 形成케 하였다. 이로서 南北韓 사이에는 異質的 社会文化를 부식하게 되었고 급기야 民族的 同質性마저 破壞된 나머지 敵對化의 길을 걷고 있다 하겠다.

以上과 같은 觀点에서 우리들은 社会体制의 構成原理와 그 体制維持装置를 전혀 달리하는 南北韓間의 相異한 두 社会文化를 諸般 既存資料의 制限된 範圍内에서 比較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南北韓間에는 이제 社会文化的 類似性보다는 特異點이 支配的으로 作用하고 있으며 兩側間의 異質化와 더불어 敵對化의 정도가 더욱 심화·고착되고 있다는 點을 發見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南北韓 比較에서 發見된 몇가지 差異를 整理하고 그 意味를 解釋해 보기로 하자.

첫째, 基本体制에 있어서,

① 韓國은 窮極的으로 社会福祉 向上을 추구하는 多元社会인데 反해서 北韓은 金日成 唯一思想이 支配하는 全体主義的 劃一社会를 強制하고 있다.

② 韓國은 個人能率 指向的인 社会組織 形態를 추구하고 있으나 北韓은 集團主義 原則에 의거, 相互競爭을 통한 集團能率의 向上을

재촉하는 組織的 動員社會를 이룩하고 있다.

둘째, 生活樣式에 있어서 異質化가 民族 同質性의 基準인 言語, 風習등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形成되고 있다. 韓國이 韓民族의 同質性을 그대로 繼承, 發展시키고 있는 反面, 北韓에서는 이를 改造, 捏造, 抹殺해 가는 過程에서 모든 것을 「革命性」, 「党性」, 「鬪爭性」에 결부시키고 있으며 종국에 가서는 그들은 血緣의 同質性마저 否認할지도 모른다.

셋째, 家庭生活에 있어서, 韓國은 子女에게 人間다운 情緒를 배양시켜 健全한 人格을 갖춘 生産的인 社會人의 養成을 추구하는 反面, 北韓은 家庭 不在의 狀態下에서 學校와 社會團體에 의한 社會主義的 教育方法을 通하여 共產主義的 人間形成에 狂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教育에 있어서 韓國은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 生活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向上을 具備하여 民主福祉 國家의 建設에 奉仕하며 人類共榮의 理想實現에 기여케 하고 있는데 (教育法 第1條) 比해, 北韓은 人格形成을 위한 基本的인 教育을 外面하고 鑄造化된 共產主義的 人間을 養成하여 共產革命의 道具로서 活用하려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은 人類共榮의 精神에도 背馳될 뿐만 아니라 世界平和에 대한 挑戰者를 양산하게 된다.

다섯째, 韓國에 있어서는 宗教의 自由가 保障되고 國民의 79% 以上이 宗教活動을 함으로서 基督教의 「사랑」, 天主教의 人類에 대한 「박애」, 佛敎의 「慈悲」, 유교의 「仁」등 諸宗教의 敎理는 韓國人에게 무엇보다도 「宗教的 眞理」와 「人間다운 人間」으로서의 價值意識을 심어 주는데 크게 기여하는데 비해, 北韓은 「宗教는 阿片」이라는 共產主義 哲學에 따라 宗教가 唯物論的 共產

主義로 代替되었고, 더우기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탈바꿈하였으며 無宗教 狀態下에서 共產主義를 盲信케 함으로써 非情的이고 冷血的인 動物意識만을 一方的으로 形成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文化活動에 있어서, 北韓은 「매스콤」, 文學, 藝術 및 學術등을 體制維持 手段으로서 活用하고 있으며, 客觀性, 藝術性を 否認한다.

일곱째, 社會變動과 關聯하여 南北韓社會는 多같이 體制的 特性에 상응하는 諸社會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즉 南北韓 社會에 있어서 犯罪, 非行, 社會的 不条理, 人間疎外 등 社會逸脫現象은 社會的 緊張과 心理的 不滿을 야기함으로써 社會文化的 再組織化를 誘導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相異點과 類似性을 前提로 하여 評價해 볼 때, 北韓에 있어서 文化的 目標의 齊一性, 義務教育制度의 擴大, 靑少年 技術教育의 強化, 乳兒教育의 系統化 및 勞動力의 動員組織등은 社會文化的 강한 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全體主義的 動員體制를 完備한 北韓은 勞動力을 最大限 榨取, 最大限 動員하는 대신 勞動力의 單純再生産을 위한 최소한의 人間生存條件에 대해서만은 制度的 保障을 약속하고 있다는 點이 注目된다.

韓國의 경우, 人力面에서 또 物量面에서 그 資源이 豊富하고 質的 水準도 比較적 높을 뿐만 아니라 1960年代 以後의 高度成長에 따른 生活水準의 向上도 특기할 事實이다. 그러나 急速한 社會變動 過程에 隨伴하는 價值體系의 混在, 社會文化的 隔差, 社會的 逸脫行動, 社會的 不条理 등 社會安定을 沮害하는 要因들이 아직도 그 解決을 必要로 하는 課題들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諸般問題 狀況은 바꾸어 말하면 人的, 物的, 社会的 資源 등 社会文化的 潜在力은 豊富하나 이를 目標追求的 立場에서 社会文化的 目標( 또는 國家目標 )와 關聯시켜 최대한으로 活用할 수 있는 社会組織化 作業이 均衡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結果를 말해준다.

결국 한 나라의 社会文化 發展이란 窮極的으로 각기 体制原理에 따라 各 社会가 充足해야 할 諸般 必要條件을 어느 정도 充足하고 있는냐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다. 이것은 社会文化的인 面에 있어서의 潜在的 諸要素들이 國家目標를 指向하여 相互有機的인 均衡과 調和, 調整을 이룩할 때 비로소 成就되는 것이다.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社会文化的 諸要素들간의 調和, 調整이라는 面에서 보면 北韓이 오히려 앞서 있다. 그러나 그동안 人爲的이고 閉鎖的인 調整을 強要해 온 北韓에서는 個人偶像化, 民族史의 捏造, 民族文化 抹殺, 人間性 否定, 硬直的 階級政策, 統制手段의 一方的 強化等 金日成体制的 諸矛盾이 그러한 強圧的 調整을 어느 정도 지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韓國은 그 絶對 優位의 物量的 資源, 技術水準 그리고 經濟發展段階에 있어서 이미 北韓과는 그 次元을 달리하는 앞선 段階에 있다. 다만 이러한 諸要素들간의 調和와 調整의 問題가 앞으로의 課題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앞으로 時間이 흐르면 흐를수록 南北間의 社会文化的 異質化와 同時에 그 力量의 隔差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同時에 北韓側의 民族史의 正統性的의 拒否와 繼續되는 民族文化 抹殺政策에서 起因되고 있는 南北韓의 異質化 現象은 날이 갈수록 더욱 深化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民族統一이라는 觀点에서 볼 때 全体 韓民族의 悲劇이 아닐 수 없다.